

발 간 등 록 번 호

11-1613436-000206-01

유엔지명전문가그룹 총회 대응전략 연구

2019. 12.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제 출 문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귀 원과 계약 체결한 「유엔지명전문가그룹
총회 대응전략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9. 12.

사단법인 동해연구회 회장 주 성 재

참 여 진

참여연구진

연구책임자	경희대학교 교 수	주 성 재
연 구 원	충북대학교 교 수	류 연 택
연 구 원	한국교원대학교 교 수	김 영 훈
연 구 원	건국대학교 교 수	윤 지 환
연구보조원	경희대학교 석 사	조 현 진
보 조 원	경희대학교 석사과정	김 찬 호

자문위원

외교부 영토해양과장	김 지 연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이 기 석
한국외국어대학교 초빙교수	김 영 원
한중문화협회 부회장	유 의 상
서울시립대학교 겸임교수	장 은 미
국립국어원 어문연구과장	정 호 성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조사과장	안 재 각
국토조사담당	강 우 구
감 독 관	손 현 기

목 차

□ 용역 개요

1. 과제수행 배경 및 목적	1
1) 배경	1
2) 목적	3
3) 과제의 범위	4
2. 과제의 주요 내용	6
1) 제1차 신 유엔지명전문가그룹(new UNGEGN) 총회 참석 및 보고	6
(1) 유엔지명회의 개요	6
(2) 총회 참석 준비	16
(3) 회의 결과	24
2) 지명표준화 관련 국제회의 참가 및 대응	46
(1) 개요	46
(2) 프로그램	46
(3) 회의 결과	47
(3) 평가 및 시사점	55
3) 지명표준화 관련 법제화 현황 국내·외 사례 조사·분석	57
(1) 지명표준화 관련 법제화 현황 국내 사례 조사 분석	57
(2) 지명표준화 관련 법제화 현황 국외 사례 조사 분석	89
3. 과제의 기대효과	112

<별첨 1> 유엔총회 23개 의제	115
<별첨 2> 총회 5일간의 일정	117
<별첨 3> 제1차 총회에 제출된 우리나라의 워킹페이퍼	121
<별첨 4> 제1차 신 유엔지명전문가그룹 총회 23개 의제별 세부내용	147
<별첨 5> 오스트리아 지명회의 개요	163
<별첨 6> 오스트리아 지명회의 발표 자료	169
<별첨 7> 북유럽 디비전 워킹페이퍼	183
<별첨 8> UNGEGN Bulletin	201

1. 과제수행 배경 및 목적

1) 배경

- 지명은 장소와 같은 지리적 실체에 대한 이름으로 사회적 구성원의 동의와 사용을 통해 의미를 갖게 됨
- 지명은 지리적 실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정확하고 바른 지명의 제정은 국가가 담당해야 할 중요한 업무로 인식되어왔음
-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지명은 단순히 장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공간정보의 통합의 기반이 되는 일종의 정보의 식별요소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음
- 이와 같은 이유로 많은 국가들이 지명의 제정, 변경, 관리의 상세한 규정과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통치 행위의 중요한 부분임
- 지명의 관리는 개별 국가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국제사회에서 지명의 정확한 사용 및 활용을 장려하고, 혼동을 최소화하여 지명을 둘러싼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협력체제가 구축되어 있음
- 유엔은 지난 수년간 구조조정의 논의와 절차를 거쳐 유엔지명표준화총회(United Nations Conferences on the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 UNCSGN)와 유엔지명전문가그룹(United Nations Group of Experts on Geographical Names, UNGEGN) 두 기관의 통합을 결정하고 보다 효율적인 세계 각국의 지명표준화와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 있음
- 정부 대표가 참여하는 UNCSGN와 전문가그룹이 참여하는 UNGEGN이 통합된 새로운 형태의 신 유엔지명전문가그룹(new UNGEGN)의 제1차 총회가 5일의 기간(2019. 4. 29~5. 3)으로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되었으며, 이 회의에 참여하여 지명 표준화 및 관리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실적을 알리고 해외의 동향을 파악하는 일을 진행하였음

- 지명표준화 업무는 단순히 우리의 지명 관리 성과를 전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며, 국제 사회의 지명 관리 규정과 성과를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지명 관련 정책 수립에 반영하는 작업도 포함되어야 함
- 이를 위해 지명표준화 관련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해외 지명위원회의 활동현황과 체계를 분석하고 지명표준화 관련 국내·외 법제화 현황의 사례를 파악하여 우리의 지명 관리에 반영하는 작업이 필요함

2) 목적

- 우리나라의 지명 업무 관련 추진 실적 및 성과 등을 담은 워킹페이퍼를 작성하여 제1차 신 유엔지명전문가그룹(new UNGEGN) 총회에 제출하고, 총회에 참가하여 발표하고 국제기구의 지명논의에 참여함
- 그동안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추진한 지명 관리의 성과를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각국 대표단에게 배포함
- 지명표준화 관련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실무협의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며, 이를 국내외 지명 전문가들과 공유할 수 있는 자료를 생산하고 우리나라 지명 관리를 위한 시사점을 발굴함
- 지명표준화 관련 국내·외 법제화 현황을 사례 분석하고, 우리나라 지명 관리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함

3) 과제의 범위

- 이 연구는 세 가지 과제로 구성되어 있음
 - I. 제1차 신 유엔지명전문가그룹(new UNGEGN) 총회(미국 뉴욕, 2019. 4. 29~5. 3) 참석 및 보고
 - II. 지명표준화 관련 국제회의 참가
 - III. 지명표준화 관련 법제화 현황 국내·외 사례 조사·분석
- 이 세 가지 과제는 각각 독립적으로 완성된 형태를 갖도록 할 것이지만,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추진되도록 유도할 것임

① 제1차 신 유엔지명전문가그룹(new UNGEGN) 총회(미국 뉴욕, 2019. 4. 29~5. 3)

- 제1차 신 유엔지명전문가그룹(new UNGEGN) 총회에 대비하여 의제를 분석하고 관계기관과 전문가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보고서를 작성·제출함
- 제1차 신 유엔지명전문가그룹 총회에 참석하여 보고서를 발표하고 토론에 참여함. 아울러 동 기간 개최되는 각 분과(Working Group) 실무 회의에 참석하여 결과를 보고함
- 우리나라 지명 관리의 주요한 성과인 지명 관련 각종 출판물을 소개하는 홍보물을 제작하여 각국 대표단에 배포함
- 회의 참석의 결과를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차기 유엔지명회의의 대비를 위한 방안 및 우리나라 지명 관련 추진전략을 제시함

② 지명표준화 관련 국제회의 참가

- 오스트리아 지명위원회가 주최하는 창립 50주년 기념 심포지엄(오스트리아 빈, 2019. 11. 6~8)에 참석하여 회의 결과를 보고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 지명위원회의의 활동 현황을 조사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며, 우리나라 지명 위원회와의 교류 가능성을 검토함

③ 지명표준화 관련 법제화 현황 국내·외 사례 조사·분석

- 국내 지명 관련 법제화 현황과 사례를 조사·분석함
- 지명표준화 관련 해외 법제화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우리나라 법제화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함(유엔지명전문가그룹에서 발표된 자료 활용)

2. 과제의 주요 내용

1) 제1차 신 유엔지명전문가그룹(new UNGEGN) 총회 참석 및 보고

(1) 유엔지명회의 개요

㉠ 유엔지명표준화회의 (UNCSGN)

-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정확한 지명 표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1959년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의 결의를 통해 지명표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의하여 1967년 제1차 유엔지명표준화 총회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 UNCSGN)가 개최됨
- 제1차 총회 이후 5년마다 한 번씩 회의를 개최하였고, 가장 최근에는 2017년 제11차 총회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함
- 유엔지명표준화 총회는 지명표준화를 위한 중앙 감독기관으로서 다음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음
 - 국내적, 그리고 국제적 지명표준화 작업을 장려
 - 국가의 표준화된 지명정보가 국제사회에 확산되는 것을 촉진
 - 비로마자 표기를 로마자로 전환하기 위한 단일 로마자 시스템을 채택
- 총회에서 논의되는 지명표준화의 기준과 원칙은 관련된 결의문(Resolution)을 채택하고 실행함으로써 시행됨
- 제1차부터 제11차 회의까지 총 2,022개의 페이퍼가 발표됨
 - 캐나다가 152개로 가장 많은 페이퍼를 발표하였고, 다음으로 미국 105개, 오스트리아 64개, 프랑스 46개의 순서임
 - 한국은 34개의 페이퍼를 발표함

<표 1> UNCSGN총회 개최현황

차수	연도	장소	참가국수	대표수	의장(국적)	부의장	채택결의문	Paper
1	1967	Geneva	55	131	Meredith F. Burrill (USA)	A. N. Baranov (USSR)	20	113
2	1972	London	52	n.a.	H. A. G. Lewis (UK)	E. Meynen (GER) F. Gall (Guatemala)	39	192
3	1977	Athens	59	152	L. Mavridis (Greece)	R. O. Coker (Nigeria) F. Gall (Guatemala) H. Ganji (Iran)	27	232
4	1982	Geneva	62	136	D. P. Plock (Netherlands)	J. Ramondou (France) A. Tazi (Morocco) Y. R. Velazquex Garcia (Cuba)	26	142
5	1987	Montreal	53	106	Jean-Paul DROLET (Canada)	A. Tazi (Morocco) LI Ximu (China) Jose Maria CONZALEZ ABOIN (Spain)	26	190
6	1992	New York	69	158	Abdelhadi Tazi (Morocco)	Richard R. RANDALL (USA) Hamid MALMIRIAN (Islamic Republic of Iran) WANG Jitong (China)	14	171
7	1998	New York	71	211	Peter Raper (South Africa)	Sylvie LEJEUNE (France) Brahim ATOUI (Algeria)	15	150
8	2002	Berlin	88	282	Klaus-Henning Rosen (Germany)	David Munro (UK) Brahim Atoui (Algeria)	17	223
9	2007	New York	90	300	Helen Kerfoot (Canada)	Brian Goodchild (Australia) Luis Abrahamo (Mozambique)	11	233
10	2012	New York	61	270	Botolv Helleland (Norway)	Abdul Kadir Taib (Malaysia) Milan Adamič (Slovenia)	12	212
11	2017	New York	65	257	Ferjan Ormeling (Netherland)	Brahim Atoui(Algeria) Andreas Hadjiraftis (Cyprus)	4	164

* 당초 제4차 대회는 이란, 제6차 대회는 모로코, 제7차 대회는 이란에서 개최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변경되었음

② 유엔지명전문가그룹 (UNGEGN)

- 유엔지명전문가그룹(United Nations Group of Experts on Geographical Names, UNGEGN)은 1975년 제2차 UNCSGN 총회에서 지명표준화 작업을 위한 임시전문가그룹으로 창설됨
- UNCSGN총회의 내부에서 수행 중인 프로그램의 연계와 조정을 담당함
 - 지명표준화 작업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원칙, 정책, 적절한 방법을 연구하고 제안
 - 지명표준화 작업을 위한 과학적,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특히 개도국의 지명표준화를 위한 체제구축을 지원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
 - 국가 간 지명표준화 작업 결과를 확산시키기 위한 연락소로서 국제적 협력의 매개체의 역할 수행
 - 유엔지명표준화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 내용을 이행
- 매 2년마다 전체 회의(Session)를 개최하였음
 - 일반적으로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하지만, 특수하게 유엔 시설이 있는 도시(나이로비, 2009; 빈, 2011; 방콕, 2016)에서 개최하기도 함
- 제1차부터 제30차 회의까지 총 1,516개의 페이퍼가 발표됨
 - 한국은 46개의 페이퍼를 발표함
- UNGEGN은 언어/지리적 디비전(Division)으로 나뉘어 구성
 - 24개 디비전이 구성되어 있음
 - 한 국가가 여러 개의 디비전에 속할 수 있음
 - 디비전은 필요에 따라 분리 또는 통합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북한, 일본과 함께 Asia East Division (other than China) Division에 소속되어 있음

- UNGEGN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실무위원회로서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활동하며, 현재 9개의 워킹그룹이 구성되어 활동 중에 있음
 - ※ 제30차 UNGEGN회의(2017)에서 발음문제 워킹그룹(Working Group on Pronunciation)은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3개 워킹그룹의 의장을 새로 선임, 1개 워킹그룹의 의장은 공동의장 선임
- 이밖에도 두 개의 실무팀이 있음
 - 아프리카 지명제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Task Team for Africa
 - 지명표기 가이드라인의 제작 및 배포를 돕기 위한 Toponymic Guidelines for Map and Other Editors for International Use

<표 2> UNGEGN회의 개최현황

차수	연도	장소	참가 국수	전문 가수	의장(국적)	부의장(국적)	Paper
M1	1960	New York					
M2	1966	New York					
1	1967	Geneva		6	Meredith F. Burrill (USA)		
2	1970	New York	18	25	"	A. M. Komkov (USSR)	27
3	1971	New York	23	15	"	"	0
4	1972	London	20	27	"	"	0
5	1973	New York	20	32	"	"	44
6	1975	New York	25	39	"	"	62
7	1977	Athens	30	39	J. Breu (Austria)	W. J. Absalom (Kenya)	3
8	1979	New York	26	37	"	"	59
9	1981	New York	30	45	"	"	65
10	1982	Geneva	26	40	D. Blok (Netherlands)	Y. Velasquez (Cuba)	8
11	1984	Geneva	36	56	"	"	56
12	1986	Geneva	33	55	"	"	72
13	1987	Montreal	33	51	H. Dorion (Canada)	A. Tazi (Morocco)	2
14	1989	Geneva	36	71	"	"	86
15	1991	Geneva	39	79	"	"	76
16	1992	New York	69	158	Peter. E Raper (South Africa)	Helen Kerfoot (Canada)	4
17	1994	New York	34	69	"	"	93
18	1996	Geneva	45	90	"	"	104
19	1998	New York	46	108	"	"	5
20	2000	New York	52	131	Helen Kerfoot (Canada)	Botolv Helleland (Norway)	110
21	2002	Berlin	88	282	"	Brahim Atoui (Algeria) Jörn Sievers (Germany)	10
22	2004	New York	63	190	"	"	121
23	2006	Vienna	67	250	"	"	102
24	2007	New York	90	300	"	Brahim Atoui (Algeria) Ferjan Ormeling (Netherlands)	16
25	2009	Nairobi	53	145	"	Brahim Atoui (Algeria) Ferjan Ormeling (Netherlands)	98
26	2011	Vienna	59	187	"	Brahim Atoui (Algeria) Ferjan Ormeling (Netherlands)	94
27	2012	New York	61	270	William Watt (Australia)	Ferjan Ormeling (Netherlands) Naima Friha (Tunisia)	20
28	2014	New York	53	166	"	"	80
29	2016	Bangkok	49	180	"	"	85
30	2017	New York	65	257	"	"	12

<표 3> UNGEGN의 워킹그룹 및 실무팀

no	Division	의장
1	Working Group on Country Names	Élisabeth Calvarin (France), Leo Dillon (USA)
2	Working Group on Toponymic Data Files and Gazetteers	Pier-Giorgio Zaccheddu (Germany)
3	Working Group on Toponymic Terminology	Trent Palmer (USA)*
4	Working Group on Publicity and Funding	Peder Gammeltoft (Denmark)
5	Working Group on Romanization Systems	Peeter Päll (Estonia) Catherine Cheetham (UK)*
6	Working Group on Training Courses in Toponymy	Peder Gammeltoft (Denmark)*
7	Working Group on Evaluation and implementation	Sungjae Choo (Republic of Korea)
8	Working Group on Exonyms	Kohei Watanabe (Japan)*
9	Working Group on Pronunciation**	Tjeerd Tichelaar (Netherlands)
10	Working Group on Geographical Names as Cultural Heritage	Annette Torensjö (Sweden)
A	Task Team for Africa	Brahim Atoui (Algeria)
B	Toponymic Guidelines for Map and Other Editors for International Use	Gerhard Rampl (Austria)

* 제30차 회의(2017)에서 새로 선임된 의장

** 제30차 회의(2017)에서 활동을 중단하기로 함

UN Statistics Home | UN Home

UNGEEN United Nations Group of Experts on Geographical Names

Overview

Mandate

UNGEEN (NEW)

Sessions

Conference

General Conferences

UNGEEN

General

Sessions

Divisions

Working Groups

Bureau and Convenors

Liaison Officers

World Geographical Names

Web Based Training

National Names Authorities

General

Country links

Geographical names databases

Toponymic guidelines

Publications

UNGEEN Publications

Bulletin

UNGEEN Working Groups

Under the umbrella of UNGEEN, several working groups have been created to follow up topics and issues which cut across the Divisional structure of UNGEEN. In addition, UNGEEN has a Task Team for Africa and coordinates the work of countries in developing their Toponymic Guidelines. In the short outlines that follow, the Convenor of each Working Group is indicated and can be contacted for more details.

1. Working Group on Country Names
2. Working Group on Toponymic Data Files and Gazetteers
3. Working Group on Toponymic Terminology
4. Working Group on Publicity and Funding
5. Working Group on Romanization Systems
6. Working Group on Training Courses in Toponymy
7. Working Group on Evaluation and Implementation
8. Working Group on Exonyms
9. Working Group on Geographical Names as Cultural Heritage

A. Task Team for Afric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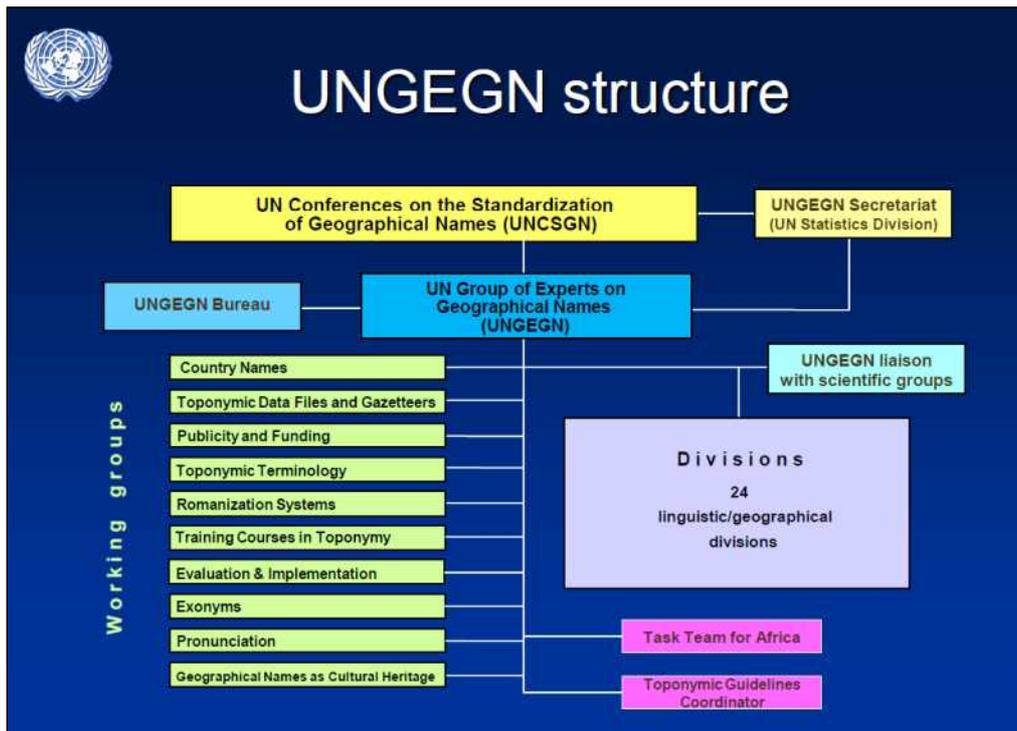
B. Toponymic Guidelines for Map and Other Editors for International Use

Note: Activities of the Working Group on Pronunciation are now being done by the Working Group on Toponymic Data Files and Gazetteers and the Working Group on Geographical Names as Cultural Heritage*.

Other UNGEEN Working Groups that have been created and disbanded include:

- *Working Group on Pronunciation
- Names of undersea and maritime features
- Extraterrestrial topographic names

<그림 1> UNGEEN에 속한 9개의 워킹그룹 (출처: UNGEEN 홈페이지)



<그림 2> UNGEEN 조직도 (출처: UNGEEN 홈페이지)

* 발음문제 워킹그룹(WG on Pronunciation)이 활동을 종료함에 따라 새로 작성될 예정임

③ 신 유엔지명전문가그룹 (New UNGEGN)의 탄생

- 2015년 이래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로부터 유엔통계국(UNSD) 내 소속 기구의 통폐합에 대한 요청이 있었음
 - 2011년 지리정보의 국제적 표준화를 추구하기 위해 새롭게 조직된 유엔 글로벌지리정보관리그룹 (UN-GGIM, Global Geospatial Information Management)을 중심으로 하여 유엔지명회의를 재편하자는 제안
 - 유엔지명표준화총회(UNCSGN)와 유엔지명전문가그룹(UNGEGN) 회의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이자는 제안
- 수 년 간 논의 후, UNCSGN과 UNGEGN은 통합하여 독립된 기구로 존재하며 그 브랜드는 UNGEGN를 사용하도록 결정함(2017. 8. 제11차 UNCSGN 총회에서 결의안 논의, 2017. 11. 결의안 최종 채택)
 - 2년마다 5일간의 회의 개최(제1차 총회는 2019. 4. 29~5. 3.), 장소는 뉴욕 유엔본부를 기초로 다른 도시의 유엔시설 또는 개최 의사를 밝힌 국가 선정
 - UNGEGN은 UN-GGIM과 밀접한 연계 하에 상대방의 회의에 대표가 참석하고 활동보고서를 제출·발표하도록 함(그 이상의 연계는 논의 중)
- 기존의 헌장(Statute)과 절차규정을 통합한 새로운 절차규정(Rules of Procedure)과 제1차 총회의 의제를 채택함(2018. 7.)
 - 정부대표 참석의 UNCSGN 요소와 전문가가 참석하는 UNGEGN 요소를 하나의 절차규정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이슈가 제기됨(기구의 목적과 원칙을 실무적인 절차규정과 분리하는 문제, 수석대표 임명, 전문가 임명, 정치적 이슈 배제, 의사결정에 있어 컨센서스와 투표의 문제 등)
 - 동해 문제가 제기되었던 의제 “단일 주권을 초월한 지형물(features beyond a single sovereignty)”은 의제 7. “지명의 국가, 국제표준화” 항목에 포함됨

- 제1차 총회 운영을 준비하기 위한 평가실행위킹그룹/홍보재정위킹그룹 연석회의를 2018년 10월 브뤼셀에서 개최한 바 있음
 - UNGEGN 의장, 전의장, 위킹그룹 의장 등 참석
 - 두 주 간 진행되었던 회의를 5일에 효율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방안이 집중 논의됨(문서작성 및 발표 방법, 주제별 그룹핑, 자리배치, 향후 의제의 발굴 등)
- 금번 열리는 회의를 신 유엔지명전문가그룹 (New UNGEGN) 제1차 총회 (First Session)이라 칭하고 개최하였음
 - 의제에 따라 각 구성원(위킹그룹, 디비전, 회원국)의 보고서 제출
 - 위킹그룹, 디비전 등 소그룹회의 진행

4 유엔지명회의에의 한국의 참여

- 우리나라는 1981년 제9차 UNGEGN회의, 1992년 제6차 UNCSGN총회에 처음 참석한 이후 지속적으로 유엔지명회의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음

<표 4> 유엔지명회의의 한국 참여 역사

회의명	개최연도	개최장소	제출 워킹 페이퍼 수	참가자 수	수석대표
9th UNGEGN	1981	New York	1	1	최석윤(건설부)
11th UNGEGN	1984	Geneva	1	1	이부식(국립지리원 과장)
14th UNGEGN	1989	Geneva	1	2	조영구(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 담당관)
15th UNGEGN	1991	Geneva	-	2	문봉주(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 참사관)
6th UNCSGN (16th UNGEGN)	1992	New York	-	4	서병용(주 유엔 대한민국 대표부 차석대사)
17th UNGEGN	1994	New York	-	2	이규형(주 유엔 대한민국 대표부 참사관)
18th UNGEGN	1996	Geneva	1	2	김영소(주 유엔 대한민국 대표부 참사관)
7th UNCSGN (19th UNGEGN)	1998	New York	4	4	서대원(외교부 유엔과 과장)
20th UNGEGN	2000	New York	3	4	김주석(외교통상부 국제기구국 심의관)
8th UNCSGN (21st UNGEGN)	2002	Berlin	10	9	천영우(외교통상부 국장)
22nd UNGEGN	2004	New York	5	13	서대원(유엔 대한민국 대표부 차석대사)
23rd UNGEGN	2006	Vienna	5	9	하찬호(외교통상부 대사)
9th UNCSGN (24th UNGEGN)	2007	New York	6	14	송영완(외교통상부 국제기구국 국장)
25th UNGEGN	2009	Nairobi	4	9	신길수(동북아역사재단 국제표기명칭대사)
26th UNGEGN	2011	Vienna	3	12	장동희(동북아역사재단 국제표기명칭대사)
10th UNCSGN (27th UNGEGN)	2012	New York	7	17	장동희(동북아역사재단 국제표기명칭대사)
28th UNGEGN	2014	New York	9	12	유의상(동북아역사재단 국제표기명칭대사)
29th UNGEGN	2016	Bangkok	9	13	유의상(동북아역사재단 국제표기명칭대사)
11th UNCSGN (30th UNGEGN)	2017	New York	9	15	유의상(동북아역사재단 국제표기명칭대사)

(2) 총회 참석 준비

㉠ 준비과정 및 개요

- 유엔지명전문가그룹 사무국에서 제시한 제1차 신 유엔전문가그룹 총회의 23개 의제(Provisional agenda)를 검토함

※ 별첨 1 참조

1. Opening of the Session.

세션 개최

2. Election of officers.

임원 선출

3. Organizational matters:

조직 관련

(a) Adoption of the rules of procedure;

절차규정의 채택

(b) Adoption of the agenda;

의제 채택

(c) Organization of work, including establishment of subsidiary bodies;

부속기구 설립을 포함한 작업의 조직

(d) Credentials of representatives.

대표자 인준

4. Reports of the Chair and the Secretariat.

의장과 사무국의 보고

5. Reports:

보고

(a) Governments on the situation in their countries and on the progress made in the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

국가별 현황 및 지명 표준화의 진전 상황에 대한 정부의 보고

(b) Divisions of the Group of Experts;

전문가그룹 디비전

(c) Working Group on Country Names;

국가명 워킹그룹

- (d) National and international meetings and conferences.
국내, 국제회의 및 컨퍼런스
- 6. Cooperation and liaison with other organizations:
타 기관과의 협력 및 연락
 - (a) International organizations;
국제기구
 - (b)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and Committee of Experts on Global Geospatial Information Management.
아프리카 경제위원회와 세계 지리정보 관리 전문가위원회
- 7. National and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
지명의 국가, 국제표준화
 - (a) Names collection, office treatment, national authorities, features beyond a single sovereignty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지명 수집, 사무처리, 국내기관, 단일 주권을 초월한 지형물과 국제적 협력
 - (b) Toponymic guidelines for map and other editors for international use.
지도와 다른 편집자들을 위한 국제적인 사용의 지명 가이드라인
- 8. Social and economic benefits, supporting sustainable development, measures taken and proposed for the implementation of resolutions and evaluation of the work of the Group of Experts (Working Group on Evaluation and Implementation).
사회경제적 이익, 지속 가능한 개발 지원, 전문가그룹의 결의안 및 평가 실행을 위해 이루어지거나 제안된 조치 (평가·실행 워킹그룹)
- 9. Issue of publicity for the Group of Experts and funding of Group projects (Working Group on Publicity and Funding).
전문가그룹에 대한 홍보 및 그룹 프로젝트 재정에 관한 이슈 (홍보·재정 워킹그룹)
- 10. Activities on national standardization in Africa (Task Team for Africa).
아프리카 국내 표준화 활동 (아프리카 태스크 팀)
- 11. Toponymic education (Working Group on Training Courses in Toponymy).
지명 교육 (지명 교육과정 워킹그룹)
- 12. Toponymic terminology (Working Group on Toponymic Terminology)
지명 용어 (지명 용어 워킹그룹)

13. Geographical names as culture, heritage and identity, including indigenous, minority and regional languages and multilingual issues (Working Group on Geographical Names as Cultural Heritage).
토착민, 소수민족 및 지역 언어와 다중언어 이슈를 포함한 문화, 문화유산, 정체성으로서의 지명 (문화유산 워킹그룹)
14. Exonyms (Working Group on Exonyms).
외래지명 (외래지명 워킹그룹)
15. Toponymic data files and gazetteers (data processing and tools, database management, data dissemination: products and services) (Working Group on Toponymic Data Files and Gazetteers).
지명데이터파일과 지명목록집 (데이터 처리 및 도구, 데이터베이스 관리, 데이터 보급: 제품 및 서비스)
(지명데이터파일 및 지명목록집 워킹그룹)
16. Writing systems and pronunciation (Working Group on Romanization Systems).
문자체계와 발음 (로마자표기법 워킹그룹)
17. Other toponymic issues.
기타 지명 이슈
18. Arrangements for the second session of the Group.
그룹의 두 번째 세션을 위한 조정
19. Other business.
기타 업무
20. Presentation and adoption of decisions.
결정사항 발표 및 채택
21. Adoption of the report.
보고서 채택
22. Election of officers of the second session.
두 번째 세션을 위한 임원 선출
23. Closing of the session.
세션 폐회

○ 5일간 일정의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이 계획되어 실행됨

※ 세부 내용 별첨 2 참조

4월 29일(월)

총회 1일차

개회(의제 1), 집행부 선출(의제 2), 총회 진행 조직(의제 3), 의장 및 사무국 보고(의제 4), 각국 지명표준화 보고, 디비전 보고, 지명관련 회의 보고(의제 5), 유관 국제기구 협력관 보고(의제 6)

4월 30일(화)

총회 2일차

국가, 국제 지명표준화, 단일 주권 초월 지명, 지명표기 가이드라인(의제 7), 지명표준화의 사회·경제적 혜택, 결의 이행(의제 8)

※ 의제 8부터 디비전 단위로 착석(이전까지는 국가별 착석). 의제 8 사회자 주성재 교수

5월 1일(수)

총회 3일차

특별강연(행정경계 프로그램 관련), 홍보재정 워킹그룹 관련 활동(의제 9), 아프리카 국가 표준화 활동(의제 10), 지명 교육 및 훈련(의제 11), 지명 용어(의제 12)

5월 2일(목)

총회 4일차

특별강연(무형 문화유산 관련), 문화유산으로서의 지명(의제 13), 외래지명(의제 14), 데이터 파일과 지명목록(의제 15), 로마자표기(의제 16)

5월 3일(금)

총회 5일

특별강연(재난관리 관련), 기타 지명 이슈(의제 17), 2021년 총회 준비(의제 18), 기타 업무(의제 19), 결정 사항 채택(의제 20), 보고서 채택(의제 21), 차기 집행부 선출(의제 22), 폐회(의제 23)

※ 의제 17부터 국가별 착석

- 지난 5년간 유엔지명회의에 우리나라가 제출한 워킹페이퍼를 검토하고 금년 총회에 보고할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명 관련 업무를 분석함
-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명업무 관련 추진 실적 및 성과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워킹페이퍼를 작성함(국·영문)
- 지난 5년 간 27개의 워킹페이퍼를 유엔지명회의에 제출함

<표 5> 지난 5년간 유엔지명회의에 제출한 우리나라 워킹페이퍼

회의명	제목	내용	제출자
제11차 UNCSGN총회 및 제30차 UNGEGN회의 (2017)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지난 5년간 국내 지명 관련 주요 사안	국토지리정보원, 국립해양조사원
	Evaluation of the UNCSGN and UNGEGN Sessions	지난 총회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	평가·실행 워킹그룹
	International Symposium on Application of Marine Geophysical Data and Undersea Feature Names, 2012~2016	지난 5년간 개최된 해양지명 국제심포지엄 보고	국립해양조사원
	International Seminar on Sea Names, 2013~2016	지난 4년간 개최된 바다 이름에 관한 국제세미나 보고	사단법인 동해연구회
	Activities of the Working Group on Evaluation and Implementation in taking measures to implement UNCSGN resolutions	지난 5년간 워킹그룹 주요 활동	평가·실행 워킹그룹
	Local Autonomy and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 Institutional and Technological Advances	정부 차원의 지명관리 시스템 구축 보완 사례	국토지리정보원
	Guidelines for the Standardization of Marine Geographical Names (Second Edition, 2016)	『해양지명 표준화편람 개정판』발간과 주요 내용 및 이슈	국립해양조사원
	Korea Committee on Geographical Names (KCGN): Accomplishments and Challenges	국가지명위원회 실적 및 주요 이슈	국가지명위원회, 국토지리정보원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Evaluation and Implementation	지난 5년간 워킹그룹 주요 활동	평가·실행 워킹그룹
제29차 UNGEGN회의 (2016)	Toponymic Guidelines for Map and Other Editors For International Use, Republic of Korea (Second Edition, 2015)	표기지침서 제2판 발간	국토지리정보원
	Place Names to the Public: Promoting Awareness of Geographical Names	지명에 대한 대중의 관심 증진 활동	국토지리정보원

회의명	제목	내용	제출자
	International Meetings on Toponymy with A Specific Focus on Cultural Heritage and the Public	문화유산으로서 지명 국제심포지엄 (2014), 대중에게 다가서는 지명 국제워크숍 (2015) 결과	국토지리정보원
	Activating the World Geographical Names Day	'지명의 날' 제정 관련	국토지리정보원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Evaluation and Implementation	UNGEGN 평가·실행위원회 활동보고	평가·실행워킹그룹
	Evaluation of the Twenty-eighth Session of the UNGEGN: A Review of the Questionnaire Survey Results	제28차 UNGEGN 설문분석 및 시사점	평가·실행워킹그룹
	New Marine Geographical Names and the SCUFN Online Systems Developed by the Republic of Korea	새로운 해양지명의 등재와 SCUFN에서 한국의 활동	국립해양조사원
	Outreach Activities for Promoting a Wider Use of Marine Geographical Names	해양지명 교육·홍보 프로그램	국립해양조사원
	International Seminar on Sea Names, 2014~2015	바다 이름 국제세미나(2014, 2015)	동해연구회
제28차 UNGEGN회의 (2014)	Toponymic Databases in the Republic of Korea	국토지리정보원의 DB 운영 현황·계획	국토지리정보원
	Institutional Frameworks for Managing Geographical Names in the Republic of Korea	지명법 진행현황 및 지명표준화편람	국토지리정보원
	A New Geographical Names <i>Sejong</i> for the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in the Republic of Korea	세종시의 탄생과 새로운 지명의 채택	국토지리정보원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Evaluation and Implementation	UNGEGN 평가·실행위원회 활동보고	평가·실행위원회
	Implementing the UNCSGN Resolutions	UNCSGN 결의 실행의 의미와 성과	평가·실행위원회
	Evaluation of the Tenth UNCSGN: A Review of the Questionnaire Survey Results	제10차 UNCSGN 설문분석 및 시사점	평가·실행위원회
	Collection of Marine Geographical Names in the Republic of Korea	한국의 해양지명 제정	국립해양조사원
	Outreach Activities for Promoting Use of Marine Geographical Names	해양지명 교육·홍보 프로그램	국립해양조사원
	International Seminar on Sea Names, 2013	바다 이름 국제세미나 (2013)	동해연구회

② 참석의 기본방향

- 우리나라 지명관리 관련 그동안의 성과를 보고서로 적극 발표하고, 각 의제 토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회의 운영에 기여함
- 지난 제11차 UNCSGN총회 이후 2년간 정부 주도의 지명관리 사업 내용을 보고함으로써 유엔지명회의의 활동 및 국제적 지명논의에 기여한 점을 보고함
- 회의 기간 열리는 워킹그룹 회의, 특별 강연, 워크숍 등에 적극 참여하여 세계적인 지명관리 추세를 공유하며 각국 전문가들과 교류함
- 동해 표기와 관련하여 정부의 방침에 따라 대응하고, 일본의 독도 문제 제기 가능성에 대해 적절히 대처함

③ 워킹페이퍼 제출

- 지난 UNCSGN총회 및 UNGEGN회의(2017)에서 우리나라는 각 8개, 1개의 총 9개 워킹페이퍼를 제출함(전체 워킹페이퍼는 UNCSGN총회에서 164개, UNGEGN회의에서 12개)
 - 신 유엔지명전문가그룹(New UNGEGN) 제1차 총회의 조정된 의제 규모에 맞추어 다음 6개의 페이퍼를 준비하여 제출함
 - 국가보고서
 - 지명표준화편람 제3판 발간
 - 해양지명의 개편과 국제지명활동
 - 평가실행 워킹그룹 보고서
 - 바다 이름 국제세미나
 - 『단일 주권 초월 지형물의 이름』 의제의 향후 논의 방향
- ※ 제출된 페이퍼는 별첨 3 참조

〈표 6〉 제1차 신 유엔전문가그룹 총회 (New UNGEGN)에 제출한
우리나라 워킹페이퍼

no	제목	주요 내용	제출자	의제	비고
정부의 지명관리 관련					
1	한국의 지명관리 국가보고서	지난 2년간 국내 지명 관련 주요 사안	국토지리정보원, 국립해양조사원	Agenda 5(a)	information only
2	지명표준화편람 제3판 발간	지명표준화편람 제3판(2018)의 지명표준화 원칙과 과제	국토지리정보원, 국가지명위원회	Agenda 7(a)	
3	해양지명 재조직과 아웃리치 활동	지난 2년간 해양지명 관리 관련 주요 내용	국립해양조사원	Agenda 7(a)	
유엔지명회의의 활동 및 국제적 지명논의 기여 관련					
4	평가·실행 워킹그룹 보고서	지난 2년간 워킹그룹 주요 활동	평가·실행 워킹그룹	Agenda 8	
5	바다 이름에 관한 국제세미나	지난 2년간 개최된 바다 이름에 관한 국제세미나 보고	사단법인 동해연구회	Agenda 5(d)	Information only
6	『단일 주권 초월 지형물의 이름』 의제의 향후 논의 방향	동 의제 논의, 역사, 현황 및 향후 발전방향 제시	국립해양조사원	Agenda 7(a)	

(3) 회의 결과

㉠ 개요

○ 회의명

- 제1차 신 유엔지명전문가그룹(New UNGEGN) 총회 (The 1st Session of the United Nations Group of Experts on Geographical Names, UNGEGN)

○ 기 간: 2019년 4월 29일 ~ 5월 3일 (5일간)

○ 장 소 : 미국 뉴욕 유엔본부

○ 대표단 : 15명

가. 정부 부처

- 유기준 외교부 국제법률국장(수석대표)
- 박영호 주 유엔 대한민국 대표부 참사관
- 김지연 외교부 국제법률국 영토해양과장
- 김민정 외교부 국제법률국 2등 서기관
- 김송은 외교부 국제법률국 2등 서기관
- 안재각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조사과장
- 손현기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조사과 주무관
- 김동수 국립해양조사원 해도수로과 사무관

나. 동해연구회 및 전문가

- 주성재 동해연구회 회장, 경희대학교 교수
- 이기석 동해연구회 고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성효현 동해연구회 이사,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 김영훈 동해연구회 이사,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 류연택 동해연구회 이사, 충북대학교 교수
- 곽진오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장
- 김종근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연구위원

※ 일본대표단

- Yasuhisa **Kawamura**, 주 유엔 일본 대표부 차석대사
- Hiroshi **Tanabe**, 동경대학 명예교수, (전)세계지리학연합 부회장
- Kazuhiko **Akeno**, 국토지리원(GSI) 국토지도과장
- Hiroyuki **Nagasawa**, 외무성 국제협력국 과장
- Junya **Nakano**, 주 유엔 일본 대표부 공사
- Akira **Sasagawa**, 국토지리원(GSI) 국토지도과 계장
- Yota **Kato**, 주 유엔 일본 대표부 참사관
- Kohei **Watanabe**, 테이쿄 대학 교수
- Masaru **Kajimoto**, 주 유엔 일본 대표부 2등 서기관
- Hiroto **Ogawa**, 외무성 국제협력국 주무관

※ 북한은 참석하지 않음

② 회의 의제

- 당초 제안된 대로 채택됨

③ 주요 내용

- 회의 개요
 - 본 회의는 유엔경제사회이사회(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DESA) 소속의 회의로서, 과거 유엔지명표준화총회(UNCSGN)와 유엔지명전문가그룹(UNGEGN)이 통합된 새로운 형태의 제1차 New UNGEGN 총회가 뉴욕에서 개최됨
 - 금번 회의를 통해 새로운 집행부가 선임되었음 (임기 2019년 ~ 2023년)
 - 의장(Chair) Pierre JAILLARD (프랑스)
 - 부의장(Vice Chair) 주성재 (한국)
Hasanuddin Z. ABIDIN (인도네시아)
 - 보고관(Rapporteur) Trent C. PALMER (미국)
Wendy SHAW (뉴질랜드)
 - 이번 UNGEGN 총회에서는 총 70개국에서 280명이 참석하였고, 134개 페이지가 발표되고(4개 특별 발표 및 7개 워킹그룹 회의 별도), 6개의 권고 사항(recommendation)이 채택되었음
- ※ 의제별 세부 내용은 별첨4 참조
- 우리나라는 총 6개의 워킹페이퍼를 작성·제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① 한국의 지명관리 국가보고서(2017-2018)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2017-2018)) (의제 5 (a), 국토지리정보원, 국립해양조사원)
 -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국가 지명관리의 목표 및 프로그램의 내용과 성과를 보고함

- 국토지리정보원과 국립해양조사원은 국가지명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자연/인공지형물에 관한 지명 336개, 해양지명 121개를 표준화하여 공표하였음
-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지명관리 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온라인 지명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 중에 있으며, 지명 표준화에 대한 UN 결의문의 웹 기반 DB 구축을 주도하였음
-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명 표준화 편람 제3판, 청소년을 위한 대한민국 국가지도집을 발간하였고, 유엔지명표준화 결의문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있음
- 국립해양조사원은 해양지명 표준화 정보 제공을 위한 해양지명 목록집 개정판을 발간하였으며, 해양지명의 이해와 인식 제고를 위한 초등학교 교육프로그램, 국제심포지엄 등을 운영하고 있음

② 『지명 표준화 편람 제3판』 발간 (Guidelines for the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 (Third Edition, 2018)) (의제7 (a), 국토지리정보원)

-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명 표준화 편람 제3판을 발간(2018)하여 기존 제2판(2012) 적용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고 지명 표준화를 위한 보다 명확한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핵심이 되는 지명 표준화의 원칙은 세 개의 기본원칙, 지명 선정을 위한 두 가지 우선순위 지명, 회피해야 할 7가지 유형의 지명, 기념지명 제정을 위한 두 가지 원칙, 세 가지 절차적 권고로 구성되어 있음
- 이 원칙을 다른 유형의 지명에 적용하기 위한 실용성의 문제, 법적 구속력 확보의 문제는 여전히 개선해야 할 문제로 남아 있음

③ 해양지명의 개편과 국제지명활동 (Reorganization of Marine Geographical Names and Outreach Activities (2017-2018)) (의제7 (a), 국립해양조사원)

- 국립해양조사원은 해도와 출판물 검토(2017년), 해양지명 데이터베이스의 검토(2018년) 등을 통해 해양지명 목록집 개정판을 발간하였음
- 해양지명 목록집 개정판은 새로운 지명이 추가되고(176개), 오류가 수정되며(7개), 변동 지명은 삭제하여(9개), 총 1,091개의 해양지명을 수록하고 있음

④ 평가·실행 워킹그룹 활동보고서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Evaluation and Implementation) (의제 8, 평가·실행 워킹그룹)

- 유엔지명전문가그룹 산하 9개 워킹그룹 중 하나인 평가·실행 워킹그룹 (Working Group on Evaluation and Implementation, 의장 주성재 교수)의 활동을 보고하고, 새로운 체제에서 주력할 항목을 제안함
- 2018년 10월에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워킹그룹 회의에서는 전문가그룹 회의의 운영, 특히 새로운 체제로의 효율적인 전환을 위해 논의함
- 워킹그룹의 주요 업무인 결의문 이행에 대하여 아직 충분한 관심이 부족한 것을 지적하고 각국의 관심을 높일 것을 권고함
- 최근 아랍어, 한국어 결의문의 텍스트와 데이터베이스 구축(국토지리정보원)으로 현재 6개 국어 텍스트, 5개 국어 데이터베이스가 이용가능함
- 제11차 UNCSGN 총회에서 수립된 총회평가 의견은 유용하게 활용됨
- 워킹그룹의 향후 업무로서 결의문 관리 및 이행 권고, 결의문 이행에 관한 워크숍 개최 등을 추진할 예정임

⑤ 바다 이름에 관한 국제세미나 (International Seminar on Sea Names, 2017~2018) (의제5 (d), 사단법인 동해연구회)

-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개최된 바다 이름 국제 세미나의 활동과 결과를 보고함

- 그 주제는 확대되어 2017년에는 “지명을 통한 평화와 정의의 달성,” 2018년에는 “두 이름의 사용: 가능성과 혜택”이 채택되어 토론되었음
- 제1회 세미나부터 현재까지 발표된 논문은 모두 375편이며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됨. 제25차 회의는 금년 7월말 미국 버지니아에서 개최함

⑥ 『단일 주권 초월 지형물의 이름』 의제의 향후 논의 방향

- 『단일 주권 초월 지형물의 이름』 의제는 제1차 유엔지명표준화 총회에서 채택된 이래 제11차 총회까지 빠짐없이 채택되어 논의되었음
- 23개의 보고서가 제출되고 8개의 결의문이 채택되었으며, 해양지명, 해저 지명, 외계지명, 국가간 공유되는 지형물의 이름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왔음
- 신 유엔지명전문가그룹 회의에서 이 의제는 계속 발전시켜나갈 필요가 있으며, 관련된 용어의 정의, 단일 주권 초월 지형물의 이름에 관한 인접 국가 간의 협력, 관련 결의문의 운영과 보완, 단일 주권 초월 지형물의 이름을 수록한 데이터베이스와 목록집의 운영 등이 그 대상이 될 것임

④ 워킹그룹 활동 및 관련 회의 참석

① 지명 용어 워킹그룹(Working Group on Toponymic Terminology)

- 의장: Trent Palmer (미국)
- 일시: 4. 30 (화) 13:15~14:30, 참석자: 주성재, 류연택
- 지명 표준화 용어집(Glossary of Terms for the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 2007)의 개정을 위해 지난 1년간 이메일로 진행한 작업의 내용을 공유함(개정, 추가, 삭제 등)
- 오스트리아 전문가(Gerhard Rampl)의 기여로 용어 목록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고 있음(ortsnamen.at)
- 외래지명 워킹그룹과의 공동회의 개최(2002. 3월, 슬로베니아), 명칭과학 협의회(ICOS) 용어그룹과의 협력 등이 제기됨

② 로마자표기법 워킹그룹(Working Group on Romanization Systems)

- 의장: Peeter Päll (에스토니아)
- 일시: 5. 1 (수) 08:15~09:30, 참석자: 김영훈
- 각 국가별 언어권 별로 단일 로마자 표기를 권고하고 지원하기 위한 워킹그룹
- 로마자 표기법은 다른 워킹그룹의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룹임
- 사우디아라비아의 최근 도로표지판의 지명 표기에서 제기된 이슈와 문제점을 소개하고 관련 국가 및 워킹그룹 회원국의 자문을 구함
- 사우디아라비아의 지명 관련 업무 영역이 이분화(행정부와 교통청)되어 있어 서로 다른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 아르메니아는 최근 약 20여 만 개의 새로운 지명이 제정되어 지명표준화가 중요한 이슈임. 특히 도로명을 중심으로 지명표준화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구어(speaking)와 문어(writing)간의 로마자표기에 대해 회원국의 경험 공유를 요청함

- 인도는 약 120여개 소수 언어가 실제 통용되고 있고 인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명DB 구축 중에 있음. 그러나 지방 소수 언어 및 지명도 활발히 통용되고 있어 DB 및 표준화가 시급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음
- 캄보디아와 몽골의 경우 지도제작 측면에서 지명표준화가 시급하지만 경험 부족과 예산 등의 여러 장애요인들이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프랑스는 프랑스지리원에서 이라크 쿠르드 지명 DB를 구축 중에 있음

③ 외래지명 워킹그룹(Working Group on Exonyms)

- 의장: Kohei Watanabe (일본)
- 일시: 5. 2 (목) 08:15~09:30, 참석자: 주성재, 류연택
- 외래지명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 외래지명이 사용될 수 있는 특수한 맥락과 상황의 유형화 및 제안 등을 연구하는 워킹그룹
- 본 회의는 제22차 외래지명 워킹그룹 회의로 어젠다는 하기와 같음
 - (1) 프라하 회의(2017) 프로시딩을 저서로 출판한 것에 대한 보고
 - (2) 리가(Riga) 회의(2018) 보고
 - (3) 리가 회의 관련 저서 출판 진척 상황
 - (4) 차기 제23차 외래지명 워킹그룹 회의를 2020년 3월 슬로베니아 Ljubljana에서 지명 용어 워킹그룹 회의와 공동 개최를 추진 중
 - (5) 웹사이트 및 멤버십
 - (6) 외래지명 관련 구성원들의 기타 활동 관련 보고
 - (7) 성과 및 질문 관련 토의
 - (8) 지명 관련 이벤트에 관한 공지
 - (9) 기타 토의 사항
- 저서인 “The Great Toponymic Divide”와 “The Toponymy of an Endangered Nubian Language”는 UNGEGN 웹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함

④ 지명데이터파일 및 지명목록집 워킹그룹(Working Group on Toponymic Data Files and Gazetteers)

- 의장: Pier-Giorgio Zaccheddu (독일)
- 일시: 5. 2(목) 13:15~14:30, 참석자: 주성재, 김영훈
- UN-GGIM 워킹그룹과 관련하여 Working Group on Fundamental Data Themes이 UNGEGN이 협력할 수 있는 가장 근접한 워킹그룹으로 파악되고 있음. 특히 GGIM의 Fundamental data themes 워킹그룹의 7개 themes는 지명데이터베이스 워킹그룹의 협력이 가시화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 링크드 데이터 이슈(데이터간의 연계 및 연결성)와 관련하여 특별 발표가 유럽 전문가를 대상으로 웹세미나 형태로 진행하였음. 앞으로 국토지리정보원 차원에서의 기여 방안에 대해 고민이 필요함
- 현재 TDFG 워킹그룹 내 웹 포럼 활성화에 대한 고민 및 문제점들을 논의하고 앞으로 웹 포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함
- 지명과 유엔의 지속가능발전 2030 아젠다와의 연계와 공유 방안에 대해 논의가 필요함을 인식함
- 유엔지속가능발전 2030 아젠다를 중심으로 지명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지명이 없을 경우에 대한 여러 문제점과 한계점들을 회원국 전문가들의 고민이 필요함을 이해해야 함
- 지명데이터파일 지수와 같은 계량적 측정 지표를 개발하고 비정량적 지표와 연계하여 유엔의 2030 아젠다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함
- 지명의 효과에 대한 계량적 이점과 가능성이 중요함과 동시에 타 워킹그룹과의 연계 및 협력(특히 문화유산 워킹그룹)도 동시에 진행해야 함

⑤ 국가명 워킹그룹(Working Group on Country Names)

- 의장: Leo Dillon (미국), Élisabeth Calvarin (프랑스)
- 일시: 5. 3 (금) 08:15~09:30, 참석자: 김영훈
- 국가의 공식 명칭에 대한 논의와 정보를 전파하는 워킹그룹
- 6개 국가명 변경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리비아, 마케도니아, 가이아나, 뉴질랜드, 팔레스타인, 스와질랜드). 해당 국가명 및 해당 국가 내 소수 민족이 부르는 명칭에 대한 논의 과정의 이슈에 대해 공유함
- 아랍어의 국가명 표기에 대해 쿠르드식 표기와 대소문자의 민감성에 대해 아랍어 국가들을 중심으로 의견 교환이 있었음. 또한 중앙정부 규정과 달리 지방 차원에서는 다양한 표기 및 호칭이 있음을 논의함
- 영국 대표 의견은 국가명은 타 지명과 달리 상당히 신중해야 되고 수정은 최대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함을 발표함. UNGEGN 차원 논의 이상의 이슈임으로 해당 국가의 공식적 의견과 외교 관계자들 간의 논의로 다루어야 함을 발표함
- 아르메니아는 East Armenia와 West Armenia의 로마자 표기가 다르지만 현재 East Armenia 로마자 표기가 공식적임을 제시함
- 아랍어권에서는 지명의 대소문자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랍어 표기 및 영어식 표기에서는 유의해야 함. 그러나 아랍어권의 로마자 표기는 아랍권 내에서도 통일된 의견이 현재 없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2017년에 새로운 아랍어 로마자 표기시스템이 채택되어 있지만 여전히 여러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임
- 미국 Trent Palmer와 영국 Catherine Chetham을 대신하여 새로운 전문가가 참여함

⑥ 문화유산으로서의 지명 워킹그룹 (Working Group on Geographical Names as Cultural Heritage)

- 의장: Annette Torensjö (스웨덴)
- 일시: 5. 3 (금) 08:15 ~ 09:30, 참석자: 주성재, 류연택
- 문화유산으로서의 지명의 가치를 연구하고 지명을 보존하며 사라지는 지명과 소수언어 지명에 각별한 관심을 갖기 위해 구성된 워킹그룹
- 소수민족 지명(minority place name), 토착민 지명(indigenous place name), 원주민 지명(aboriginal place name)에 대한 정의 및 관련성 논의
- 문자로 표현되지 않는 지명의 보전을 위해 로마자표기 워킹그룹과 협력 예정
- 본 회의의 어젠다는 하기와 같음
 - (1) 워킹그룹 행정 관련(의장, 서기 등)
 - (2) 문화유산으로서의 지명 워킹그룹 활동 보고
 - (3) 포커스 그룹(focus group)을 위한 주제 제안
 - (4) 웹사이트
 - (5) 워크숍, 공동 주최 회의, 기타 활동 관련 제안
 - (6) 기타 토의 사항
 - (7) 차기 회의
- 기념 지명, 각 국가별 기념 지명을 위한 원칙 및 사례에 관한 논의를 함
- 소수민족 및 토착민 지명, 도시의 지명(urban naming), 지명 유래 역사, 문화유산으로서의 지명 관련 관광 또는 브랜드화, 불문 언어(unwritten language), 무형의 문화유산으로서의 지명 등이 포커스 그룹(focus group)의 주제로 제안됨
- (도시의) 기념 지명 및 도로명 관련 법제화 및 사례, 크라우드 소싱(crowd sourcing)에 관한 논의를 함

- UNGGIM은 지명의 문화적 측면 및 언어적 측면을 다루지 않을 것임
- 지난 문화유산으로서의 지명 워킹그룹 회의는 2018년 브뤼셀에서 개최되었음
- 차기 문화유산으로서의 지명 워킹그룹 회의는 2020년 10월에 평가·실행 워킹그룹 회의와 공동 개최될 가능성 있음
- 도시의 지명은 유엔 차원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와도 연관됨

⑦ 평가·실행 워킹그룹(Working Group on Evaluation and Implementation) 및 홍보·재정 워킹그룹(Working Group on Publicity and Funding)

- 의장: 주성재(대한민국), Peder Gammeltoft (덴마크)
- 일시: 5. 3 (금) 13:15~14:00, 참석자: 주성재, 성효현, 류연택, 김영훈
- 2017년 제11차 총회 이후 워킹그룹의 활동(체제전환 논의, 결의 이행, 결의문 데이터베이스 구축, 총회 평가설문 등)을 보고함
- 새롭게 집행부가 편성된 후, 2020년 적절한 시점에서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함(국토지리정보원의 기여 기대)

⑧ 세계지리학연합 및 세계지도학회 연합 지명분과회의(Joint ICA/IGU Commission on Toponymy)

- 의장: Cosimo Palagiano (이탈리아), Peter Jordan (오스트리아)
- 일시: 4. 30 (화) 08:15~09:30, 참석자: 주성재, 성효현
- 지명연구에 지리학자와 지도학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구성된 연합체
- 2019년 7월, 도쿄에서 열리는 세계지도학회 총회(ICC)에 개최되는 지명분과회의 계획과 각국 지명관리기구 워크숍에 대한 내용을 공유함
- 지명의 중요성과 기능에 관한 Peter Jordan의 강의가 진행됨

⑨ UNGEGN 집행부 회의

- 일시: 4. 28 (일) 16:00~18:00, 참석자: 주성재
- 금번 총회 진행 관련 점검을 위해 의장단, 워킹그룹 의장, 사무국이 참석하여 회의 전반적 진행을 검토함
- 국가보고서는 의장이 주도하여 Q&A 세션을 진행하도록 함
- 총회보고서는 각 의제별로 한 단락으로 정리하도록 함(“Decision” 사용)

⑤ 회의 결과로 채택된 권고안

① UNGEGN 전략지명 및 업무프로그램 작성

- UNGEGN 집행부는 회원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UNGEGN의 전략계획과 업무프로그램을 작성하여 회원국에 회람하고 제2차 총회에 제출하여 채택을 논의할 것
- 이를 위해 UNGEGN의 임무와 구조, 국가지명기구의 창설 또는 기존 기구 운영의 강화, 재원 확보, UNGEGN 브랜드와 홍보, 상위 기구인 경제사회이사회와 집중영역과 핵심목표, 적절한 계획기간 등을 고려할 것

② 국가보고서 제출 및 토론의 효율화

- UNGEGN 집행부는 회원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UNGEGN 총회를 위한 국가보고서 준비와 제출의 절차와 시점을 검토하고, 그 안에 포함된 내용의 발표를 쉽게 하는 양방향의 상호과정을 강구할 것

③ 유엔 총회와 경제사회이사회 결의 검토

- 관련된 UNGEGN 워킹그룹(평가실행, 문화유산, 데이터파일 및 목록집 등)은 UNGEGN의 업무와 관련된 유엔 총회와 경제사회이사회 결의를 검토하고, 적절한 경우 그 검토에 대한 보고서를 제2차 총회에 제출할 것

④ 유엔 아프리카 경제위원회(UNECA)와의 협력

- UNGEGN 집행부는 아프리카 태스크팀을 통해 유엔 아프리카 경제위원회(UNECA)가 지속적으로 UNGEGN과 협력하도록 촉구할 것. 예를 들어 아프리카 국가에서 지명표준화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로서 GeoNyms 적용안의 개발, Gaborone Action Plan의 이행 등이 있음

⑤ 비문자 언어의 지명 관리를 위한 논의그룹 설치

- UNGEGN은 문화유산으로서 지명 워킹그룹 아래에 비문자 언어로부터 유래하는 지명을 표기하는 원칙과 방법을 조사하는 것의 혜택과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논의그룹을 설치할 것

⑥ 유엔문서국(Documentation Division)과의 협력 지속

- UNGEGN은 유엔문서국(Documentation Division)의 지명 사용을 최적화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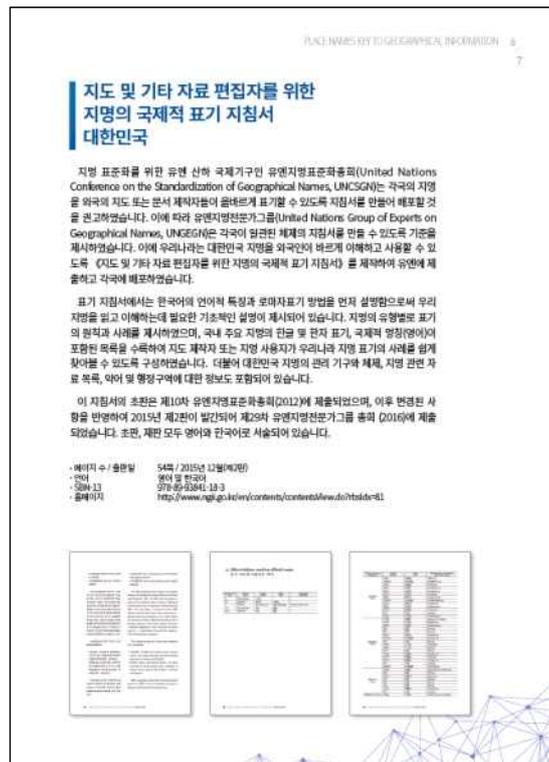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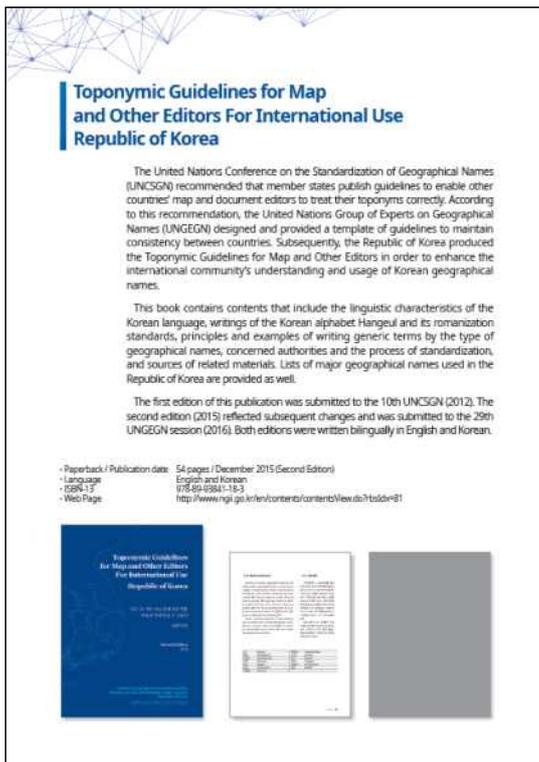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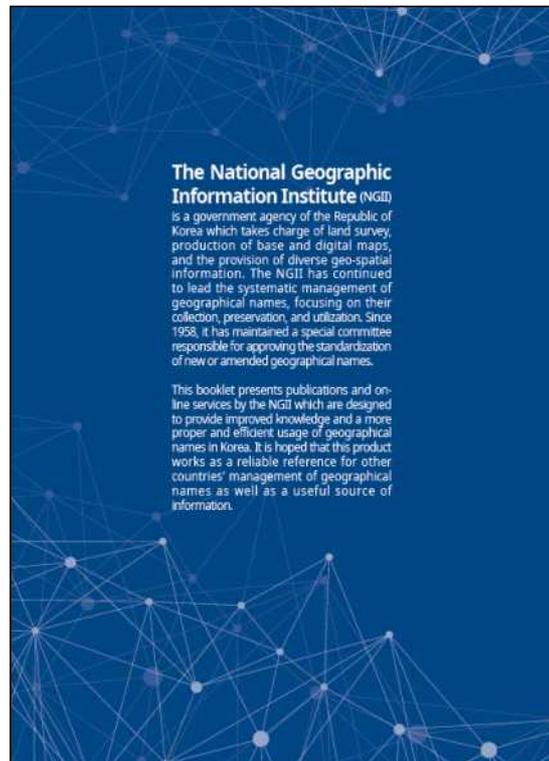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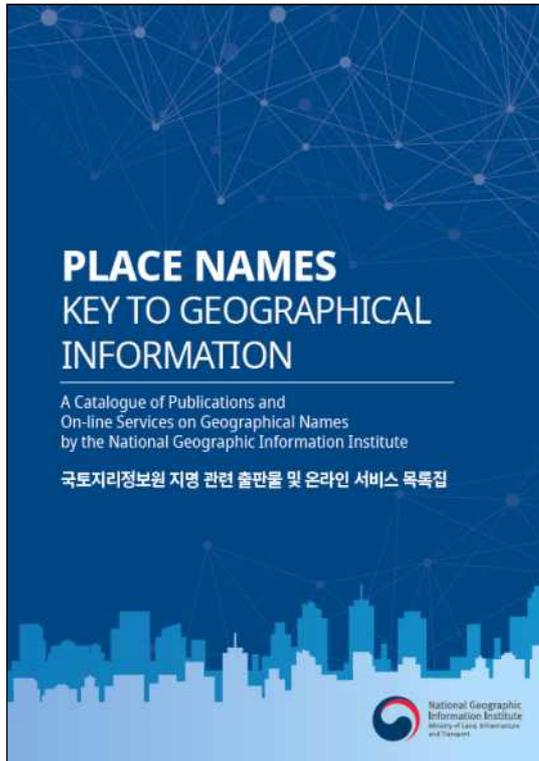
⑥ 지명 관리 성과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우리나라의 지명 관리 성과를 담은 홍보물을 제작하여 신 유엔지명전문가그룹 총회 기간 중 각국 대표단에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함
- 2017년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작된 홍보물을 바탕으로 현재까지의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명 관리 성과를 수정·보완하여 새로운 버전으로 제작함
 - 국·영문의 전면 검토를 통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도록 함
 - 지명 표준화 편람: 지명 표준화 편람 제3판 발간(2018년) 내용으로 수정
 - 대한민국 국가지도집: 청소년을 위한 대한민국 국가지도집, 어린이를 위한 대한민국 국가지도집 내용 추가
 - 시각장애인용 점자지도: 2017년 이후 변동사항을 추가

〈표 7〉 홍보물 수록 지명관리 성과물 및 수정 내용

영문명	한글명	수정 내용
Toponymic Guidelines for Map and Other Editors, For International Use, Republic of Korea	지도 및 기타 자료 편집자를 위한 지명의 국제적 표기 지침서: 대한민국	• 국·영문 수정
People, Places and Place Names in the Republic of Korea	없음	• 국·영문 수정
Origins of Korean Place Names	한국지명유래집	• 국·영문 수정
Guidelines for the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 in the Republic of Korea	지명 표준화 편람	• 2018년 출판된 제3판의 내용으로 전면 수정
The Gazetteer of Korea	대한민국 지명목록집	• 국·영문 수정
Geographical Names Search System: Platform for Geospatial Information	국토정보플랫폼 지명검색 시스템	• 국·영문 수정
The National Atlas of Korea	대한민국 국가지도집	• 국·영문 수정 • 청소년판, 어린이용 지도집 내용 추가
Tactile Maps for People with Visual Disabilities	시각장애인용 점자지도	• 국·영문 수정 • 2017년 이후 변동사항 추가

- 2017년 제목을 유지함
 - 영문: PLACE NAMES: KEY TO GEOGRAPHICAL INFORMATION. A Catalogue of Publications and On-line Services for Geographical Names by the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 국문: 국토지리정보원 지명 관련 출판물 및 온라인 서비스 목록집
- 홍보물에서 소개하는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명 관련 자료와 온라인 서비스는 다음과 같음
 - 지도 및 기타 자료 편집자를 위한 지명의 국제적 표기 지침서 대한민국 제2판(*Toponymic Guidelines for Maps and Other Editors For International Use, Republic of Korea, Second Edition*)
 - *People, Places and Place Names in the Republic of Korea*
 - 한국지명유래집 (*People, Places and Place Names in the Republic of Korea*)
 - 지명 표준화 편람 (*Guidelines for the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 in the Republic of Korea*)
 - 대한민국 지명목록집 (*The Gazetteer of Korea*)
 - 국토정보플랫폼 지명검색 시스템 (*Geographical Names Search System: Platform for Geospatial Information*)
 - 대한민국 국가 지도집 (*The National Atlas of Korea*)
 - 시각장애인용 점자지도 (*Tactile Maps for People with Visual Disabilities*)
- 지명 관리 성과와 결과물을 소개하기 위해 도록의 형태로 제작하고 관련 시각 자료와 설명을 추가함
 - 지금까지 발간된 지명 관련 자료집의 표지
 - 발간 자료의 주요 이미지 및 사진
 - 주요 관리 서버 및 웹사이트 이미지 등 활용
- 홍보물에서 소개하는 자료 중 온라인으로 원문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관련 링크와 접속 방법 안내하는 내용을 포함함
- 홍보물은 총회 현장에서 직접 배포하였음



<그림3> 2019년 지명 관리 성과 홍보물의 표지 및 본문

7 지명관리 관련 주요 시사점

① 지명표준화 관련 각국의 경험 공유

- 지명표준화는 여전히 모든 회원국에 중요한 업무이며 이와 관련된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 주목 받은 주요 주제는 다음과 같음
 - 지명표준화의 합리적인 원칙과 좋은 실행사례(good practice)의 증진
 - 지명표준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제화와 조직 지원
 - 지명이 갖는 문화유산적 요소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방법의 강구
 - 비문자체계 언어의 지명
 - 지명표준화 관련 용어 정비
 - 유엔의 지명표준화 결의(Resolution)의 실행 및 이에 관한 체계적 보고
 - 지명의 효과적인 수집과 표준화된 지명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② 표준화된 지명의 활용 범위 확대

- 지난 총회에서 관심을 끌었던 유엔 주도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에 관한 논의가 금번 총회에도 이어졌으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 강구의 필요성이 대두됨
 - ※ SDGs: 빈곤 및 기근 퇴치, 건강과 웰빙, 질 높은 교육, 성 평등, 깨끗한 물의 공급과 위생, 감당할 수 있는 청정에너지, 적절한 노동과 경제성장, 산업, 혁신, 인프라 구축, 불평등의 감소,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 기후대응, 평화, 정의, 강한 제도 등 17개 목표, 169개 실천목표, 231개 지표를 설정한 활동 강령
- 이러한 흐름에 따라 지명기구(UNGEGN)를 지리정보기구(UN-GGIM)의 협력방안이 중요한 안건으로 제기되었으나, 그 실질적 방안에 대해서는 아

직 구체화되지 않음

- 현재는 UNGEGN과 UN-GGIM의 활동내용에 관한 상호 발표, 결의와 결정의 공유, 연속된 기간에 회의 개최, 합동 집행부 회의, 연락관 지명 등이 논의되는 정도임
- 두 기구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국가 단위의 협력을 추구하라는 권고가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이 권고를 고려해야 할 것임
- 국토지리정보원 내의 업무분장과 협력

③ 새로운 체제의 소프트랜딩과 전략계획 수립 필요성 제기

- 정부 대표가 참여하는 표준화총회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회의의 성격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가 제기되기는 했지만(의제에 따른 착석의 문제 등), 전반적으로 안정적 정착을 위한 첫발을 떤 것으로 평가됨
- 향후 UNGEGN이 지향하는 활동 방향에 대하여 전략계획과 업무프로그램을 수립할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되었으므로, 이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 유엔 상위 기구(총회와 경제사회이사회)의 결의 및 운영방향,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GGIM과의 협력방안 등을 포함

④ 동해 표기 등 각국의 이해가 개입된 발언 지속

- 우리나라가 제출한 두 개의 보고서(바다이름 국제세미나, 단일 주권 초월 지명)에 대하여 일본 수석대표가 각각 문제제기의 발언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한국 수석대표가 대응함
- 이와 더불어 사이프러스 지명에 대한 터키의 반박, 크림반도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영유권 문제 제기 등이 있었으며 해당국은 대응함

⑤ 한국의 기여 확대

- 금번 회의에 우리나라는 보고서 제출(6개) 및 발표, 토론, 워킹그룹 참석 등으로 회의에 기여하였음
- 지리원의 지명 관련 발간물 및 온라인 서비스 목록집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출판물로 각국 대표의 환영을 받았음
- 주성재 교수는 집행부의 보고관(Rapporteur)으로 회의록 작성에 참여했으며, 향후 4년간 UNGEGN을 이끌 집행부의 부의장으로 선임되었음

⑥ 향후 주목할 회의 및 연구항목

- 금번 회의에서 언급된 다음 회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IGU/ICA 지명위원회 회의(도쿄, 2019. 7. 15~19): 각국 지명위원회 관련 워크숍 및 지명위원회 학술회의
 - GGIM 제9차 회의(뉴욕, 2019. 8. 7~9): UNGEGN을 대표해 참석하여 UNGEGN 보고서 발표
 - 오스트리아 지명위원회 창설 50주년 심포지엄(빈, 2019. 11. 6~8): 50주년 기념행사에 지리원의 축하 및 심포지엄 참여
 - 외래지명 워킹그룹 회의(슬로베니아 류블라냐, 2020. 3. 19~21): 각국의 외래지명 현황 발표 ※ 지명용어집 워킹그룹과 합동으로 개최 계획
 - 평가실행 워킹그룹 및 홍보재정 워킹그룹 합동회의(수원, 2020년 7월 예정): UNGEGN 신입 의장단, 워킹그룹 의장 참석. UNGEGN 운영 전반, 전략계획 및 업무계획, 2021년 제2차 총회 준비 등. 지명 관련 심포지엄을 함께 조직하는 방안 고려
 - 평가실행 워킹그룹 및 문화유산으로서 지명 워킹그룹 합동회의(스웨덴 Halmstad, 2020. 10. 19~23): 지명의 상업화 및 문화유산으로서 지명 결의 이행 관련 각국 경험 공유 ※ 유럽의 지명 전문가 다수 참여 예상

- 금번 회의에서 언급된 사항으로서 다음 주제를 차기 연도 연구의 항목으로 고려할 수 있음
 - New UNGEGN의 전략계획 및 업무프로그램 수립
 - 2030 지속가능한 발전 어젠다와 지명
 - 한국의 지명용어집 발간



<그림 4> 제1차 신 유엔지명전문가그룹 총회

2) 지명표준화 관련 국제회의 참가 및 대응

(1) 개요

- 최근 지명에 관한 학술적, 정책적 관심의 증가 추세에 맞추어 국가 지명 표준화 사업의 진전과 각국의 지명 관련 이슈를 발표하고 논의하는 빈도가 증가하고 있음
 - 지명 표준화 관련 국제회의 참가를 통해서 지명 관련 논의사항을 공유하고 국제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다음 회의를 선정함
 - 회의 명칭: GeoNames19 Symposium (오스트리아 지명위원회 창립 50주년 기념 심포지엄)
 - 주제: 지명과 인구이동 (Place Names and Migration)
 - 기간 및 장소: 2019. 11. 6~8, 오스트리아 빈, 연방 측량·조사국(BEV)
 - 주최: 오스트리아 지명위원회(AKO), 유엔지명전문가그룹 독일어 및 네덜란드어 디비전, ICA/IGU 지명위원회, 오스트리아 지리학회 등
- ※ 회의 개요 및 세부 프로그램 별첨5 참조

(2) 프로그램

- 2019. 11. 6 (수)
 - 09:00-12:00 제146차 독일어권 지명위원회(StAGN) 회의
 - 13:00-15:40 오스트리아지명위원회(AKO) 50주년 기념행사
 - 16:00-18:30 심포지엄 세션 1. 지명과 인구이동 연구분야 설정 및 글로벌 시각(사회: Peter Jordan, 오스트리아) - 5편 논문 발표
- 2019. 11. 7 (목)

- 09:00-15:00 심포지엄 세션 2. 유럽 이외의 상황(사회: 주성재) - 9편 논문 발표

※ 주성재, 윤지환 - “인구이동이 지명에 미치는 영향: 한국전쟁 이전과 기간 중 강제적 인구이동 사례 (Impact of migration on place names: A case of the impelled migration before and during the Korean War)”

발표 자료는 별첨6 참조

※ 김영훈 - “19-20세기 중국 만주로의 한국 지명 이동(Migrated place names in the Manchuria region in China from Korea during the 19th and 20th century)”

- 15:00-18:30 심포지엄 세션 3. 유럽의 상황 I(사회: Ferjan Ormeling, 네덜란드) - 6편 논문 발표

○ 2019. 11. 8 (금)

- 09:00-13:00 심포지엄 세션 4. 유럽의 상황 II(사회: Oliviu Felecan, 루마니아) - 7편 논문 발표
- 15:00-17:00 답사

(3) 회의 결과

○ 주요 참가자는 다음과 같음

- Pierre Jaillard (유엔지명전문가그룹 의장, 프랑스)
- Helen Kerfoot (유엔지명전문가그룹 전 의장, 캐나다)
- Jörn Sievers (유엔지명전문가그룹 전 부의장, 독일)
- Ferjan Ormeling (유엔지명전문가그룹 전 부의장, 네덜란드)
- Peter Jordan (오스트리아 지명위원회 전 의장, 오스트리아)
- Isolde Hausner (오스트리아 지명위원회 전 의장, 오스트리아)
- Gerhard Rampl (오스트리아 지명위원회 의장, 오스트리아)

- Helge Paulig (독일어권 지명위원회 의장, 독일)
 - Cosimo Palagiano (IGU/ICA 지명위원회 공동의장, 이탈리아)
 - Pier-Giorgio Zacheddu (유엔지명전문가그룹 데이터파일 및 지명목록집 워킹그룹 의장)
 - 한국 참가자: 주성재(유엔지명전문가그룹 부의장), 김영훈(한국교원대학교 교수), 강기희, 김정택(국토지리정보원 국토조사과 주무관)
- 총 참가자는 80여 명

① 제146차 독일어권 지명위원회(StAGN) 회의

- 일시: 2019. 11. 6 (수) 09:00-12:00
- 참석자: 위원 20명, 옵서버 5명
- 주요 논의 내용
 - 지난 회의 후 업무 진행에 대한 보고: 유엔지명전문가그룹 제1차 총회 참석(2019. 4), 용어집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황, 용어집의 독일어 버전 구축 논의(한국어 버전 참조), 지명 관련 언론 활동 등
 - 국가명 사용에 관한 논의: ‘북마케도니아’가 새로운 국호로 제정됨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함(North의 형용사형 Northern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의 문제)
 - 외래지명/토착지명 논의: 유럽의 국가 및 주요 도시를 토착지명과 외래지명으로 표기한 지도의 정확성과 유용성에 관한 논의 진행
 - 차기 회의는 2020. 1월 중순 개최

※ 독일어권 지명위원회(StAGN, Ständiger Ausschuss für geographische Namen, Permanent Committee on Geographical Names)는 지명 표준화의 원칙과 절차 관련 권고사항을 제공하고 독일의 각 지방자치단체와 독일어권 국가(오스트리아, 스위스, 벨기에)에서 자율적으로 적용함(의장은 작센주 문화교육부 Helge Paulig)

② 오스트리아 지명위원회(AKO) 창립 50주년 기념식

○ 일시: 2019. 11. 6 (수) 13:00-15:40

○ 내용

- Gerhard Rampl (오스트리아 지명위원회 의장): 오스트리아 지명위원회 50년 성과 검토
 - 1967년 제1차 유엔지명표준화 총회(UNCSGN)의 영향으로 1969년 창설된 역사적 배경 설명
 - Joseph Breu, Isolde Hausner, Peter Jordan으로 이어지는 인물들의 역할 조명
 - Isolde Hausner (오스트리아 지명위원회 전 의장): 오스트리아 지명위원회(AKO)와 독일어권 지명위원회(StAGN)
 - AKO와 StAGN의 상호보완 관계에서 지명업무가 발전했음을 설명
 - AKO의 가장 중요한 업적으로 「문화유산으로서 지명(Geographical Names as a Part of Cultural Heritage)」 심포지엄 개최와 편집서 출판(2009)과 「교육 매체의 지명 표기 지침서」 출판(2012)을 들었음
 - ※ 2012년 지침서의 동해/일본해 병기 권고의 배경을 특별히 설명함 (양측의 정체성을 모두 존중하기 위함)
 - Helen Kerfoot (유엔지명전문가그룹 전 의장): 오스트리아 지명위원회(AKO)와 유엔지명전문가그룹(UNGEGN)
 - AKO의 주요 인물이 UNGEGN 집행부 참여, 워킹그룹 의장직 수행, 회의 개최, 자료 출판 등으로 기여했음을 설명함
 - 주성재(국가지명위원회 위원장): 국토지리정보원장과 공동명의로 축하패 전달(다음과 같이 국문과 독문으로 기재)
 - ※ 국토지리정보원 대표는 대동여지전도 전달
- “대한민국 국토지리정보원과 국가지명위원회는 오스트리아 지명위원회 창

립 50주년을 축하하며, 미래에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und Korea Committee on
Geographical Names, Republik Korea, Herzlichen Glückwunsch zum
50-jährigen Jubiläum der Arbeitsgemeinschaft für Kartographische
Ortsnamenkunde und wir wünschen Ihnen weiteren Fortschritt und
Erfolg in der Zukunft.)”

③ GeoNames 심포지엄 “지명과 인구이동”

- 일시: 2019. 11. 6 (수) 16:00~18:30, 11. 7(목) 09:00~18:30, 11. 8(금)
09:00~13:00
- 4개 세션으로 구성하여 26편의 논문 발표·토론
- 각 논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제1세션: 연구 분야의 설정과 대륙간 이동의 관점 (사회: Peter Jordan)

- Peter Jordan (오스트리아)
 - 지명은 반복하여 채택됨으로써 이전의 기억을 그대로 담게 되고 더 많은 것을 포함하는 다지역성(multi-locality)을 갖게 됨
 - 이동을 받아들이는 사회의 반응에 따라 이주자의 지명은 주도의 역할 (overlying) 또는 종속의 역할(underlying)을 수행함
- Ferjan Ormeling (네덜란드)
 - 네덜란드인들은 17-18세기 해양을 향해하면서 세계 각 지역에 그들의 고향 이름을 붙였음
 - 지명은 소통의 역할이 중요했지만, 그들의 고향에 대한 향수를 달래는 역할도 수행하였음
- Fatima Louati (알제리아)
 - 고대 페니키아인들은 중동과 북아프리카 전역에 걸쳐 이름을 붙이는 일을 계속했음(레바논, 시돈, 티르 등)

- Cosimo Palagiano (이탈리아)
 - 이탈리아인들이 남미로 이주하면서 그들의 이름을 대거 가져갔으며, 이들은 대부분 기존 이름이 변형된 형태를 가짐(Nuevo Torino, Nova Trento, Villa Regina 등)
- Andrej Herzen (러시아)
 - 인구이동과 함께 이전한 이름은 다양한 역사-지리적 맥락을 갖고 있으므로 이것을 함께 이해해야 함
 - 동일한 정체성을 가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며, 지명이 만들어지고 사용되는 다양한 매커니즘이 있음

제2세션: 유럽 이외 지역의 사례 (사회: 주성재)

- 주성재, 윤지환 (대한민국)
 - 1945년 해방 이후 이념의 갈등은 공산주의를 피하기 위한 강요된 인구 이동(impelled migration)을 가져왔음
 - 서울의 해방촌과 속초의 아바이마을에 대한 사례조사에 의하면, 고향의 지명이 이식된 경우는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새롭게 만들어진 이름(해방촌, 신흥동, 아바이마을, 청호동)에 월남민들의 정체성이 쌓여있는 것이 발견됨
- 김영훈 (대한민국)
 - 일제하 한민족의 한반도 바깥으로의 인구이동은 자연재해와 일제의 토지수탈로 인해 대대적으로 발생함
 - 중국 연변의 지명 조사 결과 한국으로부터 지명이 다수 사용되고 있음이 발견되나, 모두 중국어 읽기에 기반하고 있음
- Huang Wenchuan (대만)
 - 홍콩 도로명에는 일제와 영연방 치하의 지명이 아직 많이 사용됨
 - 17세기 이래 중국 한족의 대만으로의 이동은 많은 지명의 흔적을 남김
- Vladimír Liščák (체코)

- 중국 한족은 17세기 이래 대만으로 이주하면서 다양한 지명 변화의 흔적을 남겼음
- Peter Kang (대만)
 - 중국 호키엔족의 이동은 중국과 대만을 넘어 인도네시아까지 대대적으로 발생하였음. 그 흔적은 18~19세기를 대상으로 하는 회의 기록으로부터 찾아볼 수 있음
- Bogusław Zagórski (폴란드)
 - 아랍 민족의 이동에 따라 그들의 지명은 동시적(synchronic) 또는 통시적(diachronic)인 형태로 모두 나타나며, 중첩된 지명의 레이어(또는 stratum)를 형성함
- Philip Matthews (뉴질랜드)
 - 마오리족과 영국으로부터의 이주자는 와이탕기(Waitangi) 조약으로 평화협정을 맺었으나, 영국 권력자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이를 무시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함
 - 식민지배자들과 그들의 자손은 영국식 지명을 붙이고 영토를 지배함으로써 경관을 전유(appropriate)하게 됨

제3세션: 유럽 사례 I (사회: Ferjan Ormeling)

- Arjen Versloot (네덜란드)
 - 유럽 내에서 방대하게 발생한 인구이동에 의해 나타난 지명의 언어적, 역사적 흔적을 지리정보체계(GIS)의 기법으로 추적할 수 있음. 룬 문자(Runic)로 된 지명은 이를 보여주는 매우 좋은 사례를 보여줌
- Małgorzata Madola (프랑스)
 - 유럽의 지명은 언어의 이동에 의해 각 지역으로 분산되었다고 평가되며, 여기에는 다양한 언어적 변이가 반영되어 있음
- Marit Alas and Marja Kallasmaa (에스토니아)
 - 에스토니아의 지명에는 스웨덴과 소비에트공화국의 식민지배 이후 변

화된 다양한 양상이 나타남

- Tiina Laansalu (에스토니아)
 - 에스토니아에는 다른 언어권으로부터 온 지명(transferred name) 많이 있으며 이에 대한 해석이 존재함
- Wojciech Włoskowicz (폴란드)
 - 인구이동은 폴란드 동남부 비어스타디(Bieszczady) 산악지역에 형성되어 있는 통시적(diachronic)인 지명 레이어(또는 stratum)의 원인이 됨
- Přemysl Mácha (체코)
 - 체코 모라비아(Moravian) 지역에는 인구이동으로 문화적 확산과 연관된 지명 이동의 영향을 받은 언어경관이 형성되어 있음
 - 지명의 이동은 이윤을 창출하는 브랜드로서, 사상과 은유의 표현으로서 나타남(한국전쟁과 관련된 Korea 지명도 포함)
- Helge Paulig (독일)
 - 독일 드레스덴 북동부에 위치한 루사티아(Lusatia) 지역의 인간거주지 이름은 소라빅/보헤미안(Sorabic/Bohemian), 독일, 그리고 폴란드 촌락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이 많음
- Peter A. Weenink (네덜란드)
 - 유럽에 남아 있는 중국인들의 흔적을 추적함(중국 음식점의 이름을 중심으로)

제4세션: 유럽 사례 II (사회: Oliviu Felecan)

- Guido Lucarno (이탈리아)
 - 13세기 이래 이탈리아 알프스 지역(포마짜 계곡 Formazza Valley)으로 이주한 발저(Walser) 언어 사용자들은 다양한 지명의 흔적을 남겼음
- Heinz-Dieter Pohl (오스트리아)
 - 오스트리아 남부 카린티아(Carinthia)와 동 티롤(East Tyrol)에는 다양한 슬로베니아어 지명이 남아 있음

- Oliviu Felecan (루마니아)
 - 루마니아에는 최근 이주한 인구가 사용하는 비공식적 도시지명이 사용됨(예: Timișoara에 대한 Little Vienna, Bucharest에 대한 Little Paris)
- Ivana Crljenko (크로아티아)
 - 유럽 전역으로 확산한 크로아티아 민족 디아스포라는 각 지역(오스트리아 브루젠란트, 헝가리, 이탈리아, 루마니아, 체코, 슬로베니아, 불가리아 등)에 크로아티아 지명을 남겼음
- Attila Sasi and Gábor Mikešy (헝가리)
 - 헝가리를 중심으로 하는 파노니안 분지(Pannonian Basin 또는 The Great Hungarian Basin)에는 다양한 민족이 점유하면서 다양한 지명의 흔적을 남겼음
- Margareta Magda Manu (루마니아)
 - 루마니아 트랜실바니아(Transylvania)의 다민족 공동체에는 이주자에 의한 외래지명(exonym) 사용의 사례가 발견됨

④ 기타

- 유엔지명전문가그룹(UNGEGN) 평가·실행위킹그룹 위원 간담회 개최
 - 일시: 2019. 11. 8, 13:00~14:30
 - 참석자: 주성재(의장), Gerhard Rampl(서기), Helen Kerfoot(위원)
 - 논의사항: 2020년 위킹그룹회의 개최계획(7월, 수원, 10월 스웨덴), 전략 계획 수립, 결의문 이행평가 관련
- 참가자 전체 만찬
 - 일시: 2019. 11. 7, 19:30~21:30
 - 장소: 빈 시내 식당
 - 오스트리아 지명위원회 전 위원장 Peter Jordan이 본인의 70회 생일을 자축하여 초청함

(4) 평가 및 시사점

- 금번 회의는 오스트리아 지명위원회 창설 5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식과 학술회의로 구성되어 성황리에 진행되었음
 - 오스트리아 단독 개최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대표성을 가진 전문가가 참석한 것은 지명 분야에서 오스트리아의 영향력을 보여준 것이라 평가됨
 - 유엔전문가그룹의 현 의장과 부의장, 전 의장과 부의장 2인, 워킹그룹의 장 2인, 독일어권지명위원회 의장, IGU/ICA 지명위원회 의장 등이 참석
 - 아울러 26편에 달하는 논문이 발표된 것은 지명 논의에 대한 방대한 수요를 보여주는 것이라 평가됨
 - 유럽(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헝가리, 루마니아, 이탈리아, 독일, 체코, 에스토니아, 폴란드, 프랑스, 러시아, 네덜란드)뿐 아니라 오세아니아(뉴질랜드), 아프리카(알제리아), 아시아(한국, 대만, 인도네시아) 등의 사례가 발표, 토론됨
 - 지명 논의에 대한 방대한 수요가 존재한다는 것은, 향후 이와 유사한 회의 개최의 성공 가능성을 예시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공동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주제 선정, 참가자들이 접근하기 편한 장소 선정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 오스트리아 지명위원회(AKO)는 활동 방향, 가치 부여, 인적 구성의 측면에서 우리나라와의 교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며, 교류시에는 지명 관련된 학술논의와 표준화의 원칙 관련 논의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임
 - AKO는 각 활동주체(지자체, 교육기관, 언론 등)에게 지명 표기에 관한 권고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수행하며 개별 지명을 표준화하는 업무는 수행하지 않음
- ※ 50주년 기념패와 기념품 증정은 교류 확대를 위한 좋은 분위기를 조성한 것으로 평가됨

- 부대 행사로 개최된 독일어권 지명위원회(StAGN)의 관찰 결과, 위원들의 논의는 절차와 관련된 부분과 더불어 실제적 논의를 심도 있게 진행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음(국가명, 외래지명 등)
- 이는 오스트리아 지명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이들과의 교류는 실제적 논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함



<그림 5> 오스트리아 지명위원회(AKO) 창립 50주년 기념식

3) 지명표준화 관련 법제화 현황 국내·외 사례 조사·분석

(1) 지명표준화 관련 법제화 현황 국내 사례 조사 분석

- 지명은 국가의 국토 관리와 공간 인식을 형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정보를 지니고 있으며, 이의 효율적 관리는 공간의 사회문화적, 실용적 활용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함
-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의 체계적 지명 관리는 오늘날 유엔을 비롯한 세계 여러 국가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이자 국토정보 관리의 중요한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음
- 본 파트는 이러한 지명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국내 지명 법제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해 각 정부 부서별로 산재되어 있는 국내 지명 관련 법제 사항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총괄적 지명법을 제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함
 - 현재 국내 지명은 그 성격에 따라 관리 주체를 달리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 또한 상이함
 - 지명 관리 주체에 따라 파편화된 지명 법률은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명 관리 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을 야기함
- 여기서는 각 정부 기관 및 지명 관리 주체별로 흩어져있는 지명 관련 법률 내용을 수집하고 향후 종합적 지명 법제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함
 - 향후 지명 관리 통합 법률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지명 관련 법제 현황을 파악하는 일이 매우 중요함
 - 분석의 대상을 지명과 해양지명, 행정 지명, 철도 관련 명칭, 고속도로 노선 명칭, 도로 명칭, 문화재 명칭, 기타 명칭 등으로 분류하여 각 지명의 관리 주체와 법률 사항을 살펴봄

- 포괄적 지명 법률화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하여 지명 관련 제도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사항을 「지명표준화편람 제3판(2018. 12.)」의 주요 내용과 연동하여 살펴보도록 함

㉠ 지명과 해양지명: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는 지명(육상지명)과 해양지명의 결정과 고시, 그리고 이를 위한 국가지명위원회와 각 행정단위 지명위원회의 존립에 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함
 - 시행령 제86조~제96조는 지명과 해양지명의 고시, 각급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특기할 사항으로서 지명위원회가 지리, 해양, 국문학 등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인사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임
 - 지명위원회에 관해서는, 다른 명칭 종류들과 관계된 위원회(예: 도로명주소위원회, 역명심의위원회 등)와의 상호 역할 분담 및 구성 원리 등에 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술을 준비할 필요를 제기함
- 지명과 해양지명의 선정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는 이 법률에서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과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이 각각 발간하는 『지명 표준화 편람』과 『해양지명 표준화 편람』에 의해 관리되고 있음
 - 법적 효력과 구속력의 문제가 대두됨

② 행정 지명: 『지방자치법』

- 행정 구역의 명칭과 관련한 법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제4조와 제66조에서 발견됨
- 지방자치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바꾸는 경우 법률에 근거하여 변경해야 함을 적시하고 있으며, 관할 구역 경계 및 한자 명칭의 경우 대통령령에 의해 변경되어야 한다고 밝힘
 - 지방자치법 제4조는 가급적 기존의 명칭이 유지되는 방향을 전제로 한다는 사실을 언급함
 - 이는 지명표준화 원칙 “2. 현존 지명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변경 또는 폐지하지 않는다”와 일치하는 사안임
 - 변경이 필요할 경우, 자치구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규모일 경우 법률 및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고 그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을 명시함. 그러나 그 이하 규모의 지방자치단체일 경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각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결정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규모가 큰 자치단체의 경우 국가 차원의 의사결정 단위에서 해결할 것을 명시하지만 하위 단체일 경우 자치적 결정 과정을 따를 것을 명시했다는 점임
 - 이는 지명표준화 원칙 “4.(1) 현지에서 현재 불리고 있는 지명”과 연결되는 법률적 내용이라 볼 수 있음

지방자치법

제1장 총강(總綱)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 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과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또는 그 명칭이나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제66조는 제4조에서 언급한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바꾸는 데 있어 필요한 절차에 대해 언급함
 - 이 조항은 지방의회의 발의 및 의결을 통해 자치단체의 명칭 혹은 단체 내 행정 지명의 명칭을 바꿀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함
 - 하지만 행정 지명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법 제4조와 제66조의 언급 외에는 구체적인 지침이나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지방의 정치적 결정이 많은 부분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임
 - 각 행정구역 단위의 명칭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 소관의 영역이므로 각 지역의 지명위원회 및 국가지명위원회와는 별개의 영역으로 취급될 수 있으며, 위의 지방자치법은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여 지명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향후 지명 법제가 만들어진다면, 법률, 대통령령, 지방의회, 지방조례, 지명위원회 등 관련 기관 및 조직의 역할을 명확히 언급해 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지방자치법

제5장 지방의회

제7절 회의

제66조(의안의 발의)

-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 ②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위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⑤ 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포 또는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제66조의2(조례안 예고)

- ① 지방의회는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 내용,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 ② 조례안예고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③ 철도 관련 명칭: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 철도 관련 명칭의 전반적인 행정 절차는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 행정규칙(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71호)의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
- 해당 지침의 제4조는 노선명을 포함한 노선의 총괄적 지정, 제5조는 철도 노선명의 제·개정에 관한 지침을 다루고 있음
 - 철도 명칭의 제·개정은 먼저 철도시설관리자가 제안한 노선명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에 의해 최종 결정됨
 - 이는 지명표준화 원칙 7, 8, 9의 지명 제정의 절차에 명시된 상위 지명 위원회의 최종 승인 원칙과 연결되는 부분임
 - 철도 노선 역시 기존의 명칭을 가급적이면 유지할 것을 명시함

- 이는 지명표준화 원칙 “2. 현존 지명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변경 또는 폐지하지 않는다”와 연결됨
- 하지만 변경의 이유에 대해서는 “기점 및 종점 등이 현저히 변경되어 여객의 효율적인 안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한정하여 언급하며 기타 이유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음
- 이는 논란의 여지가 다른 명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고 실용적 목적의 성격이 강한 철도 노선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됨
- 철도 노선 명칭의 실용적, 포괄적 특성은 해당 조항에서 현칭 지명에 관한 언급이 없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됨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71호(2018. 11. 11. 개정)

제2장 노선명 및 역명의 제·개정 기준 등

제4조(사업용철도노선의 지정. 고시)

-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건설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용철도노선의 고시에 필요한 **노선명 및 역명 제정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계획 승인·고시 예정일 2개월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용철도노선의 노선번호, **노선명**, 기점, 종점, 중요경과지(정차역명을 포함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5조(노선명의 제·개정 기준)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노선의 기점과 종점의 지명 중 **첫 글자 또는 첫 두 글자를 사용하여** 노선명을 정한다. 다만, 효율적인 노선명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리적 명칭**(예시 : 내륙선, 서해선)이나 **행정구역 명칭**(예시 : 광주선, 과천선) 또는 **특정 명칭**(예시 : 인천국제공항선) 등을 사용할 수 있다.
- ② 노선의 명칭은 전체 노선에 대해 부여하되, 단계별로 개통하는 경우에는 노선명과 우선 개통구간을 병행하여 표기(예시 : 경강선(성남~여주))한다.
- ③ 기·종점의 지명을 사용하는 경우 남쪽에서 북쪽, 서쪽에서 동쪽으로 명칭을 배열하되, 경합이 발생할 때에는 남쪽에서 북쪽 사용이 우선(예시 : 수인선)한다. 다만, 서울이 기점 또는 종점 노선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노선명(예시 : 경부선, 경인선)을 부여할 수 있다.
- ④ 기존의 노선이 일부 연장되거나 개량사업 등으로 노선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의 노

선명은 여객의 효율적인 안내 등을 위하여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존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점 및 종점 등이 현저히 변경되어 여객의 효율적인 안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⑤ 다른 노선의 일부구간을 이용하여 하나로 연결된 노선 등은 다른 노선의 일부구간을 중복 사용하여 하나의 노선명을 부여할 수 있다.

○ 제7조, 제8조는 각각 ‘역명의 제·개정 기준’, ‘노선명 및 역명의 표기’ 등에 관해 언급하고 있음

- 제7조 ①, ②항에서는 역명의 제·개정 시 해당 지역과 깊은 연관성이 있으며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명시함

- 이는 지명표준화 원칙 “4.(1) 현지에서 현재 불리고 있는 지명, (2) 지역의 정체성, 역사성, 문화유산 및 장소의 의미를 반영하는 지명”과 연결됨

- 제7조 ④항의 내용은 공적 조직이 아닌 특정 사조직의 홍보에 사용될 수 있는 명칭을 배제함

- 이는 지명표준화 원칙 “5.(3) 상업화의 동기에서 비롯된 지명 배제”와 연계할 수 있음

- 노선의 명칭과 다르게 역명은 연관 지역의 이익 관계가 일정 부분 작용하는 민감한 영역으로서 제7조 ⑤, ⑦항은 이러한 지역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는 지명표준화 원칙 “8 지방자치단체 간 합의에 의한 지명 결정”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임

- 제7조 ③항 및 제8조는 전반적으로 역명의 가독성 및 사용의 편리함을 목적으로 한 법률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이는 지명표준화 원칙에서 배제를 규정한 “5.(1) 현대국어 사용의 관습에서 벗어난 지명(외국어, 잘못된 맞춤법 등), (5) 동일 지명이 가까운 거리에 있어 혼돈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지명, (6) 지나치게 길어서 사용자의 편의에 지장을 주는 지명” 등과 연계할 수 있는 항목임

제7조(역명의 제·개정 기준)

- ① 역명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때에는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부르기 쉬우며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역명은 **역당 하나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지명 및 해당 지역과 연관성이 뚜렷하고 지역 실정에 부합되는 명칭**을 사용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1. 행정구역 명칭
 2. 역에서 인접한 **대표적 공공기관 또는 공공시설**의 명칭
 3. 국민들이 인지하기 쉬운 지역의 **대표명소**
 4. 역사가 대학교부지 내에 위치하거나 대학교와 인접하여 지역의 대표명칭으로 인지할 수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다수가 동의하는 경우 **대학교명**을 역명으로 지정 가능
- ③ 역명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역명이 이미 존재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소관의 다른 역명과 동일(역명 발음상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기존 역명과 혼동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역명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 **특정 단체 및 기업 등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역명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⑤ **환승역**은 이용자 혼란 방지 등을 위해 **같은 역명**을 사용하여야 하며, 역이 신설되는 경우 신설역의 역명은 **기존 역명**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운 역명** 제정이 필요할 경우 기존역의 역명 제정권자와 협의한 후 **본 지침에 의한 역명 제·개정 기준과 절차에 따라 결정** 한다.
- ⑥ 제2항에 따른 행정구역 명칭 사용이 곤란하거나 신설역이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어 **지역간 갈등 발생**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2개의 행정구역명을 연속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 ⑦ 이 지침에 따라 **역의 명칭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 중인 역의 명칭은 알파벳 또는 기호 등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제8조(노선명 및 역명의 표기)

- ① 노선명 및 역명 표기문자는 **한글로 최대 6자 이내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5자 이상으로 정할 경우에는 **4자 이내의 축약 역명**까지 동시에 정하여야 한다.
- ② 철도시설관리자 및 철도운영자는 한글 역명과 더불어 외국인 관광객의 안내 등을 위하여 **외국어(로마자, 한자) 역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선명 및 역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기하여야 한다.
 1. 한글 명칭과 한자 명칭이 서로 다른 때에는 한글 명칭을 우선 고려할 것
 2. 역명은 한글 맞춤법에 따를 것
 3.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부에서 정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를 것. 다만, 일반적으로 국어와 외래어가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는 시청, 광장, 종합운동장 등은 번역하여 시티 홀(City Hall), 스퀘어(Square), 스포츠 콤플렉스(Sports Complex) 등으로 표기 가능
 4. 한자는 간자체나 번자체로 일절일음(一節一音) 원칙에 따라 표기할 것

- 제9조, 제10조는 각각 노선명 및 역명의 제정, 개정 절차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노선명과 역명의 제·개정은 하위 → 상위 주체(철도시설관리자 → 지방자치단체(지명위원회)·철도운영자 → 국토교통부장관)의 의사결정 절차에 따를 것을 언급함
 - 제9조 ③항에 명시되었듯이 역명의 경우 필요에 따라 주민공청회를 통해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자치단체 지명위원회를 거치는 절차를 따르게 하는데, 이는 논란과 갈등의 여지가 비교적 적은 노선명과는 달리 역명의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의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됨
 - 위의 전반적인 제·개정 절차는 지명표준화 원칙 7, 8에 기초한 “지명 제정의 절차”에 상응하는 내용으로서, 향후 철도 규칙 사항과 지명표준화편람 원칙을 아우르는 포괄적 지명 법제화의 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제9조(노선명 및 역명의 제정 절차)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관리자**가 철도 노선 및 역명 **제정방안을 제출**하는 경우, 제11조에 의한 **역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 ② 철도시설관리자가 제4조제1항에 따른 노선명 및 역명 제정 방안을 마련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공공시설과 관련된 행정구역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해당 철도운영자, 철도건설사업시행자 및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철도시설관리자가 제2항에 따라 역명의 제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을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등에 역명 제정에 관한 사항을 7일 이상 게재하거나, **필요시 주민 공청회** 등을 개최토록 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역명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철도시설관리자는 역명의 제정과 관련하여 문화재, 주요 공공기관 또는 주요 공공시설 등의 명칭으로 제정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에 다른 문화재, 주요 공공기관 또는 주요 공공시설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이들 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⑤ 철도시설관리자는 제4항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 다른 문화재, 주요 공공기관 또는 주요 공공시설의 관리자 등이 다른 역명으로 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새로이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노선명 및 역명 개정 절차)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역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노선명 또는 역명을 개정할 수 있다.
 - 1.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역세권의 환경이 변화하여 노선명 또는 역명 개정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 2. 기존 역이 위치한 행정구역명이 변경되거나 철도개량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역의 위치가 다른 행정구역으로 변경되는 경우
 -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요구 등에 따라 합리적인 노선명 및 역명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해당 철도운영자 등은 제1항에 따라 노선명 또는 역명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철도시설관리자에게 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철도시설관리자는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철도운영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에 대한 처리방안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시설관리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마련된 노선명 및 역명 개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한 후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 ④ 노선명 및 역명 개정업무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 역명심의위원회 심의 등에 대해서는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노선명 및 역명 개정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반대 등의 사유로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등 개정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요청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 지침에서 같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 제11조는 ‘역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해당 지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지명위원회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됨
 - 역명위원회는 크게 지명관련 전문 학회, 국가지명위원회(국토지리정보원장),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철도관련 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됨
 - 이 중 지명 관련 조직의 인사 수보다 철도 관련 실무 조직의 인사 수가 더 많음은 기타 지명위원회 구성 방식과는 다소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향후 역명 제·개정 절차에 있어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 주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제3장 역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1조(역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 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되, 철도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1.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지명관련 전문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국가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 중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3.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 추천하는 2명
 4.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추천하는 2명
 5. 그 밖에 **철도관련 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 전반적으로 철도 지명 관련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 행정규칙(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71호)은 지명표준화편람의 기본 원칙들과 대응되는 내용이 다수 발견되며 이는 향후 포괄적인 지명 법제화의 틀을 마련하는 데 있어 상당 부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④ 고속도로 노선 명칭: 『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

-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의 담당 아래 『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 (국토교통부 예규 제269호, 2019. 4. 18., 일부개정)은 고속도로 노선의 번호 및 명칭에 관계된 지침들을 명시하고 있음
 - 해당 예규는 국토교통부 산하 고속도로에서 지방도에 이르는 영역의 노선번호와 노선명 제·개정에 관한 내용들을 담고 있음
 - 일반국도, 지방도, 특별시도 등의 노선명은 기·종점을 기준으로 정하는 단순한 원칙을 일관되게 따르며, 대부분의 노선명 제·개정에 대한 규칙 설명은 고속도로 노선 명칭에 집중되어 있음
- 고속도로 노선 명칭에 관한 내용은 해당 예규 제11조와 제15조에 명시되어 있음

- 노선의 행선지 정보를 명확히 전달해야 하는 기능적 특성상 고속도로 노선명은 기·종점의 명칭 사용을 기본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노선의 장소적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명칭을 부여함
- 기본적 절차는 한국도로공사 혹은 민자도로 사업시행자가 마련한 제정안을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확정함
- 기·종점이 아닌 통과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명칭을 부여할 경우에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으로 요청한 명칭을 제정안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사항은 특이점이라 할 수 있으며, 여러 지역을 관통하는 고속도로의 특성상 관련 지역들의 의견이 합치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향후 지명법 제정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임
- 제출된 노선명의 심의 과정은 상기 예규 제15조 ③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도로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고시되며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아래 도로법 제9조의 내용을 따름

<p>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 제·개정 2019. 4. 18 국토교통부 예규 제269호</p> <p>제3장 노선명 제·개정 기준 등</p> <p>제11조(고속국도)</p> <p>① 고속국도 노선명은 기·종점(예시: 용인서울선)을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다음 각 호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통과지역의 지리적 위치 명칭 2. 역사문화 자산 등을 기념하기 위하여 당해 자산 등을 기념하는 명칭 3. 노선의 지역적 특성과 환경 등을 고려하여 해당 노선을 경유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장(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요청한 명칭 <p>② 제1항에 따라 기·종점을 명칭으로 사용하는 경우,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 기준으로 기·종점을 정하고, 기·종점 배열방법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p> <p>제15조(고속국도 노선명의 제·개정 절차)</p> <p>① 한국도로공사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자도로 사업시행자(이하 “민자도로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기본설계 중에 노선명 제정안</p>

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설계 완료 전까지 노선명을 확정하여야 한다.

- ②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노선명 제정안을 마련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시설계 완료 후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전 까지 법 제19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법 제9조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노선명을 포함한 노선의 지정·고시를 하여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사업시행자가 요청하거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 여건변화로 노선명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에 따라 노선명을 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선 변경 고시를 하여야 한다.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사업시행자가 노선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일반국도 노선명의 제·개정 절차)

국토교통부장관은 노선의 신설, 기·종점 변경 등으로 인해 노선명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9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협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선명을 포함한 노선의 지정 또는 변경 고시를 하여야 한다.

- 상기 법률에서 규정한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명에 의해 결정되며 위원의 자격은 고위공무원과 ‘도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음
- 노선 명칭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지명 관련 인사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다른 기타 지명위원회의 구성과는 다소 상이한 부분이라 사료되며 이에 대해 향후 지명법이 다룰만한 사항인지의 여부는 추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도로법 [시행 2019. 6. 19] [법률 제15997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9조(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① 도로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2.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건설·관리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도로의 노선 지정에 관한 사항
 6. 국가가 관리하는 유료도로의 통행료 조정에 관한 사항
 7.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도로와 관련된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에 관련된 사업의 재평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로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3급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 도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⑥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도로 명칭: 『도로명주소법』

-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의 『도로명주소법』(시행령과 시행규칙 포함)은 도로 지명의 부여 및 개정에 관한 절차들을 서술하고 있음
 - 지자체 행정 주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제정됨
- 도로명주소법의 대부분은 도로구간 설정, 도로명 부여 및 변경·폐지 절차, 주소 설정, 도로명주소의 관리 등 ‘주소’ 관리 및 행정상의 절차 부분에 집중되어 있으며 ‘지명 제정’에 대한 내용은 미비한 상황임
 - 도로명 부여는 일차적으로 기초단체의 시장 등이 경내에 위치한 도로를 대상으로 집행하지만, 기초단체의 경계를 넘어서는 도로의 경우 상위 시·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시·도의 경계를 넘어서는 도로의 경우 마찬가지로 상위 기관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결정 신청을 하여야 함 (제8조 ①-④항)

- 최종 도로명을 부여하기 전 각 도로명 부여 기관들은 해당 지역주민 및 지방자치단체 장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해당 지역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을 명시함(제8조 ⑤항)
 - 이는 지명표준화 원칙 “3. 지역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며, 지역 내 구성원과 지명 전문가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함”과 연결되는 부분으로 볼 수 있음
 - 단, 도로명 주소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자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하여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다른 지역의 도로명에 영향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제8조 ⑥항)
 - 법률에서 정하는 전반적인 절차를 놓고 봤을 때 도로명 부여는 지명표준화편람에서 정한 “지명 제정의 절차 7, 8, 9”의 내용과 연결될 수 있지만, 지명위원회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설명한 지명표준화편람과는 달리 도로명주소법에서는 지자체의 장/행정안전부 장관의 역할과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분리하여 설명하는 것이 차이점이라 할 수 있음
 - 제8조의2에서는 기업 유치와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명예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상업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지명을 배제한다”는 지명표준화 원칙 5.(3)과는 다소 상이한 해석상의 여지를 남기고 있음
- ※ 지하철 역명 제정의 경우에도 상업적 성격의 부(副) 역명을 제정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지하철 관리 주체에 적정 금액을 지불하고 계약기간 동안 부 역명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법률에 근거한 것이 아닌 관리 주체의 정책이라는 점에서 상기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2(명예도로명)와는 성격이 다르다 할 수 있음

제8조(도로명 부여 등)

- ① 시장 등은 도로명주소의 부여·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기초조사
 2. 도로구간의 설정·변경·폐지
 3. 도로명의 부여·변경·폐지
 4.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5. 기초번호의 부여·변경·폐지
 6. 도로명주소기본도의 작성
 7. 그 밖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시장 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가 2개 이상의 시·군·자치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현황자료 및 시장등의 의견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결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 해당 시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도로구간의 설정 또는 변경
 2. 도로명의 부여 또는 변경
 3. 기초번호의 부여 또는 변경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그 신청을 받은 도로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현황자료 및 시·도지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 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 해당 시·도지사와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 각 호의 결정사항에 변경요인이 발생하였거나 2개 이상의 시·도 또는 2개 이상의 시·군·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로를 새롭게 확인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⑤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도로구간과 기초번호를 포함한다)을 결정하거나 결정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시장등은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만을 수렴한다)한 후 제22조의2에 따른 해당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라 고시된 도로명주소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과 해당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⑥ 제5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도로구간의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주소사용자”라 한다)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하여 도로명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건물 등의 명칭(둘 이상의 건물등이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건물군을 포함한

다)과 유사한 명칭으로 도로명 변경을 신청한 경우. 다만, 2011년 7월 29일 현재 부여된 도로명으로 환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둘 이상의 시·군·자치구 또는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을 변경하는 경우
3. 시장 등이 다른 도로명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4. 제8항에 따른 도로명의 부여 또는 변경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의2(명예도로명)

- ① 시장 등은 제8조에 따라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업 유치, 국제교류 등만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명(이하 "명예도로명"이라 한다)을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 ② 도로명주소안내시설과 도로명주소안내도에서는 명예도로명을 도로명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 ③ 명예도로명의 부여 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도로명주소의 지명 제정에 대한 내용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 및 시행규칙 제5조를 참조할 수 있음
 - 시행령 제7조 ①항은 도로명의 주된 명사가 지역적 특성, 역사성, 위치 예측성, 영속성, 지명,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지명표준화 원칙 “4.(2) 지역의 정체성, 역사성, 문화유산 및 장소의 의미를 반영하는 지명”과 연결됨
 - 도로명의 주소·행정적 기능을 위해 숫자나 방위도 주된 명사의 구성 요소로 취급하며 이는 기타 지명의 요소와는 차별화된 도로명의 특성이라 볼 수 있음
 - 도로명에 붙은 숫자를 주된 명사의 일부분으로 취급한 것은 지명표준화 원칙 5.(7)에서 규정한 “일련의 숫자를 이용해 지정하는 지명 배제”와 상치되는 것으로 보이나, 도로명주소의 본질적 특성을 고려할 때 가능한 일이라 판단됨
 - 각 종류의 지명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는 향후 지명법 제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로 평가됨

- 시행령 제7조 ③항은 시·군·구 내에서는 같은 도로명을 중복하여 부여하지 못함을, ④항은 시·군·구가 다른 경우에도 인접하여 연결된 도로가 아니면 해당 도로구간의 반경 5km 이내에서는 같은 도로명을 부여할 수 없음을 규정함
 - 이는 지명표준화 원칙 “5.(5) 동일 지명이 가까운 거리에 있어 혼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지명을 배제”한다는 것에 수렴함
- 시행규칙 제5조에서는 지명, 마을이름, 역사적 인물의 이름,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유적 및 문화재의 이름, 도로의 위치와 기능 및 시·군·구 이상의 권역을 대표하는 상징성 있는 공공시설물의 이름을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이는 지명표준화 원칙 “4.(2) 지역의 정체성, 역사성, 문화유산 및 장소의 의미를 반영하는 지명”과 연결됨
 - 인명을 도로명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지명표준화 원칙 6의 방향과 동일하나, 생존 인물의 이름 배제, 사후 10년 경과 등의 구체적 기준은 없음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제7조(도로명의 부여·변경 기준)

- ① 도로명은 주된 명사에 제6조 제1항의 기준에 따라 구분한 “대로“, “로“, “길“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달리 정한 도로구분을 붙여서 부여·변경한다. 이 경우 주된 명사는 **지역적 특성, 역사성, 위치 예측성, 영속성, 지명(地名)과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며, 주된 명사 뒤에 숫자나 방위를 붙일 경우 그 숫자나 방위도 주된 명사의 일부분으로 본다.**
- ② 제6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의 활용도와 편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로“와 “로“ 또는 “로“와 “길“의 기준을 서로 바꾸어 사용할 수 있다.**
- ③ 같은 시·군·구 내에서는 같은 도로명을 중복하여 부여·변경할 수 없다. 다만, 시·군·구를 합치거나 관할 구역 경계변경으로 같은 도로명이 중복되었으나 각각의 해당 도로구간의 위치가 행정구 또는 읍·면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④ 시·군·구가 다른 경우에도 인접하여 연결된 도로가 아니면 해당 도로구간의 반경 5킬로미터 이내에서는 같은 도로명을 부여할 수 없다.
- ⑤ 제3항 또는 제4항의 경우 도로명의 주된 명사는 같고 주된 명사 뒤에 붙은 “대로”, “로”, “길”만 달리한 경우도 도로명의 중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시장등이 도로명 부여·변경권자인 경우: 시장등의 신청에 따라 시·도지사가 법 제22조의2에 따른 시·도 도로명주소위원회(이하 “시·도 도로명주소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인정한 경우
 2. 시·도지사가 도로명 부여·변경권자인 경우: 시·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22조의2에 따른 중앙 도로명주소위원회(이하 “중앙 도로명주소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인정한 경우

-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역할과 구성에 관한 내용은 도로명주소법 제22조의2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7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법률에서 정하는 각급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역할은 주소 관리의 행정적 절차에 관한 종합적 접근을 명시하는 관계로 지명 제정의 심의에 대한 기준은 미비한 상황이며, 이것은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의 구성에도 나타남(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7조)
 - 고위공무원 혹은 ‘도로명주소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보다 행정의 실리적 측면에 가까운 인사를 대상으로 함
 - 단, 각 시·도 급의 도로명주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지방의 조례 내용은 대부분 지명에 학식을 갖춘 인사(아래 부산광역시 사례)에 대한 부분을 암시적으로나마 취하고 있음

도로명주소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제22조의2(도로명주소위원회)

- ① 도로명의 부여·변경, 그 밖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 도로명주소위원회를 두고, 시·도에 시·도 도로명주소위원회를 두며, 시·군·자치구에 시·군·구 도로명주소위원회를 둔다.
- ② 중앙 도로명주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로명주소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종합계획 및 자원 조달에 관한 사항
 2. 도로명주소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3. 도로명주소의 사용을 위한 민간부문 및 공공부문의 활용 촉진 등에 관한 사항
 4. 제11조에 따른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도로구간과 기초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부여·변경에 관한 사항
 6.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③ 시·도 도로명주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 제2항에 따른 시·도 집행계획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2개 이상의 시·군·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부여·변경에 관한 사항
 3. 시·도의 제11조에 따른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 ④ 시·군·구 도로명주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로명의 부여·변경에 관한 사항
 2.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위탁에 관한 사항
 3.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등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각 도로명주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 도로명주소위원회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도 및 시·군·구 도로명주소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 제27조(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의 구성 등)**
-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행정안전부의 도로명주소업무를 수행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2. 도로명주소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또는 그 밖에 중앙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사람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시행 2017. 7. 26.] [행정안전부령 제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5조(도로명의 부여·변경의 세부기준) 영 제7조제9항에 따른 도로명의 부여·변경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명만으로 도로의 위치를 미리 알 수 있도록 **대로와 로(路)**에는 **방위** 등을 사용한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고, **길**에는 **숫자나 방위** 등을 사용한 다음 각 목의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다.
 - 가. 기초번호방식 도로명
 - 나. 일련번호방식 도로명
 - 다. 복합명사방식 도로명(길의 시작지점과 연결된 도로명에 고유명사와 “길”을 합한 도로명을 말한다)
2.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구간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존 도로명으로 한다.
3. 도로명을 부여할 때 **지명, 마을이름, 역사적 인물의 이름**,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희생·공헌자, 유적 및 문화재의 이름**, **도로의 위치와 기능 및 시·군·구 이상의 권역을 대표하는 상징성 있는 공공시설물의 이름** 등을 반영할 수 있다.
4. 도로명은 한글로 표기하되, 아라비아숫자와 온점(.)을 포함할 수 있다.
5. 도로명의 로마자 표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을 따르되, 세부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6. 영 제6조 제1항의 도로별 구분기준을 안내할 때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표기할 수 있다.
 - 가. 대로(大路): Blvd
 - 나. 로(路): St
 - 다. 길(街): Rd

부산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7. 1.] [부산광역시조례 제5566호]

제3조(도로명주소위원회)

- ① 「도로명주소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도로명주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계획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0. 7. 6, 2015. 1. 1>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장(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로명주소와 관련되는 기관의 관계 공무원
 2. 도로명주소 및 도로교통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부산광역시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⑥ 문화재(국가 관리 등록문화재) 명칭: 『등록문화재의 명칭 부여 지침』

- 국가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등록문화재는 본질적인 의미에서 지명이라고 하기는 어려우나, 소재지의 지명을 사용하고 있고 지명 제정과 관련된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등록문화재의 명칭은 7개 조로 구성된 ‘등록문화재의 명칭 부여 지침(문화재청 예규 제163호)’으로 관리되고 있음
 - 핵심 부분은 일반 원칙(제3조), 종류에 따른 기준(제4조), 명칭의 변경(제5조) 등임
 - 소재지 및 유물의 종류에 따라 명칭 부여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경합 및 갈등의 소지가 다른 지명에 비해 적다고 볼 수 있음
- 등록문화재 명칭의 일반 원칙(제3조)에서 주목할 점은 다음과 같음
 - ①항은 문화재의 가치와 특징 등을 잘 나타내고 영구적으로 불릴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규정함
 - 이는 지명표준화 원칙 “4.(2) 지역의 정체성, 역사성, 문화유산 및 장소의 의미를 반영하는 지명”에 수렴하는 내용이라 볼 수 있음
 - ②항은 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따르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됨
 - 이는 지명표준화 원칙 “3. 지명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과 통하는 내용임
 - ⑤항은 역사 인물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이는 지명표준화 원칙 “6. 사후 10년이 경과한 인물의 이름을 지명으로 사용할 수 있음”과 통하는 내용임
 - ⑩항은 1개의 등록 명칭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함
 - 이는 지명표준화 원칙 “1. 1객체 1지명”에 수렴하는 내용임

등록문화재의 명칭 부여 지침

제정 2013년 7월 4일 문화재청 예규 제122호
일부개정 2016년 3월31일 문화재청 예규 제163호

제3조(일반 원칙) 등록문화재의 명칭 부여에 관한 일반 원칙은 다음과 같다.

- ① 등록 명칭은 그 **문화재의 가치와 특징** 등을 잘 나타내고 영구적으로 불릴 수 있어야 한다.
- ② 등록 명칭은 **관계 전문가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과 충분한 고증**을 거쳐 부여하여야 한다.
- ③ 등록 명칭은 한글로 표현하고 한글 맞춤법에 따라 띄어쓰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명칭이 역사적 지역명과 결부되거나 고유 명칭인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
- ④ 한글의 표현이 등록문화재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뒤에 한자(영문 등)를 괄호 안에 함께 쓸 수 있다.
- ⑤ 등록 명칭에 **역사 인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물의 이름을 쓰지 않도록** 하며, 이 경우 인물의 이름에 붙는 명칭 및 직위 등은 생략한다.
- ⑥ 등록 명칭은 약칭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약칭이 이미 널리 알려져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약칭을 사용할 수 있다.
- ⑦ 앞뒤의 단어가 별개로 독립된 경우 ‘~ 및 ~’, 앞뒤의 단어가 연관이 있는 경우 ‘~ 와 ~’, 단어가 3개 이상 나열되거나, 같은 계열의 단어가 이어진 경우 ‘~ , ~’ 를 사용하여 부여한다.
- ⑧ 등록 명칭에 조사 ‘의’, 의존 명사 ‘내’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 ⑨ 등록 명칭에 옛날을 나타내는 접두사 ‘구’ 를 사용할 경우에는 등록문화재의 고유 명칭 앞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 대상이 명확한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대상 앞에 사용한다.
- ⑩ 현재의 명칭과 옛 명칭이 혼용되어 사용되는 등 2개 이상의 명칭이 있는 경우, **등록 명칭은 1개만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등록문화재의 종류에 따른 부여 기준(제4조)의 특징적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제4조 ①항은 이미 널리 알려져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해당 문화재의 특징을 잘 반영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규정함
 - 이는 지명표준화 원칙 “4.(2) 지역의 정체성, 역사성, 문화유산 및 장소의 의미를 반영하는 지명”에 수렴하는 내용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제4조 ①항은 또한 국민 정서에 맞지 않아 해당 문화재의 명칭으로 쓰기에 부적합한 경우 그 문화재의 특징 등을 잘 나타내는 새로운 명칭을 부여할 것을 규정함

- 이는 지명표준화 원칙 “5.(2) 부정적인 어감의 지명을 배제”한다는 원칙과 부합함
- 동산 유물과 관련한 ②항의 경우 지명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내용일 수 있으나, 2.의 ‘장소적 의미’나 ‘발견된 장소’의 의미가 중요하여 문화재 명칭에 반영해야 하는 경우 지명법 및 지명표준화 원칙 등과 연동하여 고려될 수 있는 사항임

등록문화재의 명칭 부여 지침

제정 2013년 7월 4일 문화재청 예규 제122호
 일부개정 2016년 3월31일 문화재청 예규 제163호

제4조(등록문화재의 종류에 따른 부여 기준) 등록문화재의 종류에 따른 명칭 부여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건축물, 시설물, 묘소, 터, 담장 등(이하 ‘건축물’ 이라 한다)

1. 등록문화재(건축물)의 등록 명칭은 「소재지 + 고유 명칭」으로 한다.

가. 일반적인 경우는 「시·도(시·군·구) + 고유 명칭」으로 한다.

나. 고유 명칭이 다른 지역에도 있을 수 있거나, 마을에 소재하는 가옥 등 리·동을 함께 표기하여야만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도(시·군·구) + 리·동(마을) + 문화재 명칭」으로 한다.

다. 고유 명칭에 지역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역명을 생략할 수 있다.

라. 고유 명칭이 국가를 상징하는 문화유산이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역명을 생략할 수 있다.

마. 건축물이 2개 이상의 지역에 걸쳐 있거나, 연관이 있는 경우 지역명을 생략할 수 있다.

2. 고유 명칭이 과거와 현재가 다를 경우 이미 널리 알려져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해당 문화재의 특징을 잘 반영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한다.

3. 고유 명칭이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아 해당 문화재의 명칭으로 쓰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문화재의 특징 등을 잘 나타내는 새로운 명칭을 부여한다.

4. 가옥 등 등록문화재(건축물)의 고유 명칭이 없는 경우에는 문화재의 **건축적 형식이나 특징, 용도 등을 감안**하여 부여한다.

② 동산

1. 일반적인 경우에는 「유물명」만을 부여한다. 다만, 일반적인 「유물명」 명칭으로 논란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소)분류명+유물(명)」로 한다.

2. 장소적 의미나 **발견된 장소**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가. 장소적 의미의 소장처(소재지)가 중요하거나 함께 쓸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장처(소재지)명 + 유물(명)」로 한다.

- 나. 발견된 장소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경우에는 「발견 장소 + (발견) + 유물(명)」로 한다.
- 3. 소장자 또는 특정 인물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 가. 소장자(개인·단체·기관)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경우에는 「소장자(개인·단체·기관) + (소장) + 유물(명)」로 한다.
 - 나. 특정 인물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물명 + 유품·유물(명)」로 하되, 별도의 유품(유물)의 명칭이 없는 경우 「인물명 + 유품(유물)」으로 한다.
- 4. 역사적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건명 + 유물(명)」로 한다.

- 등록 명칭의 변경과 관련한 제5조의 경우 지명법의 공통적, 포괄적 사항과 연동할 수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현재 쓰이는 명칭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①항), 행정 구역이 변경되더라도 명칭은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②항)을 규정함
 - 이는 지명표준화 원칙 “2. 현존 지명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변경 또는 폐지하지 않음”과 일치함
 - ③항은 분쟁의 우려 및 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하여 명칭을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었지만 이의 조정에 대한 구체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미비한 실정임

등록문화재의 명칭 부여 지침

제정 2013년 7월 4일 문화재청 예규 제122호
일부개정 2016년 3월31일 문화재청 예규 제163호

제5조(등록 명칭의 변경) 등록문화재의 명칭을 변경할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① 이미 등록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는 명칭은 **현재 쓰이는 명칭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명칭의 대표성이 결여되거나 새로운 사료 등의 발견으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역사적 고증과 학술적 검토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 ② 등록 당시의 **행정 구역이 변경되더라도 명칭은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문화재의 특성상 변경된 행정 구역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변경 요구가 있는 경우 역사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 구역 명칭을 변경**할 수 있다.
- ③ 등록문화재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역·단체 등 **이해 관계자 간에 분쟁의 우려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기타 **행정적·교육적 제반 여건과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 그밖에 등록문화재의 명칭 부여 지침은 제6조를 통해 “등록문화재의 명칭이 해당 문화재 특성과 역사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7 자연공원의 명칭: 『자연공원법』

- 자연공원의 명칭에 대한 언급은 자연공원법 제6조, 제17조의3, 제36조의3 및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3조, 제22조의2 등에 서술되어 있음
 - 자연공원은 공원관리청에 의해 명칭이 최초 부여되며, 이후 10년에 한 번씩 공원의 보전·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 자연공원의 명칭을 포함하여 검토하도록 규정함(제6조, 제17조의3)
 - 지질공원은 환경부장관이 인증할 때 명칭을 포함하여 고시할 것을 규정함(제36조의3)
 - 그러나 명칭을 부여하는 절차와 명칭 결정에 고려해야 할 요소, 명칭에 관한 타 기관과의 협력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바가 없음

자연공원법 [시행 2019. 1. 17.] [법률 제15830호]

환경부(자연공원과)

제6조(자연공원 지정의 고시)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지정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공원의 명칭**, 종류, 구역, 면적, 지정 연월일 및 공원관리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 및 지적도를 고시하는 경우 그 작성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의3(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 ① **공원관리청**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공원계획에 연계하여 **10년마다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중략]
- ② **공원관리청**은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작성하여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지역단체 등의 의견을 들은 후 관할 군수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자연공원의 명칭 및 면적 [중간 생략]

제36조의3(지질공원의 인증 등)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질공원을 인증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질공원의 명칭**, 구역, 면적, 인증 연월일 및 공원관리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⑧ 하천 명칭: 『하천법』

- 하천 명칭은 하천법 제7조, 제10조와 하천법 시행령 제5조의2, 하천법 시행규칙 제3조 등에 의해 언급되어 있음
 - 국가하천의 지정(명칭 제정 포함)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침(제7조 4항)
 - 지방하천 지정의 경우(명칭 제정 포함), 시·도지사가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료함(제7조 4항)
 - 하천법 시행령 제5조의2는 지방하천의 경우 하나의 하천을 2개 이상의 명칭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함
 - 이는 지명표준화 원칙 “1. 1개의 객체에 1개의 표준화된 지명을 부여” 하는 원칙과 일치함
 - 이 조항을 제외하고는 하천 명칭을 지정하는 절차와 명칭 결정에 고려해야 할 요소, 하천 구역의 결정·변경 또는 폐지의 경우 지역주민 의견 청취의 방법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하천법 시행령 [시행 2019. 2. 15.] [대통령령 제29515호]

국토교통부(하천계획과), 환경부(수자원관리과)

제5조의2(지방하천의 지정)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지방하천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국가하천의 기점 또는 지방하천의 기점과 연결하는 지방하천의 종점은 국가하천의 기점 또는 지방하천의 기점과 일치하도록 할 것
2. 하나의 하천을 2개 이상의 명칭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것
3. 공유수면의 매립 등으로 해안선이 변경될 경우 하천의 종점을 변경하도록 할 것

9] 종합 및 시사점

- 앞에서 살펴본 각 명칭 관련 법률 사항들은 향후 지명법이 갖춰야 할 요소들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함
- 다음의 항목에 관한 고려가 필요함
 - 지명법의 법률적 위치와 소관 부처
 - 지명법에서 다루는 명칭의 범위 정립
 - 각 명칭이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보편성, 구체성, 적절성, 일관성 확보
 - 각 명칭을 다루는 위원회와 기존 지명위원회와의 관계 설정

① 지명법의 법률적 위치와 소관 부처

- 현재 국내 각 지형물의 명칭 관련 법률들은 그 종류에 따라 개별적으로 존재하며, 이를 포괄적으로 수용할 명칭 관련 법률은 부재한 상황임
- 명칭의 종류별 특성에 따라 소관 부처가 나뉘어 있으며(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문화재청, 환경부), 각 명칭의 독특한 특성과 맥락에 기반하여 관리되고 있음
- 따라서 통합된 지명 법제의 추진을 위해서는 그 법률적 위치와 소관 부처, 관리의 위상 등에 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임
- 이 경우 동일 선상의 지위를 가지는 다른 행정부처와의 관계 설정과 역할 분담, 법률의 위상 정립 등이 선결되어야 할 과제로 등장함

② 지명법에서 다루는 명칭의 범위 정립

- 현재 국토에 존재하는 지형물의 명칭은 종류별 특성에 의하여 각 소관 부처의 업무 범위에 맞추어 부여되고 관리되어 왔음

- 따라서 이러한 명칭을 아우르는 통합된 지명법을 제정한다고 한다면 현재의 관리체계를 초월하는 효과가 충분히 인식되어야 할 것이며, 이것이 통합 지명법 제정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임
- 이것은 통합된 지명법이 포함하고자 하는 명칭의 범위 설정과 연결될 것임. 행정 지명, 인공시설물(고속도로, 철도 관련 등)의 명칭, 도로명, 하천명 등은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지명의 요소가 강하다고 하더라도, 문화재 명칭까지 아우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함

③ 각 명칭이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구체성, 적절성, 일관성 확보

- 앞서 정리한 각 명칭에 대한 규정에서 보듯이,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명칭에 관한 원칙이 있다는 것은 이들 규정의 통합 또는 상호 참조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1객체 1명칭, 현존 지명 유지, 전문가 의견 반영, 지역의 정체성, 역사성, 문화유산 및 장소의 의미를 반영하는 지명, 부정적인 어감, 동일 지명, 편의에 지장을 주는 지명 등의 배제, 행정 절차의 활용 및 갈등 지명 배제 등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원칙임

※ 표 8 참조

- 따라서 향후 통합 지명법 추진에 있어서는, 이러한 명칭에 관한 보편적인 원칙을 최대한 확대하면서 적절한 원칙을 각 성격의 특성에 맞게 일관성 있게 구체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이 과정에서 각 명칭의 특수성에 기반한 예외적인 측면들을 포용하는 것은 중요한 향후 과제도 등장함(예: 도로명주소법의 명예도로명 부여와 상업화의 동기에서 비롯된 지명 배제 원칙과의 상충 문제)
- 보편성과 더불어 각 종류의 명칭이 갖는 특수성과 상황적 위상을 포괄적으로 아우르고 세세한 맥락까지 관통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을 발전시키는 것도 논의되어야 할 사항임

<표 8> 지명표준화 관련 국내 법제에서 고려하는 명칭 선정 원칙

명칭의 종류와 법제	명칭 선정 원칙	지명표준화편람(제3판)에 의한 지명표준화 원칙
행정 지명 『지방자치법』	• 가급적 기존 명칭을 유지함	• 원칙2. 현존 지명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변경 또는 폐지하지 않음
	• 하위 단체의 경우 자치적 결정 과정에 의해 명칭을 결정함	• 원칙4(1). 현지에서 현재 불리고 있는 지명을 선정함
철도 관련 명칭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 철도시설관리자가 제안한 노선명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종 지정	• 원칙7,8,9. 상위 지명위원회에서 최종 승인함
	• 기존의 철도 노선 명칭을 가급적 유지함	• 원칙2. 현존 지명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변경 또는 폐지하지 않음
	• 역명의 제·개정 시 해당 지역과 깊은 연관성이 있으며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함	• 원칙4(1). 현지에서 현재 불리고 있는 지명을 사용함 • 원칙4(2). 지역의 정체성, 역사성, 문화유산 및 장소의 의미를 반영하는 지명을 사용함
	• 공적 조직이 아닌 특정 사조직의 홍보에 사용될 수 있는 명칭을 배제함	• 원칙5(3). 상업화의 동기에서 비롯된 지명을 배제함
	• 역명의 가독성 및 사용의 편리함을 고려함	• 원칙5(1). 현대국어 사용의 관습에서 벗어난 지명을 배제함 • 원칙5(6). 지나치게 길어서 사용자의 편의에 지장을 주는 지명을 배제함
도로 명칭 『도로명주소법』	• 도로명 부여 기관들은 해당 지역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 장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원칙3. 지역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며, 지역 내 구성원과 지명 전문가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함
	• 도로명은 지역적 특성, 역사성, 위치 예측성, 영속성, 지명, 지역 주민의 의견 등을 고려해 결정	• 원칙4(2). 지역의 정체성, 역사성, 문화유산 및 장소의 의미를 반영하는 지명을 사용함
	• 시·군·구 내에서 같은 도로명을 중복하여 부여하지 못하며, 시·군·구가 다른 경우에도 연결도로가 아니면 해당 도로구간의 반경 5km 이내에서는 같은 도로명을 부여할 수 없음	• 원칙5(5). 동일 지명이 가까운 거리에 있어 혼돈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지명을 배제함
	• 지명, 마을이름, 역사적 인물의 이름 및 희생·공헌자, 유적과 문화재의 이름, 상징성 있는 공	• 원칙4(2). 지역의 정체성, 역사성, 문화유산 및 장소의 의미를 반영하는 지명을 사용함

	공시설물의 이름 등을 반영할 수 있음	• 원칙6. 생존 인물의 이름은 배제, 사후 10년 이상 인물의 이름 사용가능
문화재 명칭: 『등록문화재의 명칭 부여 지침』	• 문화재의 가치와 특징을 잘 나타내고 영구적으로 불릴 수 있는 명칭을 선정함	• 원칙4(2). 지역의 정체성, 역사성, 문화유산 및 장소의 의미를 반영하는 지명을 사용함
	• 명칭의 결정은 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따르도록 함	• 원칙3. 지역 내 구성원과 지명 전문가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함
	• 역사 인물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음	• 원칙6. 생존 인물의 이름은 배제, 사후 10년 이상 인물의 이름 사용가능
	• 1개의 등록 명칭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원칙1. 1객체에 1지명을 부여함
	• 이미 널리 알려져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칭, 해당 문화재의 특징을 잘 반영하는 명칭을 사용함	• 원칙4(2). 지역의 정체성, 역사성, 문화유산 및 장소의 의미를 반영하는 지명을 사용함
	• 국민 정서에 맞지 않아 해당 문화재의 명칭으로 쓰기에 부적합한 경우, 그 문화재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새로운 명칭을 부여함	• 원칙5(2). 부정적인 어감의 지명을 배제함
	• 현재 쓰이는 명칭을 유지, 행정구역이 변경되더라도 명칭은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원칙2. 현존 지명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변경 또는 폐지하지 않음
하천 명칭 『하천법』	• 하나의 하천을 2개 이상의 명칭으로 지정하지 않음	• 원칙1. 1객체에 1지명을 부여함

④ 각 명칭을 다루는 위원회와 기존 지명위원회와의 관계 설정

- 관련 법률들은 명칭의 부여 및 관리를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항들을 명시하고 있음
 - 명칭을 직접 다루는 위원회로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지명위원회와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명위원회,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에 의한 역명심의위원회, 『도로명주소법』에 의한 도로명주소위원회
 - 명칭을 직접 다루지 않지만 관여할 자격이 있는 위원회로서 『도로법』에 의한 도로정책심의위원회,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위원회, 『하천법』에 의한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와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등
- 이 중에서 명칭의 선정 원칙에 기반하여 결정을 내리는 위원회는 소수이며, 대부분은 명칭 선정과 관련된 행정 절차를 다루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위원회에서 명칭을 다루는 절차와 원칙을 기존 국가지명위원회와 시·도 지명위원회 및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지명 선정에 적용하는 절차와 원칙의 위계를 적절히 설정해야 할 것임
 - 포괄적 지명법이 어느 수준과 범위에서 명칭 제정에 관한 지침을 부여할 수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임

(2) 지명표준화 관련 법제화 현황 국외 사례 조사 분석

① 연구의 배경

- 지명표준화를 위한 세계 각국의 노력은 지명표준화 관련 법제화를 통해 실천되고 있음
- 지명표준화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일환으로 대한민국 역시 편람의 작성, 법제화 현황 조사, 국가지명위원회의 설치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하지만 아직 지명표준화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포괄적 법제화는 마련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
- 지명표준화 관련 법제화 제정 작업은 향후 지명표준화의 법적 구속력을 마련하고 일관성 있는 지명 부여의 표준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음
- 이러한 차원에서 향후 대한민국 지명법 제정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본 과업은 해외의 지명표준화 관련 법제화 사항을 참고하고 지명표준화의 법제화와 관련한 시사점을 마련

② 연구의 목적

- 본 파트는 상기에서 제기된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을 토대로 해외의 지명표준화 관련 법제화의 전반적 추세를 파악하고 국내 지명법 마련을 위한 참고사항을 마련함
- 해외 국가들의 지명표준화 법제 사항들은 각국의 사회문화적 상황과 정치적 맥락하의 고유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운데 본 파트는 대한민국의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외국의 사례를 분석함에 그 목적이 있음
- 따라서 해외 법제화를 분석하는 작업은 외국의 법제화 사례와 대한민국의 지명표준화 조건이 가진 차이를 이해하는 작업을 동반할 것이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법제화에 적용될 수 있는 해외 사례의 시사점을 추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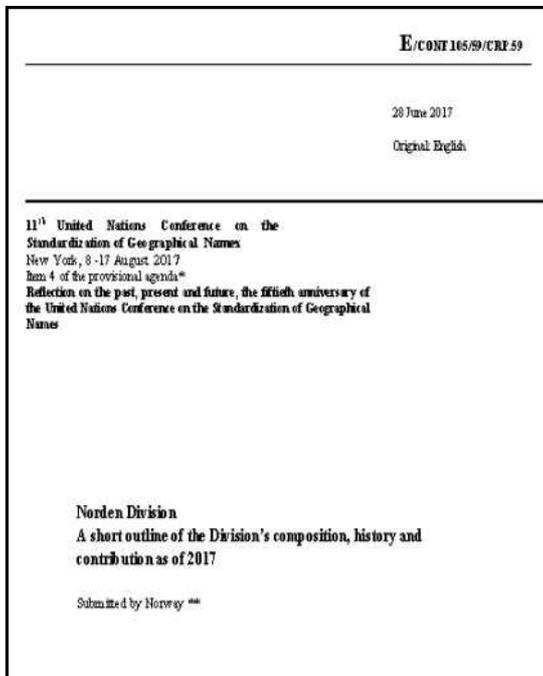
③ 연구 방법

- 지난 UNCSGN 및 UNGEGN 총회에서 제시된 워킹페이퍼 및 법제 관련 논문을 참조하여 국외 지명표준화의 법제화 현황을 조사
- 해당 조사를 위해 활용된 워킹페이퍼의 종류와 분석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제10차 UNCSGN 총회 및 제27차 UNGEGN 회의(2012)
 - 해당 회의에서 참가국들은 총 203개의 워킹페이퍼를 발표함으로써 각국의 지명 관리 현황에 대해 논의하였음
 - 이중 각국의 지명 관련 법제 사항 및 제도적 절차 등에 관한 페이퍼를 통해 최근의 국제 지명 관리 추세에 관한 실마리를 포착
- 제29차 UNGEGN 총회(2016)
 - 2016년 유엔지명전문가회의에서 발표된 85개의 워킹페이퍼 중 국가별 지명표준화 관련 법제 내용을 분석하고 검토
 - 2012년 회의의 발표들과 비교·분석함으로써 최근의 지명표준화 동향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
- 제11차 UNCSGN 총회 및 제30차 UNGEGN 회의(2017)
 - 기존 유엔지명회의 체제 중 가장 최근에 개최된 회차의 워킹페이퍼를 분석함으로써 지명 제정 법제화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 각 언어별, 지역별 디비전의 워킹페이퍼(그림 6)를 분석하여 각 지역의 맥락에 따라 지명 제정의 현황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 국내의 지명표준화에 대한 참고사항을 제공 ※별첨 7 참조
- 제1차 신 유엔지명전문가그룹(new UNGEGN) 총회(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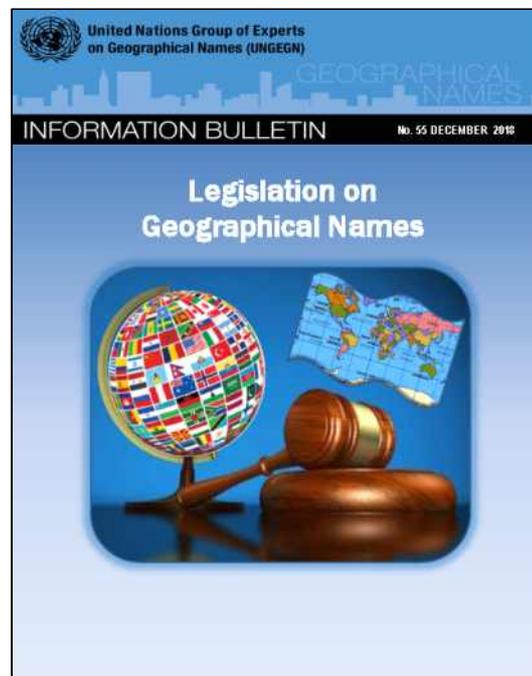
- 제1차 신 유엔지명전문가그룹(new UNGEGN) 총회에 제출된 워킹페이퍼 중 지명표준화 관련 법제화 부분을 기존 회의(2012, 2016, 2017년)의 워킹페이퍼 내용과 비교 분석하여 변동사항 및 개정 여부를 검토

○ UNGEGN Information Bulletin(2018)

- 해당 회보에는 세계 10개국(아르헨티나, 사이프러스, 이집트, 핀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페루, 사우디아라비아, 스페인, 스웨덴)의 지명 관련 법제화 현황 및 사례가 설명되어 있으며(그림 7) 이를 국내의 사례와 비교·분석함은 국내 지명표준화 및 지명법 제정의 시사점을 제공 ※별첨 8 참조



<그림 6> 북유럽 워킹페이퍼
E/CONF.105/59/CRP.59



<그림 7> 2018 UNGEGN Information Bulletin 법제화 관련 문서

- 국외 사례 조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지명의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한 지향점 및 비전 도출

4 각 국의 지명표준화 법제화 현황

① 아르헨티나

- 1917년 아르헨티나는 해군(Argentine Navy)과 중앙수로국(Central Office of Hydrography) 간의 지명 업무 조정을 위해 지명표준화 법률 제정
- 1950년 지리조정위원회(Geographical Coordination Commission) 설립
- 1941년과 1954년에 걸친 법률 개정을 통해 국립지명관리차트를 국립지리원(National Geographic Institute)과 해군수로과(Argentine Naval Hydrographic Service)에 의해 공동으로 관리케 함
- 1942년 아르헨티나 해군은 지명표준화 지침을 위한 정부 출판물 “지명제정 정책”을 제작하였음
- 1978년 국방부는 수로국의 요청에 의해 “극지역 지명제정 정책”을 출간하여 지명제정 절차 및 수정, 지형지물 지명의 분류 등을 적시함
- 1972년 이래로 아르헨티나 해군수로부(Argentine Naval Hydrographic Service)는 수로법(Hydrographic Law)에 근거하여 국립지리원(National Geographic Institute)과의 협력 하에 아래와 같은 지명 원칙을 마련함
 - (1) 개인의 이름은 성(surname)만을 지명에 활용
 - (2) 생존자의 이름은 사용하지 않음
 - (3) 탐험가의 가족이나 친구의 이름은 사용하지 않음
 - (4) 스폰서 및 후원기업의 이름은 사용하지 않음
 - (5) 외국 탐험가에 의해 부여된 지명은 오랜 기간 사용 관습에 따라 승인될 수 있음
 - (6) 아르헨티나 공식 지명 차트에 등재되지 않거나 역사적 정통성, 혼란의 여지 등이 있는 경우 교체될 수 있음
 - (7) 지명의 교체는 역사적 정통성 등을 근거로 하여야 함

(8) 묘사명칭(descriptive names)은 항해의 도움이 되는 경우 승인되며 예외적 명칭은 사회적 합의가 있을 경우 승인됨

- 종합하여 볼 때 아르헨티나 국내 지명은 군 조직에 의해 주도된 지리조정위원회에서 승인 되어왔음을 알 수 있음
- 또한 아르헨티나의 지명 관련 법제 사항은 해군 및 국방 관련 정부 기관에 의해 주도됨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남극 지역의 해상 통제권을 고려한 결과라 볼 수 있음

② 사이프러스

- 1967년 지명표준화상설위원회(the Cyprus Permanent Committee for the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 CPCSGN) 설립
- 이는 내각 관료의 모임에서 결정된 사항에 의해 설립된 유일한 지명 기관이며 지명에 대한 주관기관은 교육문화부(the Minister of Education and Culture)임
- 지명위원회 구성에 관한 법률 Law N. 66(I)/19989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 (1) 교육문화부는 법률 N. 66(I)/19989을 통해 CPCSGN의 의장과 9명의 구성원을 임명할 수 있음
 - (2) 지명위원회(CPCSGN)는 5개 영역(역사, 언어, 고고학, 문학, 지도학)의 데이터와 민간 지역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각 지명들의 제정에 관여
 - (3) 또한 교육문화부는 사이프러스 대학교(the University of Cyprus) 학자들이 주축이 된 5명의 자문위원회를 임명할 수 있음
 - (4) 지명위원회의 결정이 모두 최종결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관련 규약들이 의회에 의해 승인되어야만 받아들여질 수 있음
- 지명표준화 절차에 관한 법률 K.Δ.Π. 443/2001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 (1) 지명위원회는 상기 규정에 근거하여 지명표준화를 심사하고 평가함

- (2) 소위원회(sub-committee)는 각자의 임무에 따라 출판, 표준화 및 음역(transliteration), 배포, 웹사이트 유지 관리, 지명집 업데이트 등의 업무에 관여
- (3) 위원회 의원은 매 2년마다 선정
- (4) 지명위원회는 문화교육부의 예산에 의해 운영됨
- 지명표준화에 관한 추가적 법률 Law N.71(I)/2013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 (1) 해당 법률은 기존 지명표준화 법률의 보완을 위해 2013년 새롭게 추가
 - (2) 공식 지명집의 표기에 부합하지 않거나 위원회의 방침에 맞지 않는 지명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음
 - (3) 해당 규정을 어기는 지도집을 제작하는 사람에게는 필요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0유로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추가적으로 사이프러스는 공간정보인프라(Spatial Data Infrastructure, SDI) 구축에 관한 유럽연합의 방침을 준수하기 위해 법률 Law 43(I)/2010을 제정하고 표준화된 지명을 제공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
- 종합해 봤을 때 사이프러스는 과거 그리스의 문화적 영향과 터키의 지배권 하에 사용되었던 지명의 혼재를 정리할 필요가 제기되었고 이를 법률에 근거하여 강력하게 지명표준화를 진행했다고 볼 수 있음

③ 이집트

- 이집트의 경우 중앙 정부에 의해 설립된 위원회(Central Agency for Public Mobilization and Statistics, CAPMAS)가 각 정부 부처 및 지자체, 민간 지도제작자들의 지명 사용과 제정에 관여함
- 각 정부 부처와 기관들은 CAPMAS 산하의 중앙통계과(Central Statistical Department)에 대표를 참여시킴
- 각 기관의 대표들은 CAPMAS를 통해 지명에 관한 결정 사항을 의결하고 평가함

④ 핀란드

- 핀란드의 경우 지명에 관계된 하나의 국가 기관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특정 법률에 근거하여 지명표준화와 관련한 인사를 임명해오지 않았음
- 이에 따라 지명표준화와 관련하여 다양한 혼란이 발생했으며 이에 대한 문제 인식으로 최근 2011년 핀란드언어협회(Institute for the Languages of Finland)와 국립국토조사부(National Land Survey of Finland)는 지명표준화와 관련한 법안 및 책임기관의 설립을 제안

⑤ 뉴질랜드

- 뉴질랜드는 1946년 뉴질랜드 지리위원회 법률(New Zealand Geographic Board Act 1946)을 제정하였으며 2008년 개정(New Zealand Geographic Board Act 2008)을 통해 지명표준화와 관련한 법률 체계를 대대적으로 수정하였음
- 1946년 이전에는 옛 영국 지배 당시의 법안들이 그대로 남아있어 지명표준화에 대한 현대적 대응 방안을 지원할 수 없었고 지명표준화 작업에 있어 중심이 되는 기관 없이 혼란을 가중시키는 상황이었음
- 1946년 법률이 다루는 사항은 다음과 같음
 - (1) 지명위원회의 구성
 - (2) 원주민 지명의 적용
 - (3) 지명표준화 절차의 현대화
 - (4) 지명모음집의 출판
 - (5) 지명표준화 절차 위반시의 처벌
 - (6) 지명위원회의 역할 적시
- 2008년의 법률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고려하여 개정됨
 - (1) 새로운 지명표준화 실천은 국제법과 국제 지명표준화 결의안을 준수

- (2) 국가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역사적, 문화적 지명의 차용
 - (3) 지명표준화의 절차적 권한을 가진 기관의 설립 촉구
 - (4) 원주민 거주 지역의 통치 기관에 지명표준화와 관련한 권력을 이양
 - (5) 뉴질랜드 지리위원회 산하 지명 기구들은 연간 1회에서 2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현재 벌어지고 있는 지명 관련 현안 및 해결 방안을 테마별로 논의
- 종합하여 보자면 뉴질랜드의 경우 영국 식민 지배의 유산과 원주민 지명으로부터 오는 절차적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이를 중앙에서 통제할 지명위원회의 설립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최근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지명과 관련한 법률 사항은 사회문화적 변화를 늘 감지하며 이에 부응하기 위한 법률 내용의 변화를 수반해야 함을 시사
 - 이를 위해 지리위원회는 지명 기구 회의의 상설화를 통해 지명 현안의 꾸준한 모니터링 및 연구를 진행

⑥ 노르웨이

- 노르웨이 지명 법률(Norwegian Place Name Act, NPA)은 1990년 제정, 1991년 배포되었음
- (1) 지명의 문화적 정체성 보존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각 지자체가 지명을 제정할 때 준수해야 할 법률적 원칙을 제공
- (2) 해당 법률은 복수 언어로 구성된 지명, 역사적 지명 변경에 대한 규제, 스펠링의 규정 등에 관하여 다룸
- 해당 법률은 노르웨이 문화사업부(Ministry of Cultural Affairs)의 리뷰를 거쳐 적용되며 이 정부 부처는 지명 관련 기관의 재정 지원도 담당함
- 노르웨이는 중앙지도기관(Norwegian Mapping Authorities)을 설립하여 기존 지명의 스펠링을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해왔음

- 노르웨이 지명 법률에 따르면, 지자체들이 행하는 모든 지명 개정 사업들은 중앙지도기관에 보고되어야 함
- 지명이 표준화되기 전에 모든 사안들은 노르웨이 언어위원회(Norwegian Language Council)의 컨설팅을 거쳐야 함
- 사미족(the Sami)의 지명은 사미인들로 구성된 의회의 승인을 거침
- 종합하여 보자면 노르웨이는 이민족의 지명은 독자적인 지명표준화 절차를 존중해주지만 이로 비롯될 스펠링 상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중앙에서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지명표준화의 권위적 기관을 마련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⑦ 사우디아라비아

-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명표준화에 관한 왕가의 칙령(Royal Decree)을 2013년 반포함
- 2018년에는 장관협의회(Council of Ministers)에 의해 지명표준화 법령 no. 318을 마련하기도 하였음
- 해당 법률은 향후 지명표준화 업무가 전적으로 중앙지명위원회(National Committee on Geographical Names in the Kingdom of Saudi Arabia, NCGN)에 귀속된다는 내용을 명시함
- 중앙지명위원회는 UNGEGN Arabic Division의 개최를 주도하였으며 지명표준화에 직간접적으로 관여 중인 15개의 중앙정부기관들의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함
- 중앙지명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음
 - (1) 국가 내 지명을 수집하고 반포하며 지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 (2) 아라비아어를 로마자화하는 데 있어 표준화된 형식 마련
 - (3) 언어학자 및 역사학자 등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적용

(4) 유엔 지명전문가회의 등과 같은 국제회의에 아라비아어 디비전의 대표를 파견하고 국제지명표준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

- 중앙지명위원회의 재정은 왕가에 의해 충당되며 사우디 왕가는 지명위원회의 전문적 업무 수행을 위해 학계의 전문가와 연구자들을 섭외하는 역할도 담당
- 사우디아라비아의 중앙지명위원회가 왕가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라비아 디비전의 역할을 국제적으로 선도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접근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가의 역량을 강조하는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음

⑧ 스페인

- 스페인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이질적 방언에 의해 형성된 지명을 존중하는 편이며 이를 Article 137에서도 적시하고 있음
- 해당 법률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지명을 제정하는 데 있어 독립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며 각 지역의 방언을 사용한 지명을 제정할 수 있음
- 다만 유럽연합에 속해 있는 스페인의 사정과 국제적 지명표준화 방침에 따라 스페인은 각 지자체의 지명위원회로 하여금 공식 지명집에 포함될 지명의 스펠링을 하나로 공식화하도록 조치함
- 또한 스페인 내부의 방언이 다양함에 따라 스페인은 지명표준화를 위한 특별위원회(Specialized Committee for Geographical Names)를 마련하여 중앙과 지방의 지명 기관을 총괄하고 대학과 같은 교육 기관의 전문가들을 섭외하여 지명표준화지침편람(Summary of Spanish Legal Frame in Geographical Names)을 제작하였음
- 해당 편람은 지명 제정에 영향을 줄 규정들에 대한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편찬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지명 제정에 관한 강력한 원칙을 제공하는 것은 아님

⑨ 스웨덴

- 2000년 스웨덴은 역사환경법률(Swedish Historic Environment Act)을 통해 지명을 문화적 유산으로 접근하는 정책적 방향을 설정하였으며 중앙 및 지방의 행정가가 임의대로 지명을 제정하는 것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함
- 스웨덴은 1980년대까지 지명에 관한 법률 대신 “지도, 지적, 토지 등에 관한 등록 기관(Swedish Mapping, Cadastral and Land Registration Authority, Lantmäteriet)에 지명 업무를 귀속시킴
- 1985년 스웨덴은 지명자문기구(Place-Name Advisory Board of Sweden)의 설립을 통해 지명 제정에 관한 중앙의 업무를 어느 정도 강화하였다고 볼 수 있음
- 이는 지명을 문화유산으로 접근하는 중앙 정부의 기조에 발맞추기 위한 실천으로 해석될 수 있음
- 스웨덴의 지명 관련 법률은 다음과 같은 사안을 명시
 - (1) 특별한 이유 없이 지명이 변경되는 사례 지양
 - (2) 지명의 정확한 표기법 강조
 - (3) 사미 언어, 핀란드어, 북부 스웨덴 소수민족의 언어(Meänkieli) 등으로 이뤄진 지명은 스웨덴어와 함께 지도에 표기
 - (4) Lantmäteriet에 의해 공식적으로 제정된 지명은 어느 상황과 맥락을 막론하고 임의대로 변형되어 사용되어서는 안 됨
- 그 외 스웨덴의 지명 관련 기관은 다음과 같음
 - (1) 스웨덴의 방언 지명과 관련한 법률은 국가유산위원회(Swedish National Heritage Board)의 감독 하에 운영
 - (2) 언어 및 민속 협회(Institute for Language and Folklore)는 스웨덴 정부 기관으로서 방언 지명의 연구를 지원

- (3) Lantmäteriet에 의해 구성되는 지명자문위원회(Place-Name Advisory Board)는 지명 관리에 관한 전반적 자문위의 역할을 담당함
- (4) 지명자문위원회는 국가 지명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권고안들을 발전 시키며 지명 제정에 관련된 가이드 사항들을 지방의 지명 제정 기관들에 배포함
- 이러한 실천들은 지명을 문화유산으로 접근하며 방언 지명을 존중하고 보존하려는 중앙 정부의 기조를 따른 정책적 방안들이라 해석될 수 있음

⑩ 영국

- 영국은 지명상임위원회(Permanent Committee on Geographical Names, PCGN)가 설치되어 있지만 이는 국외 지명만을 주관하며 국내 지명은 대영육지측량부(Ordnance Survey of Great Britain, 브리튼 섬 주관) 및 토지 재산관리부(Land and Property Services, 북아일랜드 주관)에서 다룸
- 지명과 관련한 두 기관의 주요 업무는 각 지역의 지명 정보를 수집하여 지면 및 온라인 지도에 표준화된 지명을 업데이트 하는 것임
- 네 개의 독립된 지역으로 구성된 영국의 상황과 관련하여 주목할 사실은 웨일스어 및 켈트어 계열의 지명은 웨일스와 스코틀랜드의 지명 기구에서 담당하지만 잉글랜드 및 북아일랜드 지역은 국가적 지명 기구 없이 상기 두 기관에서 지명 업무를 담당한다는 것임
- 켈트어 지명 정책(Gaelic Names Policy) 및 웨일스 지명 계획(Welsh Names Scheme)은 각각 2000년과 2001년에 제정되었으며, 각 지역의 고유 지명 관리를 위한 연락위원회 설치 및 육지측량부와의 협력 사항 등을 명시함
- 방언에 기반한 각 지역의 지명을 존중하는 상기 법안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들을 영어식으로 표준화하고 국가 지도에 표기하기 위해 대영육지측량부와 토지재산관리부는 웨일스 및 스코틀랜드 지역의 지명 기구와 교류하면서 지명 정보를 표기·배포하는 작업에 집중함

- 이를 바탕으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아래와 같음
 - (1) 영국은 지명표준화 및 지명위원회와 관련한 지명 법안은 없지만 지명 표준화의 업무를 두 정부기관(육지측량부 및 토지재산관리부)에 부여함으로써 일관된 지명 정책을 집행할 수 있게 함
 - (2) 새로 생겨나는 장소나 변화하는 지명에 대해서는 절차상이나 원칙상의 언급이 없으며 이는 안정성을 추구하는 영국의 사회 분위기 및 지명 업무를 온전히 정부 기관에 일임하는 추세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3) 잉글랜드 이외의 각 지역이 가진 방언적 지명을 독립된 지역 지명기구에서 담당하고 이를 표준화하는 작업을 중앙의 정부기관에서 수행하는 형태는 방언지명 관리와 관련하여 참고할만한 사항임

⑪ 네덜란드

- 네덜란드는 유럽의 네덜란드어-독일어(Dutch-German) 언어권 지명을 취합하고 데이터화하기 위해 웹 기반의 서비스인 유럽지명집(EuroGeoNames, EGN)과의 협력을 통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네덜란드는 2007년 ‘기초적 지형지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법률’을 통해 지명 관리의 임무를 국립지도제작국(National Mapping Agency)에 이관시킴
- 또한 해당 작업 과정 중에 각 지방자치단체들로 하여금 관할 구역 내 지명을 표준화된 형태로 등록하도록 촉구함
-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아래와 같음
 - (1) 범 한국어권 지명들의 표준화 작업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현재 실현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2) 다만 향후 여건이 조성된다면 지명 법률에서 지명 관리 기구 및 지명위원회를 통해 범 한국어권 지명들의 수집 및 표준화 작업이 이뤄

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준비해야 할 것임

- (3) 이러한 작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네덜란드의 법률은 하나의 사례로 참고할 수 있음

⑫ 오스트레일리아

- 오스트랄라시아 지명위원회(Committee for Geographical Names of Australasia, CGNA)는 1984년 설립된 이래로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서남 태평양제도의 지명 현안을 조율하는 데 주력해왔음
- 이후 2015년 10월 지명상설위원회(Permanent Committee on Place Names, PCPN)로 개칭하여 현재에 이름
- 해당 지명위원회는 기타 전문 영역을 다루는 지명 기구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멤버십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에 속하는 기구들은 아래와 같음
 - (1)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 해양공원청(Great Barrier Reef Marine Park Authority)
 - (2) 오스트레일리아 남극연구소(Australian Antarctic Division)
 - (3) 오스트레일리아 방위 해상자료 및 지질과학 기구(Geoscience Australia Defence Imagery and Geospatial Organization)
 - (4) 오스트레일리아 수로국(Australian Hydrographic Office)
 - (5) 오스트레일리아 지명 조사국(Australian Place names Survey)
- 이러한 멤버십 프로그램은 기타 지명 관련 기구들과의 연합 및 협력을 통해 오스트레일리아 지명위원회에서 다루기 힘든 전문 분야를 커버할 수 있도록 함
- 기타 주목할 사항은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이 사용하던 기존 지명을 영어 지명과 병기하는 작업을 통해 토착 문화에 대한 교육적 기능으로서의 지명을 부각시킨다는 것임

⑬ 이탈리아

- 이탈리아의 지명표준화 작업은 기관 명칭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탈리아 국방·지리원, Italian Military Geographic Institute) 군 조직의 관여 하에 이뤄지고 있음
- 이탈리아 의회는 2008년 6월 항구적 지명위원회 설치를 철폐키로 하고 대신 2012년 3월 이탈리아 국방·지리원을 지명표준화의 주관 기관으로 지정함
- 이러한 이유에 대해 이탈리아의 보고서는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지만 아르헨티나와 마찬가지로 육지 및 해양 영토의 영유권과 지명 문제를 연계하여 인식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명표준화를 실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또한 해당 지명표준화 기구를 통해 지명 교육의 지리 과목 연계 작업을 실천함도 주목할 사항임

⑭ 일본

- 일본은 육상 지도를 관장하는 일본지리정보국(Geospatial Information Authority of Japan)과 해양 지도를 담당하는 일본 해안경비대 해양조사원(Hydrographic and Oceanographic Department of the Japan Coast Guard)의 합동지명표준화위원회(Joint Committee on the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 형태를 취하고 있음
- 또한 학계 전문가와 해양조사기관의 인력으로 구성된 해양지명위원회(Japanese Committee on Undersea Feature Names)를 따로 설치하여 해양 지형지물의 명칭 제정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으며 이 이름들을 GEBCO 및 SCUFN 등 국제 해양조사 조직들에 등재하는 노력을 기울임
- 위 지명위원회들의 구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해양 지명과 해양 주권 문제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한 일본 정부의 노력이라는 사실임

⑤ 종합

- 각 국가들은 자신들이 처한 정치·사회·문화적 특수성과 맥락에 최적화된 지명 법률을 구축해왔음
- 하지만 지명의 각 종류별 주무부처와 관리 기관에 대한 사항은 유엔 보고서 통해 발견하기 어려웠음
- 각 국가의 지명표준화와 지명 관련 법률에 드러난 것은 주로 지명 제정 절차 및 언어의 이중 표기와 같은 근본적 문제로 표준화에 관한 구체적 지침은 아르헨티나 외에는 크게 나타나지 않음
- 각 국가별 지명법제화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시사점들은 주로 지명표준화 조직 문제, 복수의 언어(방언) 처리 문제, 같은 언어집단의 지명 데이터 수집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지명표준화에 관한 구체적 지침은 추후 심층 조사가 필요함

① 중앙 지명위원회 상설 여부

- 많은 국가들은 지명표준화를 위한 중앙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일부 국가들(핀란드, 영국)은 국내 지명표준화를 위한 위원회가 준비되지 않았음
- 핀란드는 그동안 관습에 따라 지명을 제정하여 왔으나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명표준화를 위한 책임기관을 설립할 것을 제안함
- 뉴질랜드의 경우 과거 영국 식민지 시기의 지명들을 관습적으로 따랐으나 현대 사회문화적 조건과의 괴리를 극복하지 못했으며 이를 지명위원회 설립으로 극복하려 하고 있음
- 특히 뉴질랜드 사례에서 주목할 사실은 연간 지명위원회 소집을 특정 지명 제정 현안의 발생과 상관없이 주기적으로 실행한다는 것임(연간 1에서 2회 개최 법률로 명시)
- 이에 더하여 호주는 국내외 지명표준화를 위한 위원회(PCPN)를 상설기

구로 설치하였음

- 중앙지명위원회의 상설화를 통해 각국이 얻고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음
 - (1) 지명 표준화의 지속적인 방향성 유지
 - (2)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학문적 영역으로서의 지명 문제를 토론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3) 일정한 지명 제정 기준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함께 일관된 지명표준화 실현
 - (4) 지명과 관련한 다양한 학문적, 정책적, 민간영역의 의견 주기적 수렴
 - (5) 국내외 지명 제정 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명표준화 실행의 조정 기능
- 이를 통해 지명표준화는 현재의 사회문화적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함을 시사하며 필요에 따라 관련 조직·기구들의 설치 및 구성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해줌

② 중앙 지명위원회와 기타 지명 기구들과의 관계

-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 국내 및 주변국가(뉴질랜드, 서남 태평양 제도) 지명 제정을 담당하는 PCPN(the Permanent Committee on Place Names)을 설치하고 이와 협력하는 다양한 지명조사국, 지질조사 조직, 공원관리청, 수로국, 남극연구소 등과 함께 멤버십 프로그램을 운영
- 상설 지명위원회의 설치와 멤버십 프로그램을 통해 오스트레일리아는 유엔지명전문가그룹(UNGEGN)과의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오스트레일리아 지명집, 남서 태평양·동남아시아 지명집 등의 유엔 기여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이와 같은 활동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시사점은 아래와 같음
 - (1) 지명위원회 역할의 전문성 강화
 - (2) 광범위한 지명 제정 영역을 일원화하여 효과적으로 지명표준화 추진

(3) 각 지명 제정 주체의 분산에 따른 지명표준화 혼란을 막고 국제기구
에의 일관된 기여 달성

③ 방언지명과 병기(dual naming) 현안

- 방언(토착)지명의 존재는 대개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국가 혹은 과거 이
민자에 의해 현재 정치체제가 구성된 국가에서 발견됨
 - 이러한 실천들은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등
주로 유럽 및 서구권 국가들에서 발견되며 이는 그동안의 소수민족 인권
탄압에 대한 반성, 사회적 성숙도, 민주주의의 확립 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음
 - 방언(토착)지명은 많은 국가의 법률에서 보존을 명시하고 있지만 현실적
인 문제로 인하여 실천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
 - 지역 방언 혹은 토착 언어를 토대로 형성된 지명들은 표준화된 언어와
상충되는 부분들이 존재하며 이는 로마자화를 통한 국제 표기법과의 충
돌 등으로 실천하기 어려운 부분이 발생
 - 이러한 충돌을 해결하고 원만한 표준화 표기법을 개발하기 위해 각 국가
들은 지명위원회에 이러한 표기법의 표준화 업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
는 한국에서도 지명위원회의 역할을 명시함에 있어 참고할 사항임
 - 한국적인 맥락에서 고려할 수 있는 국내 지명의 병기 조건과 목적은 아
래와 같음
- (1) 한국은 국내적으로 방언 및 토착 지명의 사례가 호주나 뉴질랜드처
럼 명확히 드러나지는 않지만 몇 가지 사례들은 존재함(예: 대구의
다른 이름인 달구벌)
 - (2) 경우에 따라서는 공식적인 행정지명 외에 토착지명 또한 빈번하게
사용되는 사례도 있음(예: 인천 산곡동은 백마장이라는 지명으로도
인식되고 있음)

- (3) 하지만 지역의 토착지명을 공식화할 경우 행정상의 혼란 및 사회적 비용이 초래될 수 있으며 국민들의 공간 인식에도 혼선이 초래될 수 있음
- (5) 또한 한국은 오스트레일리아나 뉴질랜드처럼 백인/원주민의 확연한 인구 구성 차이가 존재하지 않으며 지명에 따른 갈등 조정의 필요성도 제기되지 않음
- (6) 향후 지명법은 지명표준화의 실용성과 토착지명이 가진 문화적 유산으로서의 상징성 사이에서 적절한 타협점을 모색해야 할 것임

④ 군 조직과의 연계 여부

- 아르헨티나는 과거 군사정권에 의한 국가 통치의 경험이 있으며 남극을 비롯한 해상 영토 주권 행사에 적극적 행보를 보여 왔음
- 특히 국제수로기구의 출범보다 빠른 아르헨티나 중앙수로국 설치와 남극 지역의 해상 지명 제정 움직임 등은 지명을 영토 주권 개념과 동일 선상으로 놓고 바라보는 측면으로 이해됨
- 이탈리아의 경우 국내 지명표준화 작업을 국방지리원(Military Geographic Institute)에 일임함으로써 지명 제정과 영토 주권 확립의 연관성을 시사하는 행보를 보임
- 이는 또한 군 작전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정확한 지리정보 제공의 목적도 내포함
- 더 나아가 일본은 일본 해안경비대 해양조사원의 참여하에 합동 지명표준화위원회를 설치하여 GEBCO 및 SCUFN과의 공조를 공고히 하고 있으며 이는 해양지명에서의 영향력 증대와 해양영토 주권 확립을 이루려는 목적으로 이해됨
- 위 사례들은 향후 국내 지명 법제화에서 해양지명 주관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경우 참고할 수 있음

⑤ 교육 행정 조직의 지명 업무

- 법률적으로 지명 관련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교육부와는 달리 사이프러스는 교육문화부가 주축이 되어 지명위원회를 구성
- 이는 과거 역사적으로 그리스와 터키 문화가 혼재된 상황에서 사이프러스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명을 통해 정립하려는 노력으로 해석됨
- 또한 교육문화부 주관의 지명표준화 작업으로 지명위원회의 구성은 철저히 학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 현재 포괄적 지명법과 그에 대한 소관 부처가 부재한 한국의 상황에서 사이프러스의 사례는 향후 지명법 소관 부처 지정의 한 사례를 제공함

⑥ 같은 언어권의 지명 정보 취합

- 네덜란드는 2007년 ‘기초적 지형지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법률’을 통해 범 네덜란드-독일어권 지명정보의 취합과 데이터화를 국립지도제작국 주도로 추진해왔음
- 비록 국내 지명이 아니더라도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지역의 지명 정보까지 포괄하는 것은 정치적 갈등이 적은 통합 유럽의 사회적 조건이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사료됨
- 이에 반해 한반도의 상황은 비록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만 정치적 입장이 다르고 향후 지명표준화와 관련한 협력도 불확실한 상황이므로 법률적 내용에 북한 지명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논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을 수 있음
- 하지만 향후 북한과의 협력이 실현된다면 북한 지역의 지명 정보 취합과 북한 지명관리 기구와의 관계 설정에 있어 네덜란드의 사례가 참고될 수 있을 것임

⑦ 국가 내 독립된 정치체의 지명위원회와 중앙 지명관리 기관과의 관계

- 영국은 정치적으로 하나의 국가를 이루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잉글랜

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등 독립된 정치체들이 연방형태를 취하고 있음

- 특히 사항으로는 웨일스와 스코틀랜드 지역이 독립된 지명위원회를 운영하며 연방정부의 두 기관(대영육지측량부, 토지재산관리부)은 웨일스와 스코틀랜드의 방언 지명을 영어식으로 표준화하는 작업을 수행
- 이는 향후 방언지명의 관리와 표준화에 있어 참고될 수 있는 사례이며 각 지역의 지명위원회와 중앙 지명표준화 기관과의 관계 설정 및 역할 분담 등을 구상함에 있어 시사점을 제공함

⑧ 정부 간(intergovernmental) 지명위원회 구성

-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서남 태평양제도의 국가들은 지명상설위원회(PCPN)라는 정부 간 지명표준화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 중임
 - 이는 대개 각 국가별로 지명위원회가 설립되어 있음을 비취볼 때 예외적인 정부 간 운영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음
 - 해당 지역의 정부 간 지명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는 배경으로는 지역적으로 사회문화 및 인종의 구성으로부터 오는 현안들이 지역 간 유사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임
 - 향후 동북아시아 지역의 정부 간 지명위원회 설립에 대한 논의가 진전된다면 참고할 만한 사례임
 - 또한 정부 간 지명위원회 형태 외에 다양한 형태의 지명표준화 협력 기구를 마련하는 데도 시사점을 제공하는 사례임
- 해외 각 국가들의 지명표준화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들은 아래 표에 정리되어 있음

<표 9> 해외 지명표준화 사례와 시사점

사례	해당 국가	시사점
중앙지명위원회 상설 여부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1에서 2회의 주기적 소집 • 이를 통해 꾸준한 지명표준화 정책의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음 • 현재의 지명표준화 현안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과 사회적 변화에 따른 원칙 반영을 이룸
중앙지명위원회와 기타 기구들과의 관계	오스트레일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명위원회 역할의 전문성 강화 • 광범위한 지명 제정 영역의 일원화와 효율적 지명표준화 추진 • 지명 기구의 분산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제 기구와의 연계성을 위한 구심점을 마련
방언 지명과 병기 현안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종과 언어 구성이 비교적 균일한 한국과는 비교될 수 있는 사례임 • 다만 문화유산으로서의 지명 개념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사례로는 참고할 수 있음
군 조직과의 연계 여부	아르헨티나, 이탈리아,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 조직의 지명표준화 작업 관여는 영토주권의 확립과 연계됨 • 군 조직에 정확한 지리정보를 제공하는 목적도 존재함 • 군 조직의 지리정보 조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국제 지명표준화 기구와의 연계성을 이루는 데도 고무적 효과를 불러옴
교육행정부의 지명 관리	사이프러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자 중심의 지명위원회 구성 • 흩어진 문화적 정체성을 지명표준화를 통해 회복하려는 움직임
같은 언어권의 지명 정보 취합	네덜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은 언어권의 지명 정보까지 포괄하는 것은 정치적 갈등이 적은 통합 유럽의 사회적 조건이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사료됨 • 같은 한국어어를 사용하지만 한반도의 경우에는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음 • 하지만 향후 북한과의 지명표준화 협력이 진전된다면 사전 구상을 준비하는 데 참고할 수 있음
국가 내 독립된 정치체의 지명위원회와 중앙 지명관리 기관과의 관계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웨일스와 스코틀랜드는 독립된 지명위원회를 운영하며 연방정부의 지명 기관은 웨일스와 스코틀랜드의 방언 지명을 영어식으로 표준화하는 작업을 수행 • 이는 향후 방언지명의 관리와 표준화에 있어 참고될 수 있는 사례이며 각 지역의 지명위원회와 중앙 지명표준화 기관과의 관계 설정 및 역할 분담 등을 구상함에 있어 시사점을 제공함

<p>정부 간 (intergovernmental) 지명위원회 구성</p>	<p>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동북아시아 지역의 정부 간 지명표준화 기구 설립이 추진될 시 참고할 수 있는 사례임 • 동북아시아 지역의 통합된 지명표준화 기구 설립은 지역적 단위에서 국제 지명표준화 기구와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음 • 이 경우 한국의 역할과 포지셔닝 등에 대해 준비해야 할 필요성 제기
--	--------------------------	--

3. 과제의 기대효과

- 본 연구를 통해 제1차 신 유엔지명전문가그룹(New UNGEGN) 총회를 효율적으로 준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었음
 - 우리나라의 지명관리의 성과를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워킹페이퍼를 준비 및 제출하고 국제사회의 지명전문가그룹에 이를 설명할 수 있었음
 - 이를 통해 지명분야 국제적 활동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향후 국제적 지명 활동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을 마련할 것임
-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명관리에 관련된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가 집약된 각종 출판물의 소개 책자를 홍보물로 제작하여 배포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우리의 지명관리 원칙과 관리기법 등을 설명할 수 있었음
 - 이는 국제지명기구에서 우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임
- 국제 지명제정 기준과 절차에 비추어 우리나라 지명제정 원칙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지명제정 절차를 국제기준에 맞추어 검토할 수 있었음
- 각국의 지명표준화 사례를 조사함으로써 국내 지명 법제화를 위한 한계와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추후 고려해야 할 요소 또한 확인하였음

별 첨

xx January 2019

Original: English

**United Nations Group of Experts On
Geographical Names**
First session
New York, 29 April – 3 May 2019

**Draft agenda for the first session of the United Nations Group of
Experts on Geographical Names**

1. Opening of the session.
2. Election of officers.
3. Organizational matters:
 - (a) Adoption of the rules of procedure;
 - (b) Adoption of the agenda;
 - (c) Organization of work, including establishment of subsidiary bodies;
 - (d) Credentials of representatives.
4. Reports of the Chair and the Secretariat.
5. Reports:
 - (a) Governments on the situation in their countries and on the progress made in the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
 - (b) Divisions of the Group of Experts;
 - (c) Working Group on Country Names;
 - (d) National and international meetings and conferences.
6. Cooperation and liaison with other organizations:
 - (a) International organizations;
 - (b)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and Committee of Experts on Global Geospatial Information Management.
7. National and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
 - (a) Names collection, office treatment, national authorities, features beyond a single sovereignty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 (b) Toponymic guidelines for map and other editors for international use.
8. Social and economic benefits, supporting sustainable development, measures taken and proposed for the implementation of resolutions and evaluation of the work of the Group of Experts (Working Group on Evaluation and Implementation).

9. Issues of publicity for the Group of Experts and funding of Group projects (Working Group on Publicity and Funding).
 10. Activities on national standardization in Africa (Task Team for Africa).
 11. Toponymic education (Working Group on Training Courses in Toponymy).
 12. Toponymic terminology (Working Group on Toponymic Terminology).
 13. Geographical names as culture, heritage and identity, including indigenous, minority and regional languages and multilingual issues (Working Group on Geographical Names as Cultural Heritage).
 14. Exonyms (Working Group on Exonyms).
 15. Toponymic data files and gazetteers (data processing and tools, database management, data dissemination: products and services) (Working Group on Toponymic Data Files and Gazetteers).
 16. Writing systems and pronunciation (Working Group on Romanization Systems).
 17. Other toponymic issues.
 18. Arrangements for the second session of the Group.
 19. Other business.
 20. Presentation and adoption of decisions.
 21. Adoption of the report.
 22. Election of officers of the second session.
 23. Closing of the session.
-

21 February 2019

Original: English

**United Nations Group of Experts on
Geographical Names****2019 session**

New York, 29 April–3 May 2019

Item 3 (c) of the provisional agenda*

**Organizational matters: organization of work including
establishment of subsidiary bodies****Organization of work****Note by the Secretariat**

1. The proposed organization of work and times for the 2019 session of the United Nations Group of Experts on Geographical Names has been prepared pursuant to relevant decisions of the General Assembly,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and the Bureau of the Group of Experts in order to facilitate the consideration of agenda items within the time and services allocated to the Group.
2. The first meeting of the 2019 session of the Group of Experts will be convened on Monday, 29 April 2019, at 10.30 a.m. Facilities will be available for two formal meetings each day. Morning meetings will be held from 10 a.m. to 1 p.m. (except on Monday, 29 April, when the first meeting will start at 10.30 a.m.); afternoon meetings will be held from 3 to 6 p.m.

* GEGN.2/2019/1.



Proposed organization of work

<i>Date/time</i>	<i>Agenda item</i>	<i>Programme</i>
Monday, 29 April		
10.30 a.m.–1 p.m.	1. Opening of the session	Opening address by the Chair of the United Nations Group of Experts on Geographical Names Welcome remarks by the Assistant Secretary General for Economic and Social Affairs
	2. Election of officers	Nominations to membership in the Bureau and their consideration by the Group of Experts
	3. Organizational matters	
	4. Reports of the Chair and the Secretariat	Introduction of reports General discussion and summary
	5. Reports	Introduction of national reports General discussion and summary
	5 (a). Governments on the situation in their countries and on the progress made in the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	
3–6 p.m.	5. Reports (<i>continued</i>)	Introduction of national and divisional reports
	5 (b). Divisions of the Groups of Experts	General discussion and summary
	5 (c). Working Group on Country Names	
	5 (d). National and international meetings and conferences	
	6. Cooperation and liaison with other organizations	Introduction of reports General discussion and summary
	6 (a). International organizations	
	6 (b).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and Committee of Experts on Global Geospatial Information Management	
Tuesday, 30 April		
10 a.m.–1 p.m.	7. National and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	Introduction and presentation of documents General discussion and summary
	7 (a). Names collection, office treatment, national authorities, features beyond a single sovereignty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3–6 p.m.	7. (<i>continued</i>)	
	7 (b). Toponymic guidelines for map and other editors for international use	

<i>Date/time</i>	<i>Agenda item</i>	<i>Programme</i>
	8. Social and economic benefits, supporting sustainable development, measures taken and proposed for the implementation of resolutions and evaluation of the work of the Group of Experts (Working Group on Evaluation and Implementation)	Introduction and presentation of documents General discussion and summary
Wednesday, 1 May		
10 a.m.–1 p.m.	Special technical presentation	Presentation on second administrative level boundaries programme
	9. Issues of publicity for the Group of Experts and funding of Group projects (Working Group on Publicity and Funding)	Presentation by the Convenor of the Working Group General discussion and summary
	10. Activities on national standardization in Africa (Task Team for Africa)	Presentation by the Coordinator of the Task Team General discussion and summary
3–6 p.m.	11. Toponymic education (Working Group on Training Courses in Toponymy)	Presentation by the Convenor of the Working Group General discussion and summary
	12. Toponymic terminology (Working Group on Toponymic Terminology)	Presentation by the Convenor of the Working Group General discussion and summary
Thursday, 2 May		
10 a.m.–1 p.m.	Special presentation	Presentation on intangible heritage
	13. Geographical names as culture, heritage and identity, including indigenous, minority and regional languages and multilingual issues (Working Group on Geographical Names as Cultural Heritage)	Introduction by the Convenor of the Working Group Presentation of documents General discussion and summary
	14. Exonyms (Working Group on Exonyms)	Introduction by the Convenor of the Working Group Presentation of documents General discussion and summary
3–6 p.m.	15. Toponymic data files and gazetteers (data processing and tools, database management, data dissemination: products and services) (Working Group on Toponymic Data Files and Gazetteers)	Introduction by the Convenor of the Working Group Presentation of documents General discussion and summary

<i>Date/time</i>	<i>Agenda item</i>	<i>Programme</i>
	16. Writing systems and pronunciation (Working Group on Romanization Systems)	Introduction by the Convenor of the Working Group on Romanization Systems Presentation of documents General discussion and summary
Friday, 3 May		
10 a.m.–1 p.m.	Special presentation	Presentation on disaster risk reduction and management
	17. Other toponymic issues	General discussion and summary
	18. Arrangements for the 2021 session of the Group of Experts	Consideration of draft provisional agenda for the 2021 session of the Group of Experts
	19. Other business	
	20. Presentation and adoption of decisions	Presentation of informal papers Discussion and consideration of the draft decisions
3–6 p.m.	20. (<i>continued</i>)	Discussion and consideration of the draft decisions
	21. Adoption of the report of the 2019 session	Presentation of the draft report Interactive discussion and adoption of the draft report
	22. Election of officers of the 2021 session	Nominations to membership in the Bureau and their consideration by the Group of Experts
	23. Closing of the session	Conclusion of the session

15 March 2019

English

**United Nations Group of Experts On Geographical Names
2019 session**

New York, 29 April – 3 May 2019

Item 5 (a) of the provisional agenda*

**Governments on the situation in their countries and on the progress
made in the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Submitted by Republic of Korea**

*GEGN.2/2019/1

**Prepared by the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the Korea Hydrographic and Oceanographic Agency,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Republic of Korea

Summary

This paper reports on the activities of the standardization and management of geographical names by the Republic of Korea's two government agencies for the past two years, the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NGII) and the Korea Hydrographic and Oceanographic Agency (KHOA). During the period of 2017-2018, the NGII and KHOA standardized and publicly announced 336 natural and artificial feature names and 121 marine geographical names, respectively, through the final decision of the Korea Committee on Geographical Names (KCGN). The NGII established an on-line geographical names management system in order to improve the expertise and efficiency of its activities. This system has been distributed to local municipalities and is now in operation. The NGII published the Third Edition of the *Guidelines for the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 and a student edition of the *National Atlas of Korea*, and now hosts the web-based database of UN resolutions for geographical names standardization. KHOA published a revised version of the *National Gazetteer of Marine Geographical Names*, based on a comprehensive survey of marine geographical names. This publication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providing accurate and standardized information on marine geographical names. KHOA also conducted outreach activities, including training programs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their parents and organizing symposiums to enhance the awareness of marine geographical names.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¹

In the Republic of Korea, names of natural and artificial features are standardized and managed by the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NGII) and those of marine geographical features by the Korea Hydrographic and Oceanographic Agency (KHOA). The Korea Committee on Geographical Names (KCGN) functions as the final decision-making authority that reviews and decides on the names reported or proposed by the NGII and KHOA.

1. Standardization and management of geographical names by the NGII

1.1.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 2017~2018

During the period of 2017~2018, the KCGN approved the standardization and public announcement of 335 natural and artificial feature names reported by the NGII. According to procedural rules, new names or name changes for natural and artificial features were proposed by the local committees on geographical names, belonging to metropolitan, provincial, city and county authorities, and reported by the NGII. Among the 336 standardized names, 328 names were for new or unnamed features while 8 names were results of renaming existing features. The total number of standardized natural and artificial names reached up to 152,850. Newly standardized names were mostly chosen from those already used by local residents or in maps but not publicly announced, e.g., small islands and peaks, or created for newly constructed features, e.g., bridges, intersections and parks.

1.2. Improvements of the geographical names management system

Since 2012, the NGII has implemented a masterplan for upgrading geographical names management activities, with a view to improving the efficiency of its activities and securing consistency in data management. This plan includes programs to establish a system enabling interactive communication with institutions relevant to geographical names, and to publicize national names standardization activities. According to this masterplan, a detailed action plan has been established each year which resulted in the implementation of several projects. For example, an on-line system of administering the activities of the national and local geographical names committees was established in 2018. Various types of materials are also serviced by topics, including reports of the international activities, e.g., participation in the UN meetings, legal references, e.g., acts, rules and guidelines, results of projects.

Major achievements of improving the geographical names management system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a) The NGII has the capability to operate a toponymic database composed of a total of 297,107 geographical names. This database is open to the public and available for diverse tracks of search.

¹ This working paper pertains to the UNCISGN resolutions IX/7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concerning the origin and meaning of geographical names), I/4 (National standardization), and V/6 (Promotion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geographical names standardization programs).

- b) An on-line system accommodating a series of procedures conducted at each level of geographical names committees has been established, including convening of meetings, reviewing and making decisions, reporting to higher level committees, confirming procedural status in progress, etc.
- c) The geographical management system has become more user-friendly by providing toponymic attribute data, such as origin of names, coordinates, four divisional map monitoring function, etc.

1.3. A comprehensive survey of geographical names

The NGII has conducted a series of comprehensive surveys of geographical names in the country. This survey is expected to formulate a more precise set of standardized names by checking on errors and abolished or changed names, one standard name and other allonyms, accurate name types, and so on. A list of error corrections and changed or abolished names was produced in 2017 by surveying on twenty-thousand names in Incheon (metropolitan city) and Gangwon-do (province). In 2018, another survey was conducted on the names in Jeollabuk-do, Jeollanam-do and Jeju Special Self-governing City, which enabled the establishment of a precise database of twenty-thousand names.

1.4. Toponymic research and publication

The NGII published the Third Edition of the *Guidelines for the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 in 2018. This third edition was prepared to tackle the problems found in operating the guidelines of the second edition which had been effective since 2012, and thus provides local municipalities with more clearly applicable principles of standardization and procedures of proposing geographical names. Each principle of standardization is accompanied by explanatory notes including its background, related legal or procedural bases, and reference examples.

Publication by the NGII also includes a student edition of the *National Atlas of Korea*, which saw the first edition in 2007 and a revised three-volume edition in 2014 to 2016. The new student edition is expected to enable students to understand the geography of Korea and to identify geographical names that contain abundant information in an easier and more convenient way.

1.4. International activities related to geographical names

The NGII currently hosts the web-based database of UNCSGN resolutions, which provides a useful engine to search 211 resolutions adopted up to 2017 by Conference, subject and key words (<http://www.ngii.go.kr/portal/ungn/mainEn.do>). Since the database was launched in English in 2009, the French version was added in 2012, the Spanish version in 2015, and the Korean version in 2017. As the Arabic version has recently been completed, the database is now available in five languages. The database is also accessible from the UNGEGN website at: <http://unstats.un.org/unsd/geoinfo/ungegn/confGeneral.html>.

2. Standardization and management of marine geographical names by KHOA

2.1. Marine geographical names approved by the KCGN and undersea feature names approved by SCUFN

KHOA publicly announced 121 marine geographical names through the KCGN between 2017 and 2018. Among them 110 names are new, two are error corrections and changed names and nine are deletions.

Most new marine geographical names were not publicly announced although they were already being used in nautical charts. The generic features of two names were changed due to sea level rise thus were amended to fit their generic features in accordance with the *Guideline for the Standardization of Marine Geographical Names* published by KHOA. Names whose features were lost due to reclamation were deleted.

Since the Korea Committee on Marine Geographical Names was established in 2002 (later incorporated with the Central Committee on Geographical Names to form the KCGN in 2009) the number of publicly announced domestic marine geographical names is 1,107 and KHOA manages 1,091 names excluding amended and deleted ones.

Furthermore, KHOA conducted hydrographic survey in the Antarctic and the Northwest Pacific to discover new undersea features and standardize their names globally. KHOA analyzed seven undersea features, submitted the proposals to the Sub-Committee on Undersea Feature Names (SCUFN) jointly run by the 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 and the 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 and obtained approval.

2.2. Reorganization of marine geographical names and publication

KHOA conducted research on the standardization of marine geographical names to manage them more systematically. In 2017 KHOA reviewed all nautical charts and publications where marine geographical names are used. With the outcome KHOA reviewed the marine geographical names database to provide standardized marine geographical names in 2018.

In addition, KHOA published a new edition of the *National Gazetteer of Marine Geographical Names* so that the public can use standardized marine geographical names. This edition was published three years after the first edition in 2015 and is meaningful in promulgating updated marine geographical names.

2.3 Outreach activities

KHOA carried out two main outreach activities to promote marine geographical names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Firstly, four training programs were offered to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their parents to enhance the awareness of marine geographical names. Three of them were attended by 64 students and one was attended by six families with a total of 83 participants over the last two years.

The programs focused on hands-on activities to increase the level of understanding and interest, such as creating undersea features and nautical charts and a treasure hunt for marine geographical names. A QR code was used with the treasure hunt which led to high participation. KHOA will continue to run various programs every year to expand understanding of the oceans and marine geographical names.

Secondly, KHOA has been hosting the International Symposium on Application of Marine Geophysical Data and Undersea Feature Names every year since 2006 which is attended by domestic and international experts to increase the standardization of marine geographical names.

The symposiums in 2017 and 2018 were held in conjunction with an academic seminar by the Hydrographic Society of Korea which resulted in a greater variety of research findings. There were a total of 23 presentations which covered various areas including the management of undersea feature names and acquisition/analysis/management/observation/use of marine data and led to active discussion. Participants from different countries shared common challenges experienced in the process of standardizing marine geographical names and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better standardization.

18 March 2019

English

**United Nations Group of Experts On
Geographical Names
2019 session**

New York, 29 April – 3 May 2019

Item 7 (a) of the provisional agenda*

**Names collection, office treatment, national authorities,
features beyond a single sovereignty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Publication of the *Guidelines for the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 Third Edition***

Submitted by Republic of Korea**

* GEGN2/2019/1

** Prepared by the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and Sungjae Choo, Member of the Korea Committee on Geographical Names (Republic of Korea)

Summary:

The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NGII) of the Republic of Korea published the Third Edition of the Guidelines for the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 (지명 표준화 편람, Jimyeong Pyojunhwa Pyeollam) in 2018. This third edition was prepared to tackle the problems found in implementing the guidelines of the second edition which had been in use since 2012, and thus provide local municipalities with more clearly applicable principles of standardization and procedures of proposing geographical names. The principles of standardization consist of three basic principles, two priorities of name choice, seven types of names to be avoided, two rules of commemorative naming, and three procedural recommendations. Special emphasis is placed on the procedures of agreement on names by local municipalities for inter-municipality features, so as to prevent any form of controversy. There continues to be a need to enhance the practicality of the guidelines by expanding the applicability of principles to various types of geographical names and securing a legally binding mechanism.

Publication of the *Guidelines for the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 Third Edition¹

Guidelines for the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

The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NGII) of the Republic of Korea published the Third Edition of the *Guidelines for the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 (지명 표준화 편람, *Jimyeong Pyojunhwa Pyeollam*) in December 2018, which replaces its second edition published in 2012. This book, of which the first edition appeared in 2005, has provided local municipalities with guidelines to name geographical features with reasonable principles and consistent procedures. Although its main purpose is to give applicable directions for the standardization in the local level, the book has also functioned as a comprehensive tutorial for the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 including concept, definition and typology of geographical names, meaning and necessity of geographical names standardization, domestic and international bodies of the standardization, history of managing geographical names in Korea, and ways of romanizing Korean geographical names.

The third edition was prepared to tackle the problems found in operating the second edition. There has been high demand for revising the principles of standardization, given the recent trends in both the global and local levels. The following points were specifically noted:

- Principles of standardizing geographical names need to be restructured, in order to be more clearly referenced, e.g., grand principal and detailed principles, names to be prioritized and avoided.
- Supplementary principles should be provided in order to prevent inappropriate names in the global society with cultural diversity from being proposed, e.g., names with meanings of social exclusion or commercialization, names evoking conflicts or confusion, etc.
- As there are a growing number of conflicts or disputes between local municipalities, clear guidelines are necessary to prevent further conflicts in advance.
- There is a clear need to accommodate the global trend of standardization principles which is represented in the resolutions of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s of the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

Principles of Standardization

The principles of standardization in the third edition consist of three grand principles, two priorities of name choice, seven types of names to be avoided, two rules of commemorative naming, and three procedural recommendations. Special emphasis is placed on the procedures of agreeing on a common name between local municipalities for inter-municipality features, so as to prevent any form of controversy. Each principle is accompanied by explanatory notes including its background, related legal

¹ This working paper pertains to the UNCSGN resolutions I/4 (National standardization), V/6 (Promotion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geographical names standardization programmes), VIII/2 (Commemorative naming practices for geographical features), and X/4 (Discouraging the commercialization of geographical names).

or procedural bases, and reference examples. Principles are listed as follows:

I. Basic principles of the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

1. One standardized name shall be given for each geographical feature. Allonyms shall be managed separately.
2. Current names shall not be modified or discarded without valid reasons. When it comes to changing or discarding, it shall be recognized that those principles listed in section II have been fully considered by the names committees of each level.
3. The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shall be guaranteed. Opinions of local members and experts of geographical names shall be reflected appropriately.

II. Detailed principles of standardization

4. Names with the following nature shall be prioritized;
 - (1) Names currently in local use;
 - (2) Names reflecting local identity, history, cultural heritage, or sense of place
5. Names with the following nature shall be avoided in principle and subject to further consideration of other names;
 - (1) Names deviated from the practices of modern use of Korean, e.g., foreign terms, incorrect orthography;
 - (2) Names with derogative meanings, including those with meanings of social exclusion;
 - (3) Names motivated by the context of commercialization;
 - (4) Names exclusively using elements of natural features common to two or more areas;
 - (5) Names having the probability of causing confusion by the existence of the same name in a near distance;
 - (6) Names which are long enough to encroach on users' convenience;
 - (7) Names using a series of numbers.
6. The following considerations shall be made when names of persons are used.
 - (1) Names of living persons shall be avoided.
 - (2) Names of persons associated with the area and deceased at least ten years prior to the use of their names may be used when local residents favor the use of such names and no strong objection is raised.

III. Procedures of decision of names

7. Names decided by the city/county level authorities shall be deliberated and decided by the metropolitan/provincial level authorities of the area. Names decided by metropolitan/provincial authorities shall be deliberated and finally decided by the Korea Committee on Geographical Names.
8. Names of features belonging to the jurisdiction of more than one local municipality shall be decided upon agreement between the relevant municipalities. When seeking for an agreement, the following elements shall be taken into account;
 - (1) Above mentioned principles 4, 5 and 6;
 - (2) Attempts shall be made to find a name representing elements common to relevant local municipalities;
 - (3) Names which can cause disputes by applying local elements exclusively belonging to just

- one local area shall be avoided;
- (4) In case of artificial features, names used temporarily during the construction period are not admitted as names currently in local use regulated in principle 4(1) above.
9. When an agreement cannot be reached, the decision shall be made by the higher level committee on geographical names.

Operation of the Guidelines

The Guidelines for the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 is applicable to those names managed by the NGII, including natural feature names and a part of artificial feature names. Names of maritime features, administrative units, roads, cultural properties and other artificial features abide by the principles and procedures of the respective agencies. It is thus necessary to expand the general applicability of principles to various types of geographical names. Establishing a systematic framework of cross-referencing the principles of each agency will be constructive.

The Guidelines have the nature of a manual referenced by the geographical names committees of each level and thus has no legal effect. The fact that the guidelines are not legally binding is considered to be an obstacle to the effective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 In the long run,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legislation that encompasses the management of all types of geographical names.

18 March 2019

English

**United Nations Group of Experts On
Geographical Names
2019 session**

New York, 29 April – 3 May 2019

Item 7 (a) of the provisional agenda*

National and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

**Names collection, office treatment, national authorities, features beyond a
single sovereignty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Reorganization of Marine Geographical Names and Outreach
Activities, 2017-2018**

Submitted by the Republic of Korea**

*GEGN.2/2019/1

** Prepared by the Korea Hydrographic and Oceanographic Agency,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Republic of Korea

Summary

The Korea Hydrographic and Oceanographic Agency (KHOA) conducted research on the standardization of marine geographical names to manage them more systematically. In 2017 KHOA reviewed all nautical charts and publications and utilized the outcomes to assess the quality of the quality of marine geographical names database in 2018. As a result of such efforts, KHOA published a new edition of *National Gazetteer of Marine Geographical Names* to help the public use standardized marine geographical names. The total number of names listed in the new edition reached 1,091 with 176 new names added, seven corrected or modified, and nine deleted, resulting in an increase by 167 names compared to the previous edition. The new edition also includes updates with the latest chart images, coordinates, and romanization and definitions of generic terms.

Reorganization of Marine Geographical Names and Outreach Activities, 2017-2018¹

1. Reorganization of marine geographical names for standardization

To standardize marine geographical names, KHOA published the first edition of the *Guideline for the Standardization of Marine Geographical Names* in 2004 and the second edition in 2016 as Publication B-6 *Standardization of Undersea Feature Names*, co-published by the 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 and the 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 was updated.

Accordingly, the need to reorganize publicly announced marine geographical names was recognized. In 2017, KHOA reviewed all nautical charts and publications and discovered 248 unannounced names which had already been in use. KHOA listed the names which needed to be announced after conducting a field survey and established the foundation for incorporating marine geographical names into the database management system which had not been previously included.

2. Review of the quality of marine geographical names

With the review outcome in 2017, KHOA reviewed the quality of marine geographical names database in 2018, which led to standardization and systematic management. The database KHOA manages includes Korean names, coordinates, announcement number, origin of the names, generic terms and its explanation and drying height. KHOA reviewed the adequacy of generic information, romanization, variable information (e.g. drying height) and the origin of the names.

3. New edition of *National Gazetteer of Marine Geographical Names*

KHOA also published a new edition of *National Gazetteer of Marine Geographical Names* at the end of

¹ This working paper pertains to the UNCSGN resolutions IV/3 (Systematization and generalization of experience in the sphere of the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 II/22 (Standardization of maritime nomenclature), II/32 (Dissemination of decisions by national authorities) and V/6 (Promotion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geographical names standardization programs).

2018 so that the public can use standardized marine geographical names with the above-mentioned review. This edition was published three years after the first edition in 2015 and is listed with 1,091 marine geographical names with their coordinates, origin of the names and generic information. Among them 176 names are new, seven are error corrections and changed names, and nine are deletions which meant an increase by 167 names and the total listed number is 1,091 in 2018.

A digital version of the edition was also published to enable easy access by the public and has been classified into five sea areas for easy download. The Table of Contents is organized in the order of generic terms in accordance with the Guideline for the Standardization of Marine Geographical Names.

KHOA conducted the above activities for better management and use of standardized marine geographical names and will continue to strive to provide more information on standardized marine geographical names.

15 March 2019

English

**United Nations Group of Experts On
Geographical Names
2019 session**

New York, 29 April – 3 May 2019

Item 8 of the agenda *

Social and economic benefits, supporting sustainable development, measures taken and proposed for the implementation of resolutions and evaluation of the work of the Group of Experts (Working Group on Evaluation and Implementation)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Evaluation and Implementation

Submitted by the Working Group on Evaluation and Implementation**

Summary:

The full report highlights the activities of the Working Group on Evaluation and Implementation since the Eleventh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 held in August 2017. The Working Group met once, together with the Working Group on Publicity and Funding, in Brussels in October 2018. Most of the discussion at the meeting was dedicated to the operation of the new United Nations Group on Experts on Geographical Names, a body that combines the former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 and the former United Nations Group on Experts on Geographical Names; optimizing the five-day session, documentation, the format and presentation methods of working papers, guidelines for national and division reports, and further development of agenda items in collaboration with other working groups. The report also presents that the Arabic version of the database of resolutions of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 has recently been established. The Working Group plans to continue its task of evaluating the functioning and efficacy of the Group of Experts and the implementation of resolutions.

* GEGN2/2019/1

** Prepared by Sungjae Choo (Republic of Korea), Convenor of the Working Group on Evaluation and Implementation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Evaluation and Implementation¹

The work plan of the Working Group on Evaluation and Implementation, generally guided by the resolutions V/4 and VI/4 of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 included the following four items so far:

- ◆ Evaluating the functioning and efficacy of the UNGEGN and the Conferences, and the implementation of resolutions;
- ◆ Finding ways to involve member states not currently participating in the UNGEGN;
- ◆ Looking at the needs of developing countries to achieve national standardization of their geographical names;
- ◆ Proposing actions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Conferences, the UNGEGN and its Divisions and Working Groups.

At the beginning of the new UNGEGN, the Working Group proposes that it continues this work plan with just minor changes in the description, deleting the Conference elements.

Working Group Meeting, Brussels, Belgium, October 2018

The Working Group had a joint meeting with the Working Group on Publicity and Funding on the occasion of the *UNGEGN Scientific Symposium and Joint Divisions and Working Group Meetings*, organized in Brussels, 10-13 October 2018. The meeting was composed of two parts; a two-hour session on Friday 12th devoted to reporting progress made since 2017 and whole-day sessions on Saturday 13th to discussing selected agenda items. The former, held in the Prins Albert Club, was attended by 27 participants while the latter in NH Brussels Bloom was attended by 13 participants. The Saturday meeting was sponsored by the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NGII) of the Republic of Korea.

Items for reporting included the process of restructuring operational modalities carried out during the past two years (reported by Bill Watt, UNGEGN Chair), an outline of the new UNGEGN rules of procedure, the current status of the resolutions database (an update of the English, French and Spanish versions and a new establishment of the Arabic version), cooperation with UN-GGIM, etc. A brief review of the results of the evaluation survey conducted at the 11th Conference was also delivered.

Most of the discussion was dedicated to the operation of the ‘new’ UNGEGN as a combined body of the former UNCSGN and UNGEGN, with specific focus on the first session in 2019. Optimizing the five-day session, documentation, the format and presentation methods of working papers, guidelines for national and divisional reports, further development of agenda items in collaboration with other working groups, special presentations and an exhibition were major items for discussion. Action items resulting from the discussion were planned to be implemented in cooperation with the Secretariat.

¹ This working paper pertains to the UNCSGN resolutions V/4 (Work performed by the UNGEGN and its future activities), VI/4 (Working group on evaluation), IV/24 (Divisional activities), V/2 (Statute of the UNGEGN) and VIII/2 (Commemorative naming practices for geographical features).

Implementing resolutions

As an on-going focus and mandate, the Working Group has tried to encourage the implementation of resolutions at each country level, as well as in the UNGEGN context. In this stream, the documentation guidelines for the UNGEGN sessions and Conferences, including the current first session of the new UNGEGN, have requested each working paper to indicate the resolution(s) which relates to its theme.

The degree of reference to resolutions, however, is not yet high. An examination of the working papers presented at the 11th Conference and the 30th session shows that 42 out of 176 papers (23.9%) referred to resolutions, which recorded a lower rate than those at the 29th session, 36.5% (32 out of 88). Frequently referenced resolutions included I/4 (National standardization, 13 papers), IV/4 (Publication of toponymic guidelines for map and other editors, 7 papers), VIII/2 (Commemorative naming practices for geographical features, 6 papers), VIII/4 (Exonyms, 6 papers), I/7 (regional meetings, 5 papers), V/6 (Promotion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geographical names standardization programs, 5 papers), and IX/7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concerning the origin and meaning of geographical names, 5 papers). Austria, Germany, New Zealand and Dutch- and German-speaking Division reported their activities by resolutions.

The evaluation survey conducted at the 11th Conference shows that the resolutions are useful for promoting the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 (42 ‘very useful’ and 19 ‘useful,’ accounting for 91.0%) and implementing them is important in each country’s work on geographical names (39 ‘very important’ and 24 ‘important,’ accounting for 94.0%). Suggestions were made to raise the awareness of implementing resolutions; organizing sessions or adopting an agenda on this topic in related meetings and sharing best practices of implementing resolutions; improving communication between names authorities and data operating bodies and attracting more attention to the works of UNGEGN; securing more formalized delivery of resolutions to member states, and so on. Potential contradiction between resolutions, e.g., reducing exonyms versus promoting cultural heritage, was also pointed out.

UNCSGN resolutions database

With the four resolutions adopted at the Eleventh Conference, a total of 211 resolutions from the First to Eleventh Conference are now available in PDF texts in English, French, Spanish, Arabic, Portuguese and Korean, and through the web-based database in English, French, Spanish, Arabic and Korean. The Arabic and Korean versions of the database were recently established with the texts compiled and translated by Ms. Eman Orieby from Egypt and Korean experts, respectively. Both texts and database are accessible at the UNGEGN website: <http://unstats.un.org/unsd/geoinfo/ungegn/confGeneral.html>. The database, hosted by the NGII of the Republic of Korea, provides a useful engine to search resolutions by Conference, subject and key words.

Evaluation of the 11th Conference

Sixty-seven responses to the evaluation questionnaire, 59 on-line and 8 off-line, were received through a survey to participants of the 11th Conference in 2017. Most of the respondents indicated that it had met their expectations (65 out of 67, 97.0%) and rated the overall usefulness of the Conference very high or high (58 out of 67, 86.6%). The most expected aspect when coming to the Conference was ‘learning from other countries’ experiences (61 responses),’ followed by ‘networking with other experts (54),’ and

‘learning about updated standardization issues (50).’

An analysis of the likert scale evaluations on each item of the programs, contents, and logistics of the meeting, however, indicated that there were some variations in the assessment; the rate of ‘useful’ and ‘very useful’ being higher for documents and Working Group meetings, but lower for exhibitions and Division meetings (See Appendix 2 for more details). There were comments on the need for reserving more time for Working Group and Division meetings with minimized overlap of the meetings. The usefulness of special presentations and workshops was evaluated to be less positive than in the 29th session. Special presentations and panel discussions received general support to continue in future meetings, but there were also opinions to adjust them, in terms of the number and content. Suggested topics and focus of the future special presentations included urban and micro toponyms, commercial naming, minority names, crowd sourcing, census/data management, SDG data themes, and topics orientated to practical use or operation of standardized geographical names.

Some findings and comments were convincing that there would be a strong need to operate the five-day meeting more efficiently. It was commented that each presentation should search for the most efficient way of delivery, e.g., with or without showing on the screen, limiting time for presentation and discussion, preparing for national and divisional reports, minimizing ceremonial elements, etc. Twenty-two countries needed assistance for their tasks of the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 Most of them wanted training courses or expert visits.

The evaluation for the first session will be conducted through an on-line survey, supplemented by an off-line questionnaire. The link for the survey and the questionnaire will be provided during the meeting.

Future of the Working Group

In the new UNGEGN, the Working Group on Evaluation and Implementation proposes that it continues its work plan listed at the outset of this paper. Experts are requested to provide advice on future work that they would like to see undertaken by the Working Group.

The 211 resolutions adopted at the eleven United Nations Conferences on the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 held between 1967 and 2017 will remain in effect, and will be augmented with those adopted by the new UNGEGN. The Working Group will consider what can be achieved by, and if appropriate undertake, detailed studies of resolutions in operation. The Working Group will continuously encourage UNGEGN experts and member states to relate their work to resolutions and to include these references in reporting results at subsequent meetings. The task may be feasible by maintaining the current logistical measures, such as reminding experts of documentation guidelines and providing the resolutions database.

Workshops on implementing resolutions are evaluated to function as a useful forum to share experiences of implementing resolutions by topics. Initiated by the topic of commemorative naming in 2016, workshops are expected to continue with other topics, such as the commercial use of geographical names, preservation of geographical names with cultural heritage values, in cooperation with other working groups.

The Working Group on Evaluation and Implementation has had joint meetings with the Working Group on Publicity and Funding to achieve synergy effects. The Working Group is steered by the convenor and

the UNGEGN Bureau, but open to other Working Group convenors and any interested experts. Mr. Gerhard Rampl from Austria is serving as the rapporteur of the two Working Groups. The next joint meeting will take place during the first session, scheduled at 13:15-14:00, 3 May 2019.

APPENDIX 1. Participants of the Working Group Meeting, Brussels, 13 October 2018

- | | |
|--|-------------------------------------|
| 1. Brahim Atoui (Algeria) | 2. Ferdinand Bako (Burkina Faso) |
| 3. Catherine Cheetham (United Kingdom) | 4. Sungjae Choo (Republic of Korea) |
| 5. Allison Dollimore (United Kingdom) | 6. Vehbi Esgel Etensel (Turkey) |
| 7. Peder Gammeltoft (Denmark/Norway) | 8. Aðalsteinn Hákonarson (Iceland) |
| 9. Jon Ivanovski (FYROM) | 10. Helen Kerfoot (Canada) |
| 11. Young-Hoon Kim (Republic of Korea) | 12. Gerhard Rampl (Austria) |
| 13. William Watt (Australia) | |

APPENDIX 2. Results of the Evaluation Survey of the 11th Conference, New York, August 2017

Table 1. Evaluation of the usefulness of each program and content of the Conference

	very useful	useful	moderately useful	of little use	not useful	very useful and useful (%)
Usefulness of documents	27	33	3	1	0	93.8
Usefulness of special presentations	20	39	4	2	2	88.1
Usefulness of workshops	18	31	11	1	1	79.0
Usefulness of Working Group meetings	27	33	3	0	1	93.8
Usefulness of Division meetings	7	35	2	5	8	73.7
Usefulness of exhibition/displays	14	30	15	2	3	68.8
Usefulness of talking/networking with experts	40	17	5	0	3	87.7

Table 2. Evaluation of the operation of the Conference

	excellent	good	moderate	poor	very poor	excellent and good (%)
Duration of the meeting	13	21	19	9	3	52.3
Allocation of time	10	33	16	5	1	66.2
Distinguishing discussion/information papers	16	28	16	4	1	67.7
Summarizing groups of documents	12	32	18	1	2	67.7
Resolutions prepared by the Conference	15	30	19	0	1	69.2
Time available for WG and Division meetings	9	28	18	8	2	56.9
Time available for cooperation with GGIM	11	23	23	3	2	54.8

Table 3. Evaluation of the usefulness of UNCSGN resolutions for managers of geographical names in promoting geographical names standardization

	very useful	useful	moderately useful	of little use	not useful	very useful and useful (%)
Usefulness of UNCSGN resolutions	42	19	4	1	1	91.0

Table 4. Evaluation of the importance of the implementation of UNCSGN resolutions in each country's work on geographical names

	very important	important	moderately important	of little importance	not important	very important and important (%)
Implementation of UNCSGN resolutions	39	24	3	0	1	94.0

15 March 2019

English

**United Nations Group of Experts On
Geographical Names**

2019 session

New York, 29 April – 3 May 2019

Item 5 (d) of the provisional agenda*

**National and international meetings, conferences
(Information paper)**

International Seminar on Sea Names, 2017-2018

Submitted by the Republic of Korea**

*GEGN.2/2019/1

**Prepared by Young-Hoon Kim, Yeon-Taek Ryu, and Sungjae Choo (Republic of Korea)

Summary:

The International Seminar on Sea Names, which began in 1995, continued its annual meeting in 2017 and 2018. More than forty participants each year discussed the issues of geographical naming in paper presentations and panel discussions, with specific focus on maritime names. In continuation of the main topics of the past few years, the 23rd Seminar in 2017 broadened its scope into universal human values under the title *Achieving Peace and Justice through Geographical Naming*. The 24th Seminar in 2018, titled *Dual Naming: Feasibility and Benefits*, covered the issue of dual naming as a practical measure to solve the naming disputes. The papers and discussion points were published in a book each year. A total of 375 papers have been presented since the 1st Seminar.

International Seminar on Sea Names, 2017-2018¹

The International Seminar on Sea Names continued its annual meeting in 2017 and 2018; in Berlin (23rd, October 2017) and Gangneung (24th, August 2019). More than forty participants each year discussed the issues of geographical naming in paper presentations and panel discussions, with specific focus on maritime names. As many as thirty-two papers were presented during this period. This annual seminar has been co-organized by The Society for East Sea and the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The 23rd Seminar was held in conjunction with the Geographisches Institut, Humboldt-Universität zu Berlin.

Each seminar was titled with a main theme and divided into a few issue-oriented sub-themes (Table 1). In continuation of the main topics of the past few years, the 23rd Seminar in 2017 broadened its scope into universal human values under the title *Achieving Peace and Justice through Geographical Naming*. The 24th Seminar in 2018, titled *Dual Naming: Feasibility and Benefits*, dealt with the topic of dual naming as a practical measure to address naming issues. The results of each seminar, including revised papers and discussion points, were published in a book with the title of the main theme.

When launched in 1995, the initial motivation of the seminar was to seek for a resolution to the ongoing lack of agreement on a common name for the sea betwee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Japanese Archipelago. It has, however, now developed as an international forum to discuss the general issues on the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 A total of 375 papers have been presented so far. More information is available at the seminar website: <http://www.eastsea1994.org/eng>.

The 25th International Seminar on Sea Names is scheduled to be held in Alexandria, Virginia, U.S.A. in July 2019. Any experts interested in participating are welcome to contact Professor Young-Hoon Kim at: gis@knue.ac.kr.

¹ This working paper pertains to the UNCISG resolution I/7 (Regional meetings).

Table 1. Main themes and sub-themes of the International Seminar on Sea Names, 2017~2018

Year	Venue	Main Theme	Sub-theme
2017 (23 rd)	Berlin, Germany	Achieving Peace and Justice through Geographical Nam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eace, justice, cooperation, and geographical naming • Geographical names as indicators of cultural heritage and history • Historical traces remaining in names • Geographical naming as a process of materializing ideas, powers, and politics • Way forward to the naming issue between Korea and Japan
2018 (24 th)	Gangneung, Korea	Dual Naming: Feasibility and Benefi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nature of dual naming • Dual naming in the cultural and historical contexts • Dual naming in education • Dual naming and international relations • Dual naming in practice

References

The Society for East Sea, ed., 2017, *Achieving Peace and Justice through Geographical Naming: Proceedings of the 23rd International Seminar on Sea Names, Berlin, Germany, 22-25 October 2017*. Seoul: Seojeon Printech (ISBN 979-11-951305-6-6).

The Society for East Sea, ed., 2018, *Dual Naming: Feasibility and Benefits: Proceedings of the 24th International Seminar on Sea Names, Gangneung, Korea, 26-29 August 2018*. Seoul: Seojeon Printech (ISBN 979-11-951305-8-0).

15 March 2019

Original: English

**United Nations Group of Experts On
Geographical Names**

First session

New York, 29 April – 3 May 2019

Item 7 (a) of the provisional agenda*

**Names collection, office treatment, national authorities,
features beyond a single sovereignty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A Way Forward for the Agenda Item *Features beyond a single
sovereignty***

Submitted by Republic of Korea**

* GEGN2/2019/1

** Prepared by the Korea Hydrographic and Oceanographic Agency.

Summary

The agenda item *Features beyond a single sovereignty* was adopted at the First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 in 1967 and continued throughout all eleven Conferences up to 2017. Twenty-three working papers were submitted under this agenda item and eight resolutions were adopted. Facing the beginning of the new UNGEGN, this paper highlights the history of the activities extended under this agenda item and suggests a way forward for developing discussion in order to contribute to the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 A few further topics to be discussed are suggested, including the definition of relevant terms, cooperation between neighboring countries concerning the names of features beyond a single sovereignty, operating and supplementing the relevant resolution, and management of databases and gazetteers of names of features beyond a single sovereignty.

A Way Forward for the Agenda Item *Features beyond a single sovereignty*¹

History of the agenda item *Features beyond a single sovereignty*

The agenda item *Features beyond a single sovereignty* was adopted at the First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 in 1967 and continued throughout all eleven Conferences up to 2017. At the First Conference when just 13 agenda items were adopted, it was one of the 7 sub-items listed under *International Co-operation*. As the number of agenda items increased from the Second Conference, however, it became one of the main agenda items and maintained its status up to the Eleventh Conference in 2017.

Although the concept *Features beyond a single sovereignty* always occupied the core description of the agenda item, it was normally understood to include the intrinsic element of cooperation between countries; “policies, procedures and co-operative arrangements” as a preceding concept (3rd and 4th Conferences) or a sub-item (5th to 9th Conference)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as a subsequent concept (10th and 11th Conference). “Features common to two or more nations” was always included as a sub-item while maritime features and undersea features were included in the 2nd to the 6th Conference and extraterrestrial features in the 2nd to the 5th Conference. “Bilateral/multilateral agreements” was adopted as a sub-item in the 10th and the 11th Conference. At the First session of the new UNGEGN, the agenda occupies a part of the sub-item (a) *Names collection, office treatment, national authorities, features beyond a single sovereignty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under item 7, National and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

The history of the agenda reveals the following points:

- The fact that the agenda item *Features beyond a single sovereignty* has been adopted throughout the history of the UNCSGN signifies that there has been continued interest in this issue and that there exists a need for further discussion.

¹ This working paper pertains to the UNCSGN resolutions I/8 (Treatment of names of features beyond a single sovereignty), II/24 (Standardization of names beyond a single sovereignty), II/26 (Standardization of names of undersea features beyond a single sovereignty), II/34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names beyond a single sovereignty), and III/20 (Names of features beyond a single sovereignty).

- The agenda item has always carried the notio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agreement. This means that names of features beyond a single sovereignty have a steady ground to be treated in cooperation with countries concerned.
- Names of maritime features were noted as a part of the names beyond a single sovereignty.

Working papers submitted under the agenda item

A total of 23 working papers have been submitted under the agenda item *Features beyond a single sovereignty* from the 2nd to 10th Conferences. When excluding the 12 working papers which dealt with specific names of the sea between the Korean Peninsula and Japan (four by the Republic of Korea, five b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three by Japan), 11 working papers were submitted by various countries, as well as by a Division and a Technical Committee.

Working papers in the earlier stages suggested some principles which should be applied to features under the sovereignty of more than one country or divided by two or more countries (1972, jointly by Austria,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the Netherlands and Switzerland; 1972, by Norway; 1977, by the Technical Committee III) or to features situated outside a single sovereignty, e.g., oceans, Antarctica, bodies of the solar system (1972, by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or reported on each country's practice of naming features beyond a single sovereignty (1972, by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for maritime features; 1977, by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for maritime and land features).

At the Sixth Conference in 1992, the United States-Canada Division reported on the Document of Understanding approved in 1989 concerning the treatment of names of features shared by the two countries. This document included principles of coordination, name-change policy, terminology, and procedures of implementation.

Discussions under this agenda item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terminology and data management. A working paper submitted by Israel at the 9th Conference (2007) raised the need to consider new terms other than exonyms or endonyms for the names of water bodies which did not belong to any national jurisdiction but were contested by two or more nations. At the same conference, Turkey suggested that in the cases of bilateral or multilateral disputes, complete, consistent and correct geo-information coverage should be adopted which would give no priority to any of the geo-political representations but depict the real world as much as possible.

Two working papers addressed the issue of boundary toponymy. Chile reported in 2007 on the completion of the list of names in the Chilean territory bordering Argentina, which was facilitated by establishing a joint commission between them. Indonesia, at the 11th Conference (2017), pointed out that names of features delimiting international boundaries had variations in spelling and pronunciation, and proposed for cooperation and agreement between neighboring countries to manage this problem.

The following points could be taken from the review of working papers.

- Discussion under the agenda item *Features beyond a single sovereignty* has been extended to accommodate two tracks of 'single' and 'beyond sovereignty.' The former included discussion on the names of features common to two or more nations, e.g., those common to neighboring countries in Europe, North America, Indonesia and its adjacent countries, while the latter focused

on the names of features located outside of national jurisdiction, e.g., maritime or undersea features belonging to international waters, Antarctica and extraterrestrial features.

- Names of both land and maritime features have been covered by the agenda item. Interests in the earlier Conferences were centered on maritime features beyond a single sovereignty. Examples cited included Skagerrak, East Sea/Sea of Japan and Persian Gulf/Arabian Gulf.
- Working papers on such topics as toponymic terminology, data management and gazetteer compiling in the border regions, cooperation and agreement on the trans-border features demonstrated that this agenda could be developed in both its academic and practical spheres.

Resolutions adopted under the agenda item

In the compendium of 211 resolutions of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 eight resolutions are sorted under the subject “Names of features beyond a single sovereignty.” All of them were adopted from the 1st to the 4th Conference. The 2nd Conference produced more than half, as many as five resolutions, reflecting one of the activated topics that time which accompanied four working papers.

A half of these eight resolutions, I/8, II/24, II/34 and III/20, generally concern the names of features beyond a single sovereignty while the other half, II/22, II/23, II/26 and IV/12, specify the names of maritime, undersea or Antarctic features. This confirms that maritime features have been a noticeable component of features beyond a single sovereignty.

The most substantial resolution which provides guidelines for dealing with the names of features beyond a single sovereignty is III/20. This resolution recommends that countries sharing a given geographical feature under different names should endeavor to reach agreement on fixing a single name, and that when countries do not succeed in agreeing on a common name, it should be a general rule of international cartography that the name used by each of the countries concerned will be accepted. It is still expected to function as a valid guideline for various issues concerning the names of features beyond a single sovereignty

A way forward: topics for further discussion

The UNCSGN resolution II/34 reads as follows:

The Conference,

Having discussed the problems of the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

Having agreed that its field of application extends to the establishment of standardized names of geographical entities lying beyond a single sovereignty,

Recommends that the United Nations Group of Experts on Geographical names continue to study this wider aspect.

Be it ever so old as almost 50 years, the idea of this resolution is expected to still be effective and attract attention in the new UNGEGN. If this resolution is to be confirmed, then what can be studied further, shared and discussed by member states and experts under the agenda item *Features beyond a single*

sovereignty?

One of the basic elements of study will be discussions on the key concepts concerning the agenda *Features beyond a single sovereignty*. Even if a great part of the terminology relating to this agenda would belong to the sphere of international law, and thus have its definitions determined within this sphere, discussion on the concepts and applicable cases should continue, and, if feasible, cover definitions specifically adapted to the domain of geographical names.

Items that should be discussed or interpreted include the nature and scope of the relevant features: i.e. features under the sovereignty of more than one country; features shared or divided by two or more countries; features common to two or more nations. Discussion on these items may also invite a review on the relations of the aforementioned concepts with other legal concepts such as sovereign rights and jurisdiction, as provided by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Practices of dealing with the names of features beyond a single sovereignty by each member state or jointly by two or more neighboring countries will compose a useful portion of discussion under the agenda item. The efforts of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for coordinating the names of shared features between them are a good example. As dual naming is regarded as one of the feasible solutions for the controversial cases as recommended by the second part of the resolution III/20, suggesting practical ways of implementing dual naming will lead to a useful discussion. This focus, however, should be preceded by an agreed interpretation of the sentence “the name used by each of the countries concerned will be accepted.”

As far as the resolution III/20 is concerned, the new UNGEGN may also re-evaluate the significance of the resolution in standardizing geographical names, especially in light of current trends and contextual changes. Such discussion can also include a review on the history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resolution since its adoption in 1977 and the challenges posed by recent development of relevant geographical and legal concepts.

Sharing experiences of collecting geographical names, establishing toponymic databases, and compiling gazetteers supported the basic *raison d'etre* of the former Conferences and sessions of UNGEGN, and it will continue to do so in the new UNGEGN. Hence the new UNGEGN should serve as a forum where a vibrant exchange of diverse experiences in dealing with, and cooperating on geographical names for features beyond a single sovereignty, shared by or common to two or more nations, or located in the border regions, including both land and maritime features can continue to take place.

별첨 4

제1차 신 유엔지명전문가그룹 총회 23개 의제별 세부내용

Opening (Agenda 1~3)

- 정책조정 및 기구간 업무국의 부사무총장(Assistant-Secretary-General for Policy Coordination and Inter-Agency Affairs)인 Maria-Francesca Spatolisano가 개회를 선언함 (Agenda 1)
- 의장과 집행부를 선출함 (Agenda 2)
 - 의장(Chair) William Watt (호주)
 - 부의장(Vice Chair) Hasanuddin Z. ABIDIN (인도네시아)
Peder Gammeltoft (노르웨이)
 - 보고관(Rapporteur) 주성재 (대한민국)
Trent C. PALMER (미국)
- 조직 관련 업무(절차규정, 의제, 업무계획, 참석자 인준 등)는 원안대로 통과됨 (Agenda 3)

Agenda Item 4. Reports of the Chair and the Secretariat. / 의장과 사무국의 보고

- 의장의 보고서에 주목함
 - 지난 수년 동안 집행부, 워킹그룹, 사무국이 통계국의 지원 하에 성공적인 구조재편을 이루었음. 그러나 목적과 초점은 이전과 동일함
 - UNGEGN의 목적을 달성하고 그 업무를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DGs)와 맞추어 가는 것이 시급함
- 사무국의 보고서에 주목함
 - 지난 2년간 UNGEGN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특히 제1차 총회 준비를 위해 많은 일이 진행되어 왔음
 - 사무국은 통계국과 자원한 전문가들에 의해 새로운 UNGEGN 웹사이트

를 디자인하여 오픈하였으며, 아울러 지도와 함께 전 세계 국가와 도시의 이름을 수록한 데이터베이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사무국은 미래 활동방향을 위한 전략계획과 업무프로그램 수립을 제안하여 지지를 받았음

Agenda Item 5. Reports

Agenda Item 5. (a) Governments on the situation in their countries and on the progress made in the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 / 국가별 현황 및 지명 표준화의 진전 상황에 대한 정부의 보고

- 41개국에서 제출한 지명 표준화 보고서를 의장이 요약하였고, 의장은 각 주제별로 해당 국가에 질문하고 대답하는 순서를 가짐
- 국가보고서가 포함함 주제의 방대함에 주목하였음
 - 지명 데이터베이스, 소수민족의 지명, 지명과 주소체계, 출판, 특별 회의, 클라우드소싱, 지명 표준화를 위한 민주적 참여 등
- 각국은 이전에 채택된 결의를 참조하여 이에 맞추어 표준화를 실행함으로써 결의의 효율성과 가치를 보여줄 것을 권고함

Agenda Item 5. (b) Divisions of the Group of Experts; / 전문가그룹 디비전;

- 24개 디비전 중 12개 디비전에서 제출된 보고서를 의장이 요약하고, 관련된 방법, 이슈, 기법 등을 나타내는 풍성한 정보에 주목함
- 활동이 미약한 디비전은 활발한 활동을 보이는 디비전의 모델을 채택하여 그 활동에 힘쓸 것을 권고함
- 동아시아 디비전 의장인 이기석 교수는 의장직을 일본의 타나베 히로시 교수에게 넘긴다고 발표하였고, 타나베 교수는 이를 확인함

Agenda Item 5. (c) Working Group on Country Names / 국가명 워킹그룹;

- UNGEGN 국가명 리스트의 개정 부분을 발표함
 - 마케도니아의 국명이 FYROM에서 North Macedonia로 개정된 부분 포함
- 폴란드와 인도네시아가 자국에서 사용하는 세계 국가명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함

Agenda Item 5. (d) National and international meetings and conferences. / 국내, 국제회의 및 컨퍼런스

- 우리나라가 정보제공 목적으로 제출한 “바다이름 국제세미나”에 관한 보고서에 일본 수석대표가 “East Sea” 사용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발언하였고, 한국 수석대표는 이에 대해 반론을 펼침

Agenda Item 6. Cooperation and liaison with other organizations / 타 기관과의 협력 및 연락

- 4개 협력기관(명칭과학협의회, ICOS; 세계지리학연합 및 세계지도학회 연합 지명분과회의, Joint ICA/IGU Commission on Toponymy; 국제수로기구, IHO; UN-GGIM)이 보고서를 발표함
- UN-GGIM과 UNGEGN의 협력에 관한 GGIM의 보고서와 UNGEGN의 보고서를 각각 발표하고 그 협력의 가치에 대해서는 동의하였으나, 구체적 실행방법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함을 확인함
- IHO 보고서에 대하여 한국 대표가 비공식협의를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함

Agenda Item 7. National and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 / 지명의 국가, 국제표준화:

Agenda Item 7. (a) Names collection, office treatment, national authorities, features beyond a single sovereignty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 지명 수집, 사무처리, 국내기관, 단일 주권을 초월한 지형물과 국제적 협력;

- 우리 측이 제출한 워킹페이퍼에 대해 우리 측은 아래의 주요 내용으로 발표함
 - 단일 주권을 초월한 지형물 이슈에 대해 회원국들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 왔으며, 향후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함
 - 단일 주권을 초월한 지형물의 지명은 관련국 간의 협력 과정을 통해 결정되어야만 함
 - 단일 주권을 초월한 지형물의 명칭에는 육지 지형물의 명칭뿐만 아니라 바다 지형물의 명칭도 포함됨
 - 단일 주권을 초월한 지형물의 명칭을 다루기 위해서는 UNCLOS(유엔해양법협약)에서 제시한 주권적 권리, 주권 등의 법적 개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신 유엔지명전문가그룹은 유엔지명표준화회의 결의안 III/20의 중요성에 대해 재인식할 필요가 있음
- 우리 측의 발표 직후 일본 측 대표는 아래의 주요 내용으로 반론을 제기함
 - 유엔지명전문가그룹은 기술적 이슈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대한민국이 제기한 특정 바다의 이름과 같은 정치적 이슈를 다루기 위한 적절한 장이 아님
 - 유엔지명표준화회의 결의안 III/20은 단일 주권을 초월한 육지 지형물에만 적용됨
 - 신 유엔지명전문가그룹 총회 시 ‘단일 주권을 초월한 지형물’ 의제를 없앨 것을 제안함

- ‘Sea of Japan’ 만이 국제적으로 확립된 이름이며 유엔에 의해 공식적으로 사용됨
- 최근 병기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행하고 있는 정치적 로비 활동의 결과임
- 일본 측 대표의 발언 직후 우리 측 대표는 아래의 주요 내용으로 반론을 제기함
 - 과거 유엔지명표준화회의에서 다루었던 의제는 신 유엔지명전문가그룹 총회에서도 다루어져야 함
 - 유엔지명표준화회의 결의안 III/20은 지리적 지형물에 관한 것이며, 지리적 지형물은 육지 지형물뿐만 아니라 바다 지형물도 포함함
 - ‘Sea of Japan’을 사용하는 유엔사무국의 관행이 유엔 정책과 동일시되어서는 안 되며, 유엔사무국도 이러한 점을 강조하였음
 - 신 유엔지명전문가그룹 총회 시 ‘단일 주권을 초월한 지형물’ 의제를 없애자는 일본 측의 제안에 반대함
 - ‘East Sea’ 표기를 사용하고 채택한 지도 제작사 및 출판사가 증가하였음
- 일본 측 대표는 아래의 주요 내용으로 재차 반론을 제기함
 - IHO 기술적 결의안 A.4.2.6는 공해(high sea)에 적용되지 않음
 - 대한민국이 유엔지명표준화회의 결의안 III/20 및 IHO 기술적 결의안 A.4.2.6에 근거하여 병기를 주장하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음
- 우리 측 대표는 아래의 주요 내용으로 재차 반론을 제기함
 - 일본 측 대표가 주장한 IHO 기술적 결의안 A.4.2.6는 동해 수역과 같은 공해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맞지 않음

Agenda Item 7. (b) Toponymic guidelines for map and other editors for international use. / 지도와 다른 편집자들을 위한 국제적인 사용의 지명 가이드라인.

- 다양한 출처에 대한 링크를 통해 지명 가이드라인 목록에 대한 최신 업데이트 사례 관련 발표가 있었음
- 지명 가이드라인을 아직 준비하지 못한 회원국에게는 지명 가이드라인 준비를 권장하고, 지명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회원국에게는 정기적으로 지명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하여 차기 유엔지명전문가그룹 총회에서 보고할 것을 권장함
- 지명 가이드라인 문서의 템플릿과 형식을 개선하고 현대화 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을 제안함

Agenda Item 8. Social and economic benefits, supporting sustainable development, measures taken and proposed for the implementation of resolutions and evaluation of the work of the Group of Experts (Working Group on Evaluation and Implementation). / 사회경제적 이익, 지속 가능한 개발 지원, 전문가그룹의 결의안 및 평가 실행을 위해 이루어지거나 제안된 조치 (평가·실행 워킹그룹).

- 워킹그룹 의장(주성재)은 이전 총회에서 존재했던 결의의 이행과 그 채택, 그리고 UNGEGN 업무에 관한 논의에 덧붙여 “지속가능한 발전 지원”의 요소가 포함되는 과정에서 의제가 길어졌음을 설명함
- 다음 세 가지 주제로 보고서를 발표하고 토론함
 - 결의와 관련된 UNGEGN 업무에 관한 부분으로 워킹그룹 보고서와 아랍어 결의문 데이터베이스 구축 보고서(정보제공)
 - 결의 이행과 관련된 부분으로 유엔총회와 경제사회이사회 결정과 결

의 관련 보고서, 뉴질랜드의 결의이행 보고서, 이스라엘의 도로명 제정 보고서

- 지속가능한 발전 관련 부분으로 2030 어젠다를 지원하기 위한 지명 데이터파일과 목록집의 기회에 관한 보고서

Agenda Item 9. Issue of publicity for the Group of Experts and funding of Group projects (Working Group on Publicity and Funding). / 전문가그룹에 대한 홍보 및 그룹 프로젝트 재정에 관한 이슈 (홍보·재정 워킹그룹).

- 본 의제 항목과 관련하여 두 개의 워킹페이퍼에 대한 발표가 있었음
- 워킹그룹의 홍보 및 자금 조달과 관련하여 새롭게 떠오르는 이슈와 관련하여 지지함
-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을 위해 보다 지속가능한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추가적인 협업 체계 구축을 장려함

Agenda Item 10. Activities on national standardization in Africa (Task Team for Africa). / 아프리카 국내 표준화 활동 (아프리카 태스크 팀).

- 아프리카 태스크 팀 코디네이터가 제출한 보고서에 주목하고 아프리카 지명 표준화를 위해 취한 조치를 인정함
- 이번 총회에 아프리카 전문가들의 참여율이 낮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아프리카 전문가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장함
- 지명표준화에 대한 추가 협력을 위해 아프리카 경제위원회와의 연계 유지를 촉구함

Agenda Item 11. Toponymic education (Working Group on Training Courses in Toponymy). / 지명 교육 (지명 교육과정 워킹그룹).

- 2017년 11차 UNCSGN 이후 2회의 지명교육과정 워킹그룹 주관의 지명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필리핀 NAMRIA-UNGEGN과 요르단 암만 ADEGN에서 있었음
- 필리핀의 지명교육프로그램은 2018년 3월 19일~24일 동안 해양지명 위주로 진행되었고, 50명의 참가자와 10개 회원국의 강사들이 참여하였음. 주요 교육생들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디비전의 국가들이었음
- 요르단 암만의 ADEGN(UNGEGN Arab Division of Experts on Geographical Names)은 2018년 3월 25일~29일, 6개 아랍국가(카타르, 오만, 알제리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 요르단)의 15명 교육생을 중심으로 아랍권에서의 다양한 지명 이슈와 지명표준화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음
- 새로운 버전의 지명 매뉴얼 업데이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는 총 30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온라인상의 지명교육 코스가 운영중에서 있음

Agenda Item 12. Toponymic terminology (Working Group on Toponymic Terminology). / 지명 용어 (지명 용어 워킹그룹).

- 2017년 새 워킹그룹 의장인 트렌트 파머(Trent Palmer) 이후 100개 이상의 지명용어들이 수록되고 오고 있고,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대학의 Gerhard Rampl 교수 주도로 데이터베이스화가 진행중에 있음
- 2019년 계획으로 본 워킹그룹은 2007년에 갱신된 내용의 온라인 서비스와 데이터베이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새로운 지명 용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Agenda Item 13. Geographical names as culture, heritage and identity, including indigenous, minority and regional languages and multilingual issues (Working Group on Geographical Names as Cultural Heritage). / 토착민, 소수민족 및 지역 언어와 다중언어 이슈를 포함한 문화, 문화유산, 정체성으로서의 지명 (문화유산 워킹그룹).

- 스웨덴에서 영어판 스웨덴어의 지명과 인명 핸드북 출간을 소개하였고, 스웨덴의 옅살라에서 2019년 6월 3일~5일까지 ‘Names in the Economy 6’ 컨퍼런스 개최를 홍보함
- 본 워킹그룹은 지속적으로 소수민족과 원주민의 지명, 문화적 유산으로서의 지명 연구, 지명 등록 및 법제화, 추모대상으로서의 지명, 지명의 상업화 등의 주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임
- 앞으로 UNGEGN 내 다른 워킹그룹과의 연계 및 긴밀한 협력을 통해 문화적 유산으로서의 지명의 중요성을 확산하고 공동 워크숍, 컨퍼런스 등의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고, 지명의 생활적 실천과 입법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임
- 여러 회원국들이 다양한 주제로 지명과 각국의 관련 문화적, 역사적, 사회적 유산과의 관련 내용을 발표하였음
 - 사우디아라비아(야생동물 분포 지역의 지명), 뉴질랜드(뉴질랜드 지명 목록에서의 문화적 유산 지명 소개, 뉴질랜드 원주민 그룹의 적극적인 지명 참여), 불가리아(사회문화적 객체로서의 지명), 오스트리아(무형의 문화적 유산에 대한 국가지명인벤토리 소개), 캐나다(원주민과 소수민족의 지명에 대한 국제적인 정책 비교), 남아프리카공화국(기록되지 않은 언어수록 하위워킹그룹의 중요성), 에스토니아(웹기반 지명사전), 오스트레일리아(원주민 언어 사용 촉진) 등의 발표가 있었음

Agenda Item 14. Exonyms (Working Group on Exonyms). / 외래지명 (외래지명 워킹그룹).

- 워킹그룹 보고서, 2017년 워크숍 발표논문집(Survey of Exonym Use) 발간으로 시작하여 폴란드, 핀란드, 스웨덴에서 사용되는 외래지명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전개됨
- 워킹그룹 전 의장인 Peter Jordan은 외래지명의 본질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지명은 내 것인지, 그들의 것인지) 발표를 하여 주목을 끌었음
- 각국이 사용하는 외래지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보고할 것을 권고함

Agenda Item 15. Toponymic data files and gazetteers (data processing and tools, database management, data dissemination: products and services) (Working Group on Toponymic Data Files and Gazetteers). / 지명데이터파일과 지명목록집 (데이터 처리 및 도구, 데이터베이스 관리, 데이터 보급: 제품 및 서비스) (지명데이터파일 및 지명목록집 워킹그룹).

- 2017년 이후 워킹그룹 내 활동 내용의 실질적인 진전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발표가 있었음. 특히 8개 주요 활동 목표에 대한 피드백과 앞으로의 구체적인 활동 방향에 대한 내용 소개가 있었음
- ISO, OGC, Unicode와의 오랜 연계를 강화하고 지명표준화에 대한 상호 신뢰를 공고히 하며, UN-GGIM 활동을 위한 지명 관련 기술적 자문과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며, 특히 지리공간정보와의 연계성을 위해 UN-GGIM의 활동 강화, 기술적 논의 이외의 지명의 중요성을 어떻게 UN-GGIM에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 또한 UNGEGN의 지명데이터베이스 지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진행하며 아프리카의 UNECA의 아프리카지명 데이터베이스 및 지명목록집 추진을 선도적으로 진행할 예정임

- 지난 2018년 10월 브뤼셀에서 있었던 공동 워크숍과 같이 다른 UNGEGN 내 워킹그룹과의 연합 워크숍을 계속 추진하며, 향후 시급한 논의 주제(Linked Data 활용, 지속가능목표와 지명데이터베이스 연계, 음성기록과 지명데이터베이스 등)의 필요성을 보고하였음
- 앞으로 지속적으로 UN-GGIM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리공간정보에서 지명의 중요성을 확산할 예정이고, 지명의 디지털 버전의 전환에 대해 계속 관련 이슈를 개발할 것임

Agenda Item 16. Writing systems and pronunciation (Working Group on Romanization Systems). / 문자체계와 발음 (로마자표기법 워킹그룹).

- 2018년 2월에 사망한 이탈리아 Sandro Toniolo에 대한 추모 의견이 전달되었으며, 2018년 3월 프랑스 파리에서 있었던 워킹그룹 논의 내용의 소개가 있었음. 특히 새로운 UNGEGN 조직 구성에 따라 새로운 체제에 적응할 워킹그룹 이슈 발굴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회원국 중에서 로마자표기 시스템 개선과 새로운 시스템 구축, 로마자표기 방안에 관한 보고서가 발표되었음
- 새로운 로마자표기 시스템 도입(조지아), 이전의 표기시스템의 특정 기능 개선(발음 및 철자표기, 라오스), 이기종 표기시스템의 기능 개선(몬테니그로), 새로운 언어표기에 따른 지명로마자표기 기능 추가(스리랑카의 Sinhala), 새로운 철자 추가에 따른 로마자표기(카자흐스탄), 새로운 언어 추가에 따른 로마자표기법 및 시스템 내의 반영 논의(쿠르드어, 북아프리카의 Tamaight어) 등의 내용들이 회원국 보고서로 발표되었음

Agenda Item 17. Other toponymic issues. / 기타 지명 이슈.

- 논의 없었음

Agenda Item 18. Arrangements for the second session of the Group.
/ 그룹의 두 번째 세션을 위한 조정.

- 제2차 총회를 2021. 5. 3~7에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하는 계획이 발표됨
 - 아랍 국가에서는 이 기간이 라마단 기간이고 미국이 힘들다는 이유로 다른 시기, 다른 장소를 고려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안대로 통과됨
- 제2차 총회의 의제는 제1차 총회의 의제에서 임원 선출만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동일한 안으로 통과됨

Agenda Item 19. Other business. / 기타 업무

- 유엔 문서국과 UNGEGN 집행부 사이에 있었던 회의내용이 보고되었으며 두 그룹 간에 지명의 적절한 사용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것을 권고함

Agenda Item 20. Presentation and adoption of decisions. / 결정사항 발표 및 채택.

- 6개의 권고사항(recommendation)이 채택됨(○쪽 권고안 참조)
 - ※ 과거 UNCSGN에서 채택된 결의(resolution)와 동일한 효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됨

Agenda Item 21. Adoption of the report. / 보고서 채택.

- 각 의제별로 Decision의 형식으로 서술한 보고서가 항목별로 검토되어 채택됨
- 비공식 문서(Informal Paper)의 형태를 가졌으며 추후 보고관, 유엔 문서국의 작업을 거쳐 경제사회이사회에 제출되어 채택될 예정임

Agenda Item 22. Election of officers of the second session. / 두 번째 세션을 위한 임원 선출.

- 2019~2023년을 임기로 하는 새로운 임원이 선출됨(26쪽 명단 참조)

Agenda Item 23. Closing of the session. / 세션 폐회.

- 의장인 William Watt의 7년간 의장직 수행(2012~2019)을 기념하는 순서가 있었음

**50th Anniversary of the Austrian Board
on Geographical Names
and
GeoNames Symposium
“Place Names and Migration”**

organized by

**Austrian Board on Geographical Names (AKO)
UNGEEN Dutch- and German-speaking Division (DGSD)
Joint ICA/IGU Commission on Toponymy
Federal Office of Metrology and Surveying (BEV)
Austrian Geographical Society (ÖGG)**

**Vienna [Wien],
6-8 November 2019**



Vienna seen from the Belvedere, 1759-1760, by Bernardo Bellotto (Canaletto)
(Source: Kunsthistorisches Museum Wien)

Dear colleagues,

In September 1967, the United Nations convened its first conference on the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 in Geneva. National name standardisation, which was to form the basis for international name standardisation, played a major role in the negotiations. Subsequently Josef Breu, who had been proposed by the Austrian Academy of Sciences and took part as Austria's representative made efforts to establish a national name standardisation board in Austria. It was agreed that it would be best to make use of the existing framework of the Austrian Cartographic Commission in the Austrian Geographical Society. In 1969, with the approval of the Geographical Society, the so-called *Abteilung für Kartographische Ortsnamenkunde (AKO)* – in 1994 renamed to *Arbeitsgemeinschaft für Kartographische Ortsnamenkunde in der Österreichischen Geographischen Gesellschaft und in Verbindung mit der Österreichi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en* – was established.

To celebrate the 50 year anniversary of the foundation of AKO we are happy to invite you to the symposium

“Place Names and Migration”

Migration is a global and all-time phenomenon. Ever since humankind exists, people were migrating – individually or in groups. Concerning place names people can migrate to rather scarcely named areas but also to areas that have a densely and established namescape. Especially in the latter case it is interesting to look on how people – often with a different linguistic and cultural background – deal with the situation. Recent research shows that place names are clearly connected to personal and group identity. But research on how exactly migrants use, adapt and maybe change place names is a desideratum.

Related to place names, this prompts a number of delicate questions: How do migrants deal with place names? Do they accept the place names they find? Do they adapt them to their own language by translation, morphological or phonetic adaptation? Do they create new names of their own for already named places? And how do long-term residents of the place react to these attitudes?

Some of these questions get addressed already in traditional fields of onomastics. Additionally recent fields of study like “critical onomastics” and “colonial onomastics” give a new view on the same questions. The symposium intends to highlight various historical situations as well as recent migration events in all parts of the world.

Subthemes (with no claim to be exhaustive):

- Place-name use in historical situations of migration
- Place-name use in recent situations of migration
- Reactions of long-term residents to the place-name use by migrants
- Attempts (by migrants or the resident community) of integrating migrant place names into the official namescape
- Place-name use of migrants by feature categories
- Place-name use by kinds of migration
- Transfer of place names from the former home to the new place
- Use of exonyms of the local community by migrants

Preliminary Program

Wednesday, 6 November 2019

09.00-12.00: **146th Meeting, Permanent Committee on Geographical Names**
[Ständiger Ausschuss für geographische Namen, StAGN] (in German)

12.00-13.00: Lunch break

50th Anniversary of the Austrian Board on Geographical Names

13.00-13.30: Opening

Gerhard RAMPL, Austrian Board on Geographical Names

Tjeerd TICHELAAR, UNGEGN Dutch- and German-speaking Division

Peter JORDAN, Joint ICA/IGU Commission on Toponymy

Wernher HOFFMANN, Federal Office of Metrology and Surveying (BEV)

Helmut WOHLISCHLÄGL, Austrian Geographical Society (ÖGG)

13.30-14.00: RAMPL, Gerhard (Innsbruck): Sketches of the Austrian Board on Geographical Names' history

14.00-14.30: HAUSNER, Isolde (Vienna): The Austrian Board and the Permanent Committee on Geographical Names

14.30-15.00: KERFOOT, Helen (Ottawa): The Austrian Board and UNGEGN

15.00-15.30: JOBST, Markus (Vienna): The United Nations Committee of Experts on Global Geospatial Information Management (UN-GGIM) and its activities in Europe

15.30-15.40: WITES, Tomasz (Warsaw): Presentation of Honorary Membership of the Polish Geographical Society to Peter Jordan

15.40-16.00: Coffee break

GeoNames Symposium “Place Names and Migration”

Session 1: The research field and trans-continental contacts (Chair: Peter JORDAN, Vienna)

16.00-16.30: JORDAN, Peter (Vienna): “Place names and migration” as a research field

16.30-17.00: ORMELING, Ferjan (Amsterdam): Dutch names worldwide – the naming behaviour of Dutch explorers in the 17th and 18th centuries

17.00-17.30: LOUATI, Fatima (Tlemcen): A diachronic study of Phoenician place names: Case study of some place names in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17.30-18.00: PALAGIANO, Cosimo (Rome): Transfer of place names from Italy to Latin America

18.00-18.30: HERZEN, Andrej (Moscow): Historical-geographical context of transferred exonyms

Thursday, 7 November 2019

Session 2: Extra-European situations (Chair: Sungjae CHOO, Seoul)

09.00-09.30: CHOO, Sungjae (Seoul): Impact of migration on place names. A case of the impelled migration before and during the Korean War

09.30-10.00: KIM, Young-Hoon (Chenongju): Migrated place names in the Manchuria region in China from Korea during the 19th and 20th century

10.00-10.30: HUANG, Wenchuan (Taipeh): The colonial legacy of street names in Hong Kong

10.30-11.00: Coffee break

11.00-11.30: LIŠČÁK, Vladimír (Prague): Han immigration to Taiwan since the 17th century and changes in place names

11.30-12.00: KANG, Peter (Taipeh): Hokkien toponyms in Batavia, Java: Cases from those used in minutes of the board meetings of the Chinese Council, 18c to 19c

12.00-12.30: ZAGÓRSKI, Bogusław (Warsaw): Arabic toponyms in migration

12.30-13.00: ZUNGU, Boni (Johannesburg): Siyapolotika!: evolutionary theory as a toponymic change and a redress strategy in post-apartheid South Africa

13.00-14.00: Lunch break

14.00-14.30: MAZIBUKO, Gugulethu (Durban): Renaming of places: The case of Melmoth in KwaZulu-Natal, South Africa

14.30-15.00: MATTHEWS, Philip (Lower Hut): The impact of British immigration on New Zealand geonames

Session 3: European situations I (Chair: Ferjan ORMELING, Amsterdam)

15.00-15.30: ALAS, Marit; KALLASMAA, Marja (Tallinn): Place-name use in Estonia – postcolonial situation

15.30-16.00: LAANSALU, Tiina (Tallinn): Transferred names and their interpretation in Estonian toponymy

16.00-16.30: Coffee break

16.30-17.00: WŁOSKOWICZ, Wojciech (Warsaw): Migrations as the cause of diachronic toponymic layers in the Bieszczady Mountains

17.00-17.30: MÁCHA, Přemysl (Ostrava): Migrants and migration in the linguistic landscape of a Moravian city

17.30-18.00: PAULIG, Helge (Dresden): The names of populated places in East Upper Lusatia as a result of Sorabic/Bohemian, German and Polish settlement

18.00-18.30: WEENINK, Peter A. (Ruimteschepper): Where the Chinese went to feed our Europe

19.30-open end: Social dinner invited by Peter JORDAN at the occasion of his 70th birthday (Esterhazykeller, 1010 Wien, Haarkhof 1, <https://www.esterhazykeller.at>)

Friday, 8 November 2019

Session 4: European situations II (Chair: Oliviu FELECAN, Baia Mare)

09.00-09.30: LUCARNO, Guido (Milan): The toponymy of Walser immigration in the Italian Alps since the 13th century

09.30-10.00: POHL, Heinz-Dieter (Klagenfurt am Wörthersee): Slovenian toponyms in Carinthia and East Tyrol

10.00-10.30: GERŠIČ, Matjaž; KLADNIK, Drago (Ljubljana): Etymological layers of geographical names in Slovenia

10.30-11.00: Coffee break

11.00-11.30: CRLJENKO, Ivana (Zagreb): Traces of Croatian migration in the toponymy of several European countries

11.30-12.00: SASI, Attila; MIKESY, Gábor (Budapest): Pannonian Basin – on the crossroads of peoples

12.00-12.30: FELECAN, Oliviu (Baia Mare): Romanian unofficial urban toponyms related to recent migration

12.30-13.00: MANU, Margareta Magda (Bucharest): Use of exonyms of the local groups by migrants (and vice versa): the case of Transylvanian multiethnic communities

From 15.00: **Guided excursions**

Albertina (art gallery)

Österreichische Galerie Belvedere (art gallery)

Map archive of the Federal Office of Metrology and Surveying

Museum of Globes

House of Austrian History

Leopold Museum (art gallery)

Representation Hall of the Austrian National Library

Kunsthistorisches Museum (art gallery)

Minimum number of participants: 5

Additional information:

Symposium language: English

No participation fee is requested.

Venue

Federal Office of Metrology and Surveying [Bundesamt für Eich- und Vermessungswesen (BEV)],
roof (8th) floor, **Schiffamtsgasse 1-3, 1020 Vienna**

Registration and conference office on the ground floor (open 6 November from 0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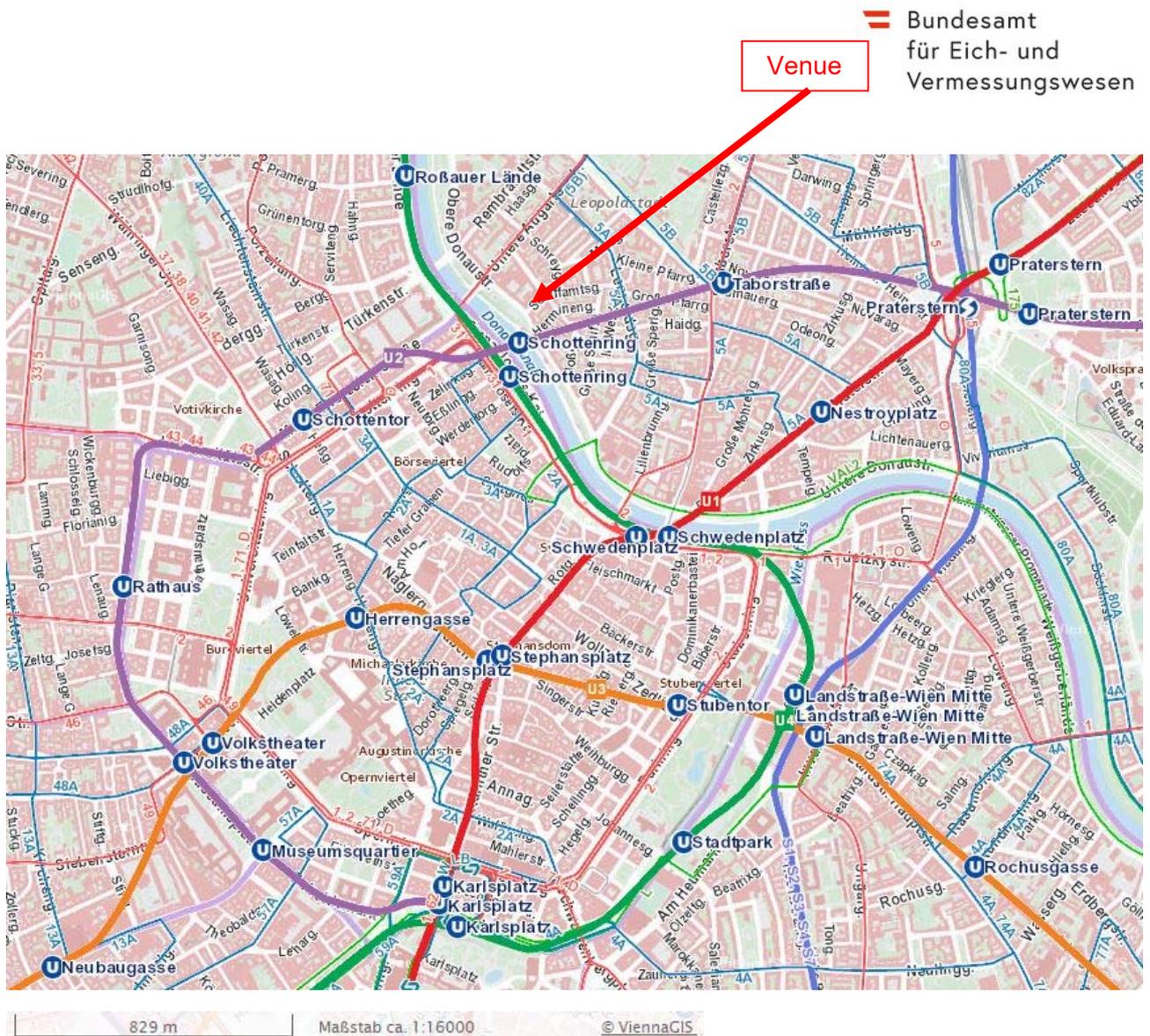
The venue is located near to Vienna downtown in the Second District and close to the underground station Schottenring, where two underground lines U2 and U4 (Exit U2 Herminengasse) are crossing.

The building closes at 19.00.

Accommodation

For reserving your hotel room, please, use one of the relevant websites and the list of hotels in the vicinity of our venue enclosed. Since an underground station is close to the venue, it may also be convenient to book a hotel along underground lines 2 and 4 in further distance from the venue – even up to their final station. It will take you not more than 30 minutes to arrive at the venue. Please note that providing for accommodation is your own responsibility.

Plan 1: Location of the venue in Vienna



IMPACT OF MIGRATION ON PLACE NAMES
A CASE OF THE IMPELLED MIGRATION BEFORE AND DURING THE KOREAN WAR

AKO GeoNames Symposium
Place Names and Migration
Vienna [Wien], 7 November 2019

CHOO Sungjae
Kyung Hee University
sjchoo@khu.ac.kr

YOON Jihwan
Konkuk University
amyjh07.yoon@gmail.com

Contents

- 1 Migration and place names: how are they connected?
- 2 Impelled migration: from North to South Korea, 1945-1953
- 3 Impact on place names in Korea
- 4 Further possibilities of elaboration

Contents

- 1 Migration and place names: how are they connected?
- 2 Impelled migration: from North to South Korea, 1945-1953
- 3 Impact on place names in Korea
- 4 Further possibilities of elaboration

01 Migration and place names: how are they connected?

Meanings of migration

- ▶ Movement of people, households and community
- ▶ Movement of culture, history, language, lifestyles
- ▶ Motivated by economic, social, political reasons
- ▶ Impacts on both origin and destination
- ▶ Creating new communities and group identities at the destination

01 Migration and place names: how are they connected?

Migration and place names

- ▶ Place names as a representation of new communities (from within or outside)
 - ▶ Place names as a transfer of memory, emotion, nostalgia and sense of home (from within)
 - ▶ Renaming for securing the territorial sense and constructing a place identity
-

5

01 Migration and place names: how are they connected?

Desire for stable territory

(Rose-Redwood, Alderman, and Azaryahu, 2010)

- ▶ Renaming occurs as a performative practice to make a new place more familiar to current occupiers
 - ▶ Using names of home to inscribe friendly texts that remind people of their home
 - ▶ Textual inscription to produce more “manageable” and “calculable” territory, e.g., Baghdad street names replaced with American place names
-

Rose-Redwood, Reuben, Alderman, Derek and Azaryahu, Maoz. 2010, Geographies of toponymic inscription: new directions in critical place-name studies, *Progress in Human Geography*, 34(4), 453–470.

6

01 Migration and place names: how are they connected?

Place names and collective identity

- ▶ New occupiers' desire for single identity
 - ▶ Names of home remind migrants of their origins and homogeneous identity
 - ▶ Homogeneous identity as basis for strangers working together and helping one another in new places, e.g., adopting brand names from place names of home
-

Alderman, D. (2008), Place, naming, and the interpretation of cultural landscapes. In Graham, B. and Howard, P., editors, *The Ashgate Research Companion to Heritage and Identity*, Aldershot: Ashgate, 195–213.

7

Contents

- 1 Migration and place names: how are they connected?
- 2 **Impelled migration: from North to South Korea, 1945-1953**
- 3 Impact on place names in Korea
- 4 Further possibilities of elaboration

02 Impelled migration from North to South Korea, 1945-1953

Major momentums of the modern Korea

- ▶ 1945. 8. 15. Liberation from Japanese colonial reign
- ▶ 1945. 9. 2. 38th parallel as borderlin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occupied by US and Soviet Union)
- ▶ 1948. 8. 15. Establishment of South Korean government
- ▶ 1948.10.10. Establishment of North Korean government
- ▶ 1950. 6. 25.-1953. 7. 27. Korean War (ended by armistice), DMZ (demilitarized zone) as a new borderline

9



Phases of the War

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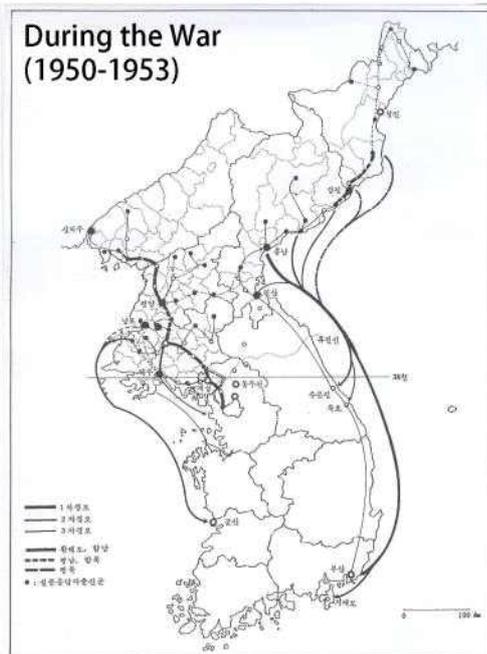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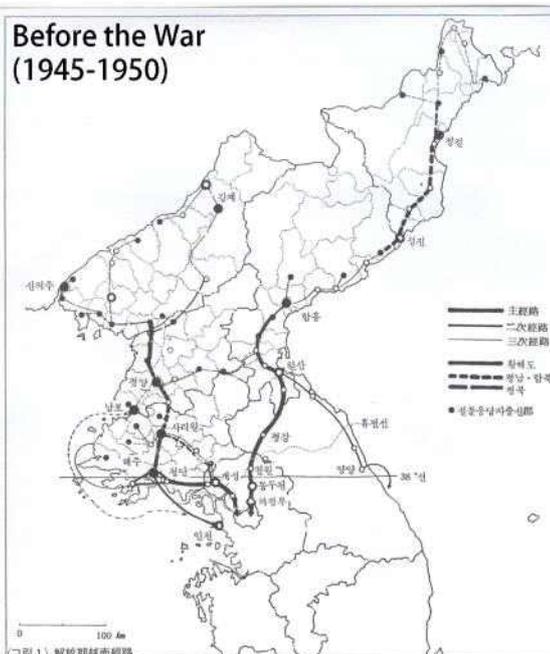
02 Impelled migration from North to South Korea, 1945-1953

Migration from North to South Korea, 1945-1953

- ▶ Mostly, impelled migration escaping from communism
- ▶ Estimated to be 1.4 million: 0.8('45-'50) + 0.6('50-'53)
- ▶ Continuous movement due to the phases of the War (guided by recommended routes by the government)
- ▶ Settled down at large cities and border areas, influenced by migration routes and migrant origins
- ▶ Formulating several clusters of migrants

11

Routes of migration



Source: Lee(1986)

Places of destination

Migrants Before the War (1945-19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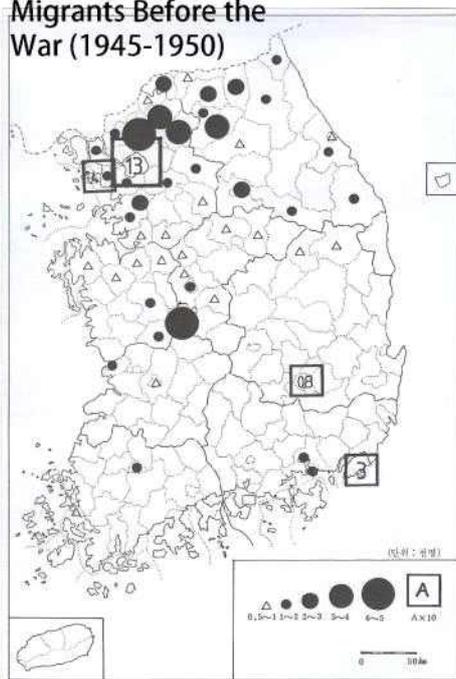


그림 7) 해방기 전남도의 남한세 분포
(자료: 1955 census)

Migrants during the War (1950-19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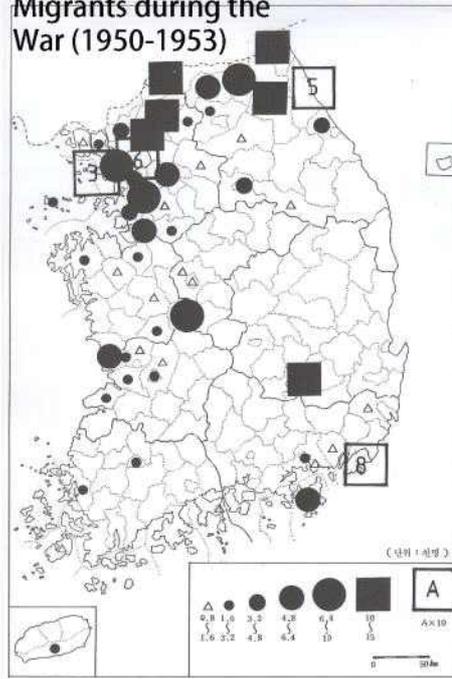


그림 8) 動亂期 濟南島の 移住内 分佈
(자료: 1955 census)

Source: Lee(1986)

02 Impelled migration from North to South Korea, 1945-1953

Migrants' sufferings and identity: case studies

- ▶ Indigenous people of Jeju Island afflicted migrants from North Korea (Kim, 2017: 231-232)
- ▶ Migrants needed emotional care and practical assistance
- ▶ Homogenous identity based on the same locality motivated mutual helps and encouragements (Lee, 2017: 205-206)

Contents

- 1 Migration and place names: how are they connected?
- 2 Impelled migration: from North to South Korea, 1945-1953
- 3 Impact on place names
- 4 Further possibilities of elaboration

03 Impacts on place names

Two case areas:
Haebangchon (Seoul)
Abaimaeul (Sokcho, Gangwon-do)



03 Impacts on place names



Haebangchon (aka HBC): name & formulation

- 해방(haebang = liberation) + 촌(chon = village)
Officially called 용산2가동(Yongsan-i-ga-dong)
- Liberated from communism (or from Japan)
- Under Namsan (Mt.) near downtown, near US troops base, Japanese military ground
- Mixed migrants (from North, from abroad)
- Migrants from west part, e.g., Seoncheon (선천)



03 Impacts on place names



Haebangchon (aka HBC): place names & identities

- Names: Haebangchon, Sinheung-dong (신흥동 = newly prospering village)
- Derivatives to names of streets, restaurants, market, churches (with “Seoncheon”)
- Identities of North Korean migrants (refugees) accumulated to place names
- No transplanted names



03 Impacts on place names



Abaimaetul: name & formulation

- 아바이 (Abai = father) + 마을 (maeul = village)
Officially called 청호동 (Cheongho-dong)
- Celebrating male migrants, sometimes married to South Korean females
- Isolated area facing the coast, near US troops base
- Migrants from eastern part, e.g., Heungnam (흥남), Bukcheong (북청), Dancheon (단천)



03 Impacts on place names



Abimaepul: place names & identities

- Names: Abimaepul, Cheongho-dong (청호동, named after Cheongchoho (Lake) nearby), 갯배 (Gaetbae, ferry)
- Derivatives to names of streets, restaurants, (with “Dancheon,” “Bukcheong”)
- Identities of North Korean migrants (refugees) accumulated to place names
- No transplanted names



03 Impacts on place names

Impacts on place names: Preliminary findings from two cases

- ▶ Settled down in disadvantaged areas and created new place names (from within and from outside)
- ▶ Accumulating stable identities upon new names and also upon existing names (from within)
- ▶ Using hometown names for shop names to represent their identities, maintain sense of belonging and give trust
- ▶ Little noticeable linguistic adaptations, just using dialects, e.g., Abai rather than Abeoji (father)
- ▶ No transplanted names

Contents

- 1 Migration and place names: how are they connected?
- 2 Impelled migration: from North to South Korea, 1945-1953
- 3 Impact on place names in Korea
- 4 **Further possibilities of elaboration**

04 Further possibilities of elaboration

Future research tasks

-
- ▶ Naming history focusing on toponymic alterations and their impacts on migrants' identities
 - ▶ Relations between migrants' community attributes and naming issues
 - ▶ Change of naming practices as the first generations passed away
 - ▶ Practical benefits from using names of home in a new place
 - ▶ Prospective use of place identity as migrants' village for tourism
-

04 Further possibilities of elaboration

Restrictions and feasibilities

- ▶ Death of the first generation
 - ▶ Very few literature and archives of naming history
 - ▶ Lack of qualitative evidences about impacts of renaming

 - ▶ Toponymic landscapes
 - ▶ Assists from local culture and history narrators
-

18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CHOO Sungjae
sjchoo@khu.ac.kr

28 June 2017

Original: English

**11th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

New York, 8 -17 August 2017

Item 4 of the provisional agenda*

**Reflection on the past, present and future, the fiftieth anniversary of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

Norden Division

**A short outline of the Division's composition, history and
contribution as of 2017**

Submitted by Norway **

* E/CONF.105/1

** Prepared by Botolv Helleland, Norway

NORDEN DIVISION

A short outline of the Division's composition, history and contribution as of 2017 Submitted by Botolv Helleland, Norway

I. Introduction

The Norden Division is one of 14 linguistic/geographical divisions which were created at the second UNCSGN in 1972 (currently the number is 24). Following seven countries are members of the Division: Denmark, Finland, Faroe Islands, Greenland (Nuuk), Iceland, Norway, and Sweden (Faroe Islands and Greenland are Danish dependencies with self-government).

All countries represent Scandinavian languages, but Finland only for the part of its other national language Swedish. The other national language of Finland, Finnish, and Saami languages are Uralic languages. The domicile area of people speaking Saami languages crosses the borders of countries and covers northern parts of the Norden Division member states Norway, Sweden and Finland.

Normally the chair serves for the period between two Conferences. The first chair person of the Division was Per Hovda (Norway). Then followed Allan Rostvik (Sweden) Eeva Maria Närhi (Finland), Botolv Helleland (Norway), Hans Ringstam (Sweden), Sirkka Paikkala (Finland) and Peder Gammeltoft (Denmark – two terms). Ingvil Nordland, Norway, will serve as chair after the 11th UNCSGN. The Division reports regularly to UNGEGN and UNCSGN. All countries of the Division are involved in its work. For example, in the seven sessions held in the 21st century, the member states of the ND have presented 55 working papers (Norway 18, Sweden 12, Finland 23, and Denmark 2. Iceland has reported in the Division reports).

I. Homepage/website

The Norden Division has had its own homepage (website) since 2008 (<http://nordendivision.nfi.ku.dk/>). The homepage is organized according to UNGEGN Resolution I/4 from 1967 on National Standardization. The aim of the homepage is to present concise information about UNGEGN issues within the Norden Division area with links to additional information within the UNGEGN structure and within the national authorities of the Norden Division. The representatives of the member countries are encouraged to submit news for inclusion in the homepage. Thus the homepage gives the member countries opportunity to keep themselves updated on geographical names activities in the other countries of the Division. Most of the reports from the Division are accessible at the UNGEGN home page (<https://unstats.un.org/unsd/geoinfo/UNGEGN/sessions.html>).

The Norden Division homepage was created by Peder Gammeltoft at the start of his first term as Chair of the Division. He has accepted to being in charge of the homepage for a third term. The homepage is being updated regularly.

II. Norden Divison – composition and meetings

From the beginning, the members of the Division were partly cartographers and partly philologists (name researchers), but also persons with other relevant background might participate. The costs, such as travelling expenses, were normally covered by the overall governmental bodies.

The Chair of the Division is elected in the year of the Conference and normally serves for the adjacent term, i.e. five years. A secretary is also elected for the same term, normally from the same country as the Chair. The chairmanship switches between the member countries.



The Norden Division members participating in the Tenth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 New York, 31 July – 9 August 2012. First row from the left: Botolv Helleland (President of the Tenth UNCSGN, Norway), Johnny Andersen (Norway), Carl Christian Olsen (Greenland), Teemu Leskinen (Finland), Staffan Nyström (Sweden), Sirkka Paikkala (Finland), Peder Gammeltoft (Chair, Denmark), Annette Torensjö (Sweden), John Jensen (Denmark), Leif Nilsson (Sweden). The back row representing the organizers, from the left: Helen Kerfoot (Previous UNGEGN Chair, Canada), Sergei Cherniavsky (Secretary of the Conference), Stefan Schweinfest (Director of the UN Statistics Division), Bill Watt (UNGEGN Chair, Australia).

The Division has met regularly since the start, including meetings during UNGEGN Sessions and Conferences. On some occasions the Division meetings were organized in combination with other meetings such as toponymic conferences. From 1997 and onwards the Division has reported directly to the Conferences.

During Finland's chairmanship in 2002–2007, Denmark joined the Norden Division meetings again after a period of absence. Both Greenland and Iceland took part in the Division and UNGEGN activities during that period for the first time.

III. Activities and achievements

This chapter does not give a complete outline of the Division's activities and achievements. Already at the first Conference in 1967, Denmark, Norway and Sweden gave an account of a common Scandinavian transcription for geographical names written in the Cyrillic alphabet and that a similar work for transcription from other writing systems like Arabic and Chinese was in progress (https://unstats.un.org/Unsd/geoinfo/UNGEGN/docs/1st-uncsgn-docs/e_conf_53_L67_en.pdf). At the first conference in 1967 the definition of an essential concept, *generic term*, was discussed (Committee II). Finland proposed a new text for the definition. Seconded by other delegates this text was approved, and included in the Resolution I/19 C Definition of "generic term". The three Scandinavian countries also reported on a common spelling of the sea name *Skagerrak*. At the Fourth Conference the Division reported on a list on Nordic spelling forms of states, inhabitant names and connected adjectives, issued by the Scandinavian Languages Secretariat.

The Norden Division has been active in taking care and reminding of the cultural aspects of place names, compiling guidelines on different topics, such as commemorative naming, name planning in multilingual areas, gazetteers on exonyms, dictionaries on place names and compiling place name databases. Finland has also been very active in matters concerning bilingualism and taking it into account in legislation, in office treatment of multilingual names and in names written in maps.

In 1989 the Norden Division organized a meeting in Gävle, Sweden, to discuss uniformity on maps and charts as well as the status of toponymic data bases in the Nordic countries.

At the Division meeting in March 1992 in Helsinki, Finland, the participants discussed the reduction of exonyms in line with the UNGEGN resolutions. Other topics at the meeting were the stability of the Romanization systems and how to trigger the implementation of recommendations of UNGEGN in internal institutions (https://unstats.un.org/Unsd/geoinfo/UNGEGN/docs/6th-uncsgn-docs/e_conf_85_L67.pdf). An ad hoc group was set up to discuss a common policy for reducing exonyms in accordance with the resolutions II 28, 29, III 18, 19, IV 20). In connection with the European Heritage

Days in 1999 Finland chose “Place names — the memory of places” as a theme. In 2010 the European Heritage Days were celebrated in Finland in co-operation with a campaign for the cultural environment (Jokaisen Oma Ympäristö) coordinated by the Finnish Local Heritage Federation. With connection to the campaign, an exhibition presenting place names (their origin, planning, collecting and recording) and checking the names on a basic map was arranged in Finnish, Swedish, Saami and English. The English version of the exhibition, “The Story of a Place Name”, is available at https://www.kotus.fi/en/on_language/names/the_story_of_a_place_name

At the Division meeting in Oslo 2005, Sirkka Paikkala (Finland) presented amendments to the statute of UNGEGN with relation to the cultural value of the geographical names. These amendments were presented again in the 29th session of UNGEGN in Bangkok (WP.55/20) by the Working Group on Geographical Names as Cultural Heritage. The Group of Experts decided to recommend to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amendments to the statute, as contained in working paper WP.55/20.

At the Division meeting in Copenhagen in June 2012 the various countries reported on the progress and changes since the last meeting. Greenland for instance, referred to a publication of new sea charts where geographical names were entered onto the maps in Greenlandic (Inuit). For this work, a number of new geographical names have been recorded topographical maps.

Systematic field collection of place names is a topic which has been discussed and followed up regularly, and all the countries of the division have produced manuals for this work. A Swedish publication on the work of UNGEGN (in Swedish) was presented at the 23rd Session in 2006. All the countries have been active in digitalization projects of place names.

V. Division meetings in cooperation with other divisions and organizations

Since the early 1970ies the Norden Division has organized meetings in combination with conferences and seminars dealing with geographical names standardization and other toponymic issues. Thus Norway reported on a joint Nordic symposium on place names terminology in Oslo in October 1972, being the first symposium of the newly established Nordic Cooperative Committee for Onomastic Research (NORNA). In the subsequent years NORNA organized a number of symposia within name research, including place names standardization.

There has been a close cooperation between the Norden Division and the Baltic Division since the very first meeting of the Baltic Division in 1995. At that meeting two experts from the Norden Division were present. In 1997 toponymic courses were organized in Riga, with support by experts from Finland, Norway and Sweden. In 2013 a joint day of meetings of both divisions was held in Tallinn, followed by a seminar on Integration of onomastic data into geo-spatial infrastructure (http://www.eki.ee/knn/ungegn/bd16_seminar_ag.htm).

In October 2010 a joint arrangement between the Norden Division and the Working Group on Toponymic Terminology took place at the Department for Language and Folklore in Uppsala, Sweden (https://unstats.un.org/unsd/geoinfo/UNGEGN/docs/26th-gegn-docs/WP/WP80_Report%20of%20the%20Working%20Group%20on%20Toponymic%20Terminology2.pdf).

A joint meeting of the Norden Division and the Working Group on Geographical Names as Cultural Heritage took place in September 2015 at the Department of Nordic Research at Copenhagen. This meeting was also attended by members of the Working Group on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and the Working Group on Publicity and Funding.

VI. Toponymic guidelines

At the Fourth Conference the Norden Division reported that toponymic guidelines for cartography were presented by all the Nordic countries. Several countries have submitted updated versions of the guidelines at later Conferences and Sessions. For instance, Finland has presented 4 editions (1981, 1994, 1998 and 2004), and 10 revised versions. The last editions are searchable at the UNGEGN Homepage.

VII. Handling of geographical names in minority areas

At the Second Conference the Norden Division presented a draft resolution recommending that native speakers, where possible, adopt a common orthography for all geographical names of the minority language. At the Third Conference the Division reported that the Saami organizations in the northernmost parts of Norway, Sweden and Finland had agreed upon a common North Saami orthography. At the Fifth Conference it was reported that the new spelling had been used in the revised maps. The status of geographical names used by minorities in the Nordic countries was further discussed at a meeting 1992. This also includes Kvenish (Finnish) in Northern Norway.

By law, road signs in Norwegian Saami municipalities shall have the Saami name on top. This makes sense in most cases but can leave to confusion in some situations, mostly larger cities, where the Saami name is less used. The administration recommends making the order of names voluntary. In Finland the Finnish name is always mentioned first, followed by possible North Saami, Inari Saami and Skolt Saami names – in this particular order. Order is not defined in the law.

Since 1984, the Greenland Place Names Committee (Nunat Aqqinik Aalajangiisartut, <http://nordendivision.nfi.ku.dk/authorities/>) has been in charge of place names standardization in Greenland. Inuit names are used in maps and on signs etc. Since 2011, the Faroe Islands have had its own place names committee, Staðarnavnnevndin.

As a joint project of the Norden Division countries, the Nordic Place Names Database and a corresponding web service, NONDB, was published in 1999. The NONDB project was coordinated, and the database hosted by the National Land Survey of Finland. The database included some 2000 standardized geographical names, from all Nordic mapping agencies' datasets. The character set standard applied was Unicode, in order to handle, e.g., the Saami names and spellings properly. Due to outdated technology, the NONDB database and service were shut down in 2007.

The Norden Division is looking into the possibility of producing an online web-service based resource for Minority geographical names within the Norden Division area. For the other countries see <http://nordendivision.nfi.ku.dk/legislation/>

VIII. Legislation and geographical name usage

All countries within the Norden Division have language laws and regulations on language use, only a few Nordic countries have specific laws on geographical names (Greenland and Norway). Elsewhere in the Norden Division countries, geographical names regulations are either embedded in other, non-name-specific, laws or exist in the form of departmental orders (<http://nordendivision.nfi.ku.dk/legislation/>). In Sweden geographical names are treated according to the Act concerning Ancient Monuments and Finds. In Finland suggestions for enacting an Act on Place Names have been made several times, lastly in January 2014 as part of the Action Plan for Clear Administrative Language. Finland ratified the UNESCO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May 2013.

The first comprehensive legislation on geographical names in Iceland was passed in Parliament in March 2015. The Act states that the National Land Survey of Iceland is responsible for registration, maintenance and dissemination of a geographical names database in consultation with the Institute for Icelandic Studies. A revision of the Norwegian Place-names Act of 1990 with amendments of 2005 was passed by the Parliament in June 2016. The new law gives land owners the right to decide on the spelling of the names of their single holdings.

A table containing the main points of legislation and the main steps in the standardization procedure in the Norden Division countries is shown below.

NORDEN DIVISION

Country	Legislation	Consultancy	Decision-maker
Denmark	Departmental order of 1978	Place-Name Committee and Name Research Section at University of Copenhagen	<i>Authorized geographical names:</i> Place-Name Committee under the Ministry of Culture; <i>Names of municipalities and regions:</i> Ministry of the Interior; <i>Names on mapping products:</i> The Agency for Data Supply and Efficiency; <i>Names of streets, roads and squares:</i> Municipalities
Greenland	Greenland Parliament Law 1989, Home Rule Departmental Order 1990	Nunat Aqqinik Aalajangiisartut (Greenland Place Names Committee)	<i>Authorized geographical names:</i> Nunat Aqqinik Aalajangiisartut (Greenland Place Names Committee); <i>Names of streets, roads and squares:</i> Municipalities
Faroe Islands	Faroese Parliament Law 2010	Staðarnavnanevndin (Faroe Islands Place Names Committee)	<i>Authorized geographical names:</i> Staðarnavnanevndin (Faroe Islands Place Names Committee)
Finland	No specific law covering place names	The University of Oulu (Saami names) and according to the law the Institute for the Languages of Finland (Finnish and Swedish names)	The National Land Survey for inherited toponyms (after consulting the above-mentioned institutes), municipalities for street names, government for names of administrative units
Iceland	Law on Place Names 2015	The Árni Magnússon Institute for Icelandic Studies, Division of Place Names	Municipalities. Government for areas outside municipalities. The Place Names Committee can rule about place names
Norway	Law on Standardization of Place Names 1990, revised 2015. Regulation of 1991, 2017	Regional Place names consultants administered by the Norwegian Language Council and the Saami Parliament	The Mapping Authority for names of settlements and natural features. Government for names of towns and administrative divisions. The municipalities for street names and other urban names
Sweden	The paragraph on 'good place-name	The Institute for Language and Folklore,	Lantmäteriet (The Mapping, Cadastral and Land Registration

	practice' in the Historic Environment Act. Regulation with instructions for Lantmäteriet	the Swedish National Heritage Board, the municipalities	Authority) for names of settlements, real estates and natural features. The municipalities for street names and other urban names
--	--	---	---

Table 1. Survey of the main steps of the standardization procedure in the countries of the Norden Division: Legislation, consultancies and decisions-makers.

IX. Individual contributions to UNGEGN and Conferences

Members of the Norden Division have contributed in several ways to UNGEGN, such as drafting resolutions and acting as elected representatives at Sessions and Conferences. Members of the Division have also taken responsibility in Working Groups and contributed to special presentations.

X. Challenges – looking ahead

There is all reason to believe that the Norden Division will continue its contribution to UNGEGN. Hopefully other countries have taken advantage of some of the Division's presentations at Sessions and Conferences. At the same time the Nordic countries have benefited from the initiatives and experiences presented by other countries. Looking ahead, some of the challenges are attached to the increasing influence by unofficial and private use of geographical names, in particular the use of business names as place names. English is strengthening its influence, a fact which may be a threat to smaller languages. Protecting and preserving inherited names is a major issue for all countries and a concern for UNGEGN.

The work in the Division itself has proved to be very useful both in terms of exchanging knowledge within the Division and promoting cooperation in various fields of geographical names. Although the universities tend to reduce the resources for name research the interest for place names is noticeable among the public. A scientific approach to geographical names remains a paramount precondition for a responsible handling of geographical names. Also in this respect the Norden Division will continue to contribute.

28 June 2017

Original: English

**11th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

New York, 8 -17 August 2017

Item 6 of the provisional agenda*

**Reports on the work of the United Nations Group of Experts
on Geographical Names, its divisions, working groups and
task teams since the Tenth Conference**

**Report of the Norden Division
(Denmark, Finland, Iceland, Norway, Sweden)**

Submitted by the Norden Division **

* E/CONF.105/1

** Prepared by Peder Gammeltoft (Denmark), Chair, Norden Division

Resolutions concerned:

I/4, I/8, II/4, II/28, II/29,
III/5, III/17, III/20, V/13,
VIII/1, X/4, IX/4, IX/5

Content:

I. Divisional meetings

II. Norden Division homepage

III. Joint Norden Division project

IV. Change of Norden Division Chairmanship

V. Geographical name laws and geographical name usage within the Norden Division area

VI. Norden Division activities in UNGEGN

VII. Geographical names news in the Norden Division area

I. Divisional meetings

Since the 29th Session in Bangkok 2016, the Norden Division has held two meetings. The first meeting took place on April 28th 2016 in connection with the 29th UNGEGN Session. The second division meeting took place at Oslo Gardermoen Airport on March 24th 2017 as part of the preparation for the joint 11th UNCSGN Conference and the 30th UNGEGN Session. The next Division meeting will take place on August 8th 2017 at the 11th UNCSGN Conference, in Room CR-C, 1:15pm-2:45pm.

There were 5 persons present at the 2016 Norden Division meeting, where the Norden Division homepage was discussed and an update was given on ELF (European Location Framework), INSPIRE and EGN (EuroGeoNames). At the 2017 division meeting in Oslo, there were 11 persons present and items such as preparations for the 11th UNCSGN Conference/30th UNGEGN Session, the future relationship UNGEGN - UN-GGIM, news from ELF, INSPIRE and EGN and news from the Norden Division area, including the Division homepage, were discussed. The main point, however, was the business of the change of Chair from Denmark to Norway (see Item IV below). For more information on the 2016 and 2017 Minutes, please see the [Norden Division Meetings page](#).

II. Norden Division homepage

The Norden Division has had its own homepage since 2008: <http://nordendivision.nfi.ku.dk/>. In 2017, there has been a minor revision of some of the subpages of the homepage in order to reflect current state of affairs in the Norden Division and among division countries. The homepage fulfils its aim in presenting concise and up-to-date information about UNGEGN and the Norden Division.

III. Joint Norden Division project

As reported in previous Norden Division Reports, geographical names used by indigenous and minority language groups are standardized, maintained and disseminated at a national level even though these groups as entities are often transnational. To remedy this, the Norden Division is considering producing an online web-service based resource for these geographical names of the Norden Division area, although no final decision in the matter has been made. However, with the release of official or nationally standardized NMA geographical names in Denmark, Finland, Norway and Sweden through web-services, this possibility has become increasingly feasible.

IV. Change of Norden Division Chairmanship

Denmark, with Peder Gammeltoft as its chair, has held the Norden Division chairmanship in two periods, and feels that it is now time to let the chairmanship be administered by another division member. With the decision of The Norwegian Language Council (*Språkrådet*) to take on the chairmanship responsibilities, the Norden Division will change chair on 8th August 2017 at the Norden Division Meeting at the 11th UNCSGN Conference (see Item I above). The new Norden Division chair will be Ingvil Nordland of The Norwegian Language Council. In order to aid the smooth transition of chairmanship, Peder Gammeltoft will be the new division secretary and will maintain the Norden Division homepage.

V. Geographical name legislation and geographical name usage within the Norden Division area

Denmark:

Legislation, registration, administration and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

With the new Law on Geographic Information in 2017, provisions are being made for a departmental order or law, which specifies the requirements for the registration, standardization and management of geographical names in Denmark.

In connection with improving coherence in the registration of Danish geographical names and strengthening the administrative uses of geographical names, the requirements necessary for the standardization and authorization of the 130,000 geographical names in the NMA geographical names register are being investigated. The ambition is to have register standardized, with as few exceptions as possible.

The Agency for Data Supply and Efficiency has established an online portal, Danske Stednavne (Danish geographical names), for registering new geographical names and cross-authority administration of existing named features. All e-registered geographical names are subsequently processed by the agency in relation to relevance, categorization and location before they are established in the portal. In addition, the agency offers its geographical names data in different web services, where users can freely retrieve geographical names data.

In 2013, the Danish Government, Danish Regions and Local Government Denmark decided to create better coherence in data concerning citizens, businesses, real estate, buildings, addresses and geographical names, etc. (Basic Data) to support efficiency and growth i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It provides new opportunities for using geographical names to search information across public records and official registers. The Basic Data Program has increased the use of geographical names for administrative purposes and data management by the Danish administration, citizens and private enterprises.

Finland:

Legislation

In January 2014, the working group on clear administrative language, appoin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published a plan of action to improve the language of authorities (Hyvän virkakielen toimintaohjelma, 'Action Plan for Clear Administrative Language'). As one concrete proposal concerning the communication of the authorities, the plan of action includes a suggestion an Act on Place Names to clarify the usage of traditional geographical names and the planning of new official names.

Norway:

Legislation

The Norwegian Place-Names Act of 1990, with amendments of 2006, was revised again in July 2015. The Norwegian Mapping Authority is responsible for implementing the Act and decides the spelling of the vast majority of traditional geographical names in Norway. The revised Act helps to clarify the responsibilities between the municipalities and the Mapping Authority. The most significant change in the 2015 Act concerned the spelling of names on smallholdings. With the latest amendment, the owner of a smallholding has the right to decide the spelling of the geographical name of his or her property as long as documentation of such spelling can be obtained. Since July 2015, 253 names of single holdings have been determined. Out of them, the owner decided the spelling of 73 names. The revised Act has led to fewer cases than expected.

Geographical names and linguistic minorities

Although the Place-Name Act and the Saami Act have been in force for over 20 years, their implementation is lacking on several levels. One positive development has been in representing Saami geographical names on road signs. The Norwegian Road Commission has decided that Saami geographical names will be on existing road signs and when new road signs are being put up.

Geographical Names Register

Sentralt Stedsnavnregister (The Central Place-Names Register), which was founded on the Place-Names Act and administered by the Mapping Authority, contains the approved forms of geographical names in accordance with the Place-Names Act. The register currently contains 996,000 geographical names with 1,178,000 spellings of 975,000 named places. About 105 000 spellings are determined by law.

The Place-Names Register was renewed and put into production 2016, as reported in the last division report.

Sweden:

Geographical names legislation

The Swedish Historic Environment Act (Sw. Kulturmiljölagen) was revised in 2000 and 2013. Since 2000 it has included a paragraph advocating "good place-name practice" in central, regional and local government. Emphasis is on the importance of preserving geographical names as a part of the nation's cultural heritage. In the latest amendment to the Act, the geographical names of one of the five national minority languages, Meänkieli, were additionally strengthened and must now be used along with the Swedish, Saami and Finnish names on maps and on signs in multilingual areas.

The 2013 amendment also strengthened the normative role of Lantmäteriet in the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

Safe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weden ratified the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CH, 2003) in January 2011. The Swedish Government has assigned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to the Institute for Language and Folklore. Good geographical name practice includes preserving established geographical names in their correct linguistic forms as long as the group of name-users acknowledge them.

The Geographical Names Network

As reported in the last division report, Swedish Ministry for Foreign Affairs set up the Geographical Names Network (Sw. Namnvårdsgruppen) in 2013. The purpose of this group of experts is to raise awareness and gain knowledge about how best to standardize foreign names of countries and other important geographical places outside of Sweden. The group shall provide guidance on matters of principle, as well as develop Swedish terminology, promote good geographical name practice, and make recommendations on individual name issues.

VI. Norden Division activities in UNGEGN

Norden Division members are very active in UNGEGN, not only holding three Working Group Convenorships, but also giving several Working Papers at the 10. UNCISGN Conference/31. UNGEGN Session, including under Agenda Items:

- 4. Reflections on the past, present and future
 - *Report of the history of the Norden Division* (Norway)
- 5. Reports by Governments on the situation in their countries and on the progress made in the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 since the Tenth Conference
 - *Report of Denmark* (Denmark)

- *Report of Finland* (Finland)
- *Report of Norway* (Norway)
- *Report of Sweden* (Sweden)
- 6. Reports of the Divisions, Working Groups and Task Teams:
 - *Report of the Norden Division* (Norden Division).
- 7. National and international meetings, conferences, symposiums, publicity and publications.
 -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Publicity and Funding* (Denmark).
 - *Working Paper by the Liasons Officer for ICOS*.
- 9.b. National standardization – Office treatment of names
 - *An Online Service for Settlement Names in Finland* (Finland)
 - *Working Paper on the new version of God ortnamnsed (Good Place-Name Practice)* (Sweden)
- 9.d. National standardization – Administrative structure of national names authorities, legislation, policies and procedures
 - *Working Paper on the new Swedish National Names Network* (Sweden)
- 9.e. National standardization – Toponymic guidelines for map and other editors for international use:
 - *Update of Toponymic guidelines for map editors and other editors* (Denmark).
 - *Update of Toponymic guidelines for map editors and other editors* (Finland).
- 10: Activities relating to the Working Group on Geographical Names as Cultural Heritage
 -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Geographical Names as Cultural Heritage* (Sweden)
- 13: Activities relating to the Working Group on Toponymic Terminology
 -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oponymic Terminology* (Sweden).

VII. Geographical names news in the Norden Division area

Denmark:

Digitization of geographical names archives

The Name Research Section at the University of Copenhagen has long been focused on digitizing its geographical names records, in order to establish new platforms for onomastic research and administration name records. The section's research portal *Danmarks Stednavne* (<http://danmarksstednavne.navneforskning.ku.dk/>) was launched in 2012 and contains 210,000 geographical names, their interpretation and historical forms. In addition, provision has been made to digitize all the main paper-slip archives of the Name Research Section in 2017, in total 1.6 million documents. This material will, like the existing research portal, be made available for open use and form part of the section's digital name research resources.

Finland:

Digitization of geographical names archives

The digitalisation of the names collection (Names Archive) of the Institute for the languages of Finland is going on. The project aims to convert all of the archive's geographical name cards, data capture maps and the attributes and metadata related to them into digital format. Objective is to open the digital archive at the end of year 2017.

An Online Service for Settlement Names in Finland

The index of inhabited places in Finland was released free-of-charge (<http://kaino.kotus.fi/asutusnimihakemisto/>) in December 2016. The index contains over 20 000 names of Finnish towns, villages and other inhabited places with information of not only the name forms but also their inflection and correctly derived inhabitant name forms.

Meetings

The Swedish language name consultant at the Institute for the Languages of Finland regularly partakes in the meetings of the Swedish Geographical Names Network (see under Item V.),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network.

Norway:

Geographical Names Archives and Consultancies

The University of Oslo decided to discontinue the Language Archives and the associated Name Archives and its Place-Name Research Group in 2015. In 2016, the archives were relocated to the University of Bergen, albeit with less academic and financial resources. It is still unknown if the relocation of the Language Archives will result in a vitalisation of the Name Research environment of Norway.

Geographical names and linguistic minorities

A white paper on the Saami language, *Hjertespråket - Forslag til lovverk, tiltak og ordninger for Saamiske språk*, <https://www.regjeringen.no/no/dokumenter/nou-2016-18/id2515222/>. Among other things, the white paper discusses the safeguarding and use of Saami geographical names.

Meetings

The Mapping Authority and the Place-Names Consultancies/Norwegian Language Council assemble yearly to discuss legal, professional and organizational matters regarding the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 There are approximately 30 participants at these meetings. The Ministry of Cultural Affairs has been represented on the meetings in 2014 and 2016. The revision of the Place-Name Act and its guidelines has been the most important discussion point at these meetings over the past five years.

The Norwegian Names Association (Norsk namnelag) held its general assembly on 15th November 2016, combined with a conference focusing on the revised Place-Name Act. The next meeting is planned for 2018.

Sweden:

A revised guide to name standardization

The booklet *God ortnamnssed* (Good place-name practice) was first publicized by Lantmäteriet in 2001, in a publication series from Lantmäteriet. Each issue covers a specific topic within the field of geographical names, name care and name standardization. A revised edition of the guide was published in 2016 (84 pp., in Swedish only), incorporating the latest developments in geographical names standardization in Sweden.

Discouraging commercialization of geographical names

In the work with implementing the UNGEGN resolution X/4 Discouraging the commercialization of geographical names, the Place-Name Advisory Board is working on a set of recommendations to discourage the commercialization of geographical names and counter the creation and use of geographical names for commercial purposes.

Changes to the administrative divisions of Sweden under way

A government committee will in August 2017 propose new first-level subdivisions which should result in Sweden being divided into substantially fewer counties. The governmental investigation will be basing its findings on a number of parameters, such as the needs of citizens and businesses, including transportation, labour, health care, education, culture and a healthy environment. The aim is to create an appropriate subdivision and effective organizations that causes permanent benefits including a better adaptation to demographic, nutritional, geographical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The Institute for Language and Folklore and Lantmäteriet has pointed out the need for good geographical name practice in the Committee's work.



United Nations Group of Experts
on Geographical Names (UNGEGN)

별첨 8

UNGEGN Bulletin

INFORMATION BULLETIN

No. 55 DECEMBER 2018

Legislation on Geographical Names





SPECIAL FEATURE

Legislation on geographical names

Legislation on geographical names in Argentina

In 1877, by Law N° 842, studies on the coast of Buenos Aires began. This event preceded the creation, in 1879, of the Central Office of Hydrography, which was created by Decree N° 11.289 of President Avellaneda.

The Military Topographic Office was created in the same year (preceding the current National Geographic Institute), in the need to map the new territories incorporated by the Argentine government during the 1800's.

The Navy, through the Central Office of Hydrography, (which today is known as the Argentine Naval Hydrographic Service), began a sustained effort to develop nautical cartography, necessary for the safety in navigation, and in 1883 the first chart was published, corresponding to the Bay of San Blas, on the south coast of the Buenos Aires province.

In 1917 the Argentine Navy expresses concerns over the standardization of toponymy in relation to the charts made by the hydrographic commissions. This led to the General Order No. 264 of the Navy Minister Álvarez Toledo in which the first prescriptions regarding toponymy are made. This General Order was in force until the creation of the Geographical Coordination Commission, created by a resolution of the Ministry of Defense in 1950.

This event can be considered as the first attempt to standardize the toponymy in the Argentine Republic, before, even, of the foundation of the IHO in 1921 and the United Nations in 1945.

In 1941 and 1954 the Law N° 2.696 "Law of the Chart" and the "Hydrographic Law", respectively are promulgated, designing the National Geographic Institute and the Argentine Naval Hydrographic Service as the authorities responsible for the publication and control of national charts, and since the geographical names were considered part of the charts, both institutes indirectly regulated the official toponymy.

Since the early 50's, the Argentine expeditions have followed the Toponymic Policy, developed and published by the Argentine Navy, in order to avoid name duplication.

Until 1951, the General Order No. 264 of 1917 was applied in the hydrographic tasks. On April 9, 1952, the Ministry of the Navy approved the project submitted by the Directorate General of Navigation and Hydrography, in File 1-N 421 "R" / 952. Regarding the Toponymic Policy to be applied in Antarctica,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adopted the Navy criteria for the work carried out by the Armed Forces.

New toponyms were imposed by the Argentine Hydrographic Service in the Antarctic chart published in 1947. With the scientific advances, Antarctic charts were perfected according to a plan for nautical publications formulated in 1957.

Many names were assigned and approved by the Geographic Coordination Commission of the Armed Forces that was created by the Executive Power according to the decree published in the Official Gazetteer No. 1872 from 1950.

Three years before the United Nations began with the Conferences on the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 the Argentine Navy released the publication N° H-235 "TOPONYMIC POLICY", which is still in force today. In its Introduction can read: "The absence of information on the origin of some toponyms in our maritime coast, created the need for its organic study to adjust them to specific standards and stable to ensure its validity for a better knowledge of maritime history and safeguarding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policy. The fruit of this task will enable the normalization of toponymy (...). This thought led in 1952 to the SHN to formulate further directives on Toponymic Policy".

Given the importance of toponymy, in 1978 the Ministry of Defense, by request of the Hydrographic Service, published the book "ANTARCTIC TOPONYMIC POLICY", which included: the form for the proposal, substitution or modification of place names in the Antarctica; the general directives for the imposition of geographical names and, most importantly, the classification of the geographical features.

Since 1972, by prescriptions of the Hydrographic Law N° 19.992, which replaced the Hydrographic Law from 1954, the Argentine Naval Hydrographic Service (in cooperation with the National Geographic Institute) are the authorities in charge of the toponymy in their areas of jurisdiction, taking into account principles and procedures such as:

Repetition of names will be avoided.

- When adopting personal names, only the surname will be applied.
- Names of living people will not be applied.
- Names of family or friends from expedition members will not be applied.
- Sponsors and company names will not be applied.
- Geographical names imposed by foreign explorers must be respected as such.

- A name may be replaced by another when such is not registered in the Argentine official charts, lacks historic property or such is liable to confusion.
- The fundamental criteria to define the change of a place name will be the rooting and the historic property in that order.
- Descriptive names will be applied only when they represent a true navigation aid.

- Exceptions to the norms must have irrefutable arguments.

Frigate Lieutenant and Geography Professor Pedro Parica
 Director of the Toponymy Section
 Argentine Naval Hydrography Service
 E-mail: toponimia@hidro.gov.ar

Legislation on Geographical Names in Cyprus

Introduction

The Cyprus Permanent Committee for the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 (CPCSGN) was initially created in 1967. It was officially established by the decision of the Council of Ministers no.15.769 of 21.4.1979, and constitutes the only competent National Authority for the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 in Cyprus. According to law N.66(I)/98 and regulations ΚΔΠ 443/2001, the Committee operates under the Minister of Education and Culture. The following diagram illustrates the operational structure of CPCSG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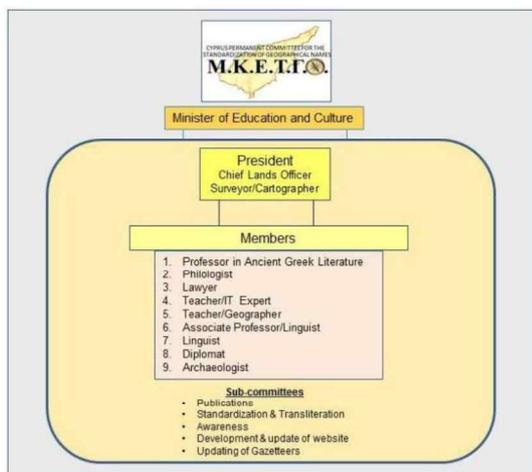


Figure 1: CPCSGN Organizational Structure

Legislation

The following laws and regulations concern the geographical names of the Republic of Cyprus, and the operation of the Permanent Committee for the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

A. **Law N. 66(I)/1998** – Procedure for standardizing the geographical names of the Republic of Cyprus. Enacted on 17.7.1998.

This law provides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Permanent Committee for the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 in Cyprus (CPCSGN). The Minister of Education and Culture appoints the president and the nine members of the Committee every five years.

In the exercise of its powers, the Committee selects from the existing types of geographical names, a single type for official and international use, after examining them, based on linguistic, grammatical, aesthetic, social and historical criteria.



Figure 2: Legislation of CPCSGN

The Committee collects data from the fields of history, linguistics, archaeology, literature, cartography and folklore that help the etymology, spelling and standardization of toponyms and names of the municipalities and the communities of Cyprus.

Based on this law, Greek geographical names are standardized in panhellenic demotiki (demotic) Greek Language. Turkish names, as they existed before the Turkish invasion of 20.7.1974, are also standardized based on the “panhellenic demotiki (demotic)” Greek Language.

The Minister of Education appoints an Advisory Committee of five experts. Most of these experts mainly come from the academic staff of the University of Cyprus.

The Advisory Committee examines any issues that are raised by CPCSGN. It also examines any objections that are submitted by interested parties and sends its outcomes to CPCSGN.

Any proposals from CPCSGN are not implemented, unless the corresponding regulations are approved by the members of the Parliament.

B. **Κ.Δ.Π. 443/2001** – Regulations on the procedure for standardizing the geographical names of the Republic of Cyprus. Enacted on 30.11.2001.

The regulations provide for the composition and the operation of CPCSGN. Based on these regulations, CPCSGN examines specific issues and assigns tasks to sub-committees consisting of one or more

members. The outcomes of the sub-committees have to be approved by CPCSGN. The Committee is subdivided into five sub-committees which deal with specific issues as follows:

- Publications
- Standardization and transliteration
- Awareness
- Development and update of website
- Updating of Gazetteers

The president of CPCSGN represents the Committee in all public relations. He/she prepares the agenda of each meeting, he/she invites the meetings, and executes the Committee's decisions.

One of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is elected as secretary every two years. Additional persons are allocated to CPCGN for carrying out secretarial work.

The Committee mainly deals with the following topics:

- Handles all matters related to the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 of the Republic of Cyprus.
- Records the geographical names of the Republic of Cyprus, studies all related issues, and submits to the Competent Authority for approval its suggestions on standardization and coding of geographical names.
- Represents the Republic of Cyprus in international meetings of the United Nations (UN) on issues of its competence, and cooperates with the UN and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the corresponding national committees of other countries, to attain the objectives provided in legislation.
- Advises the competent local authorities for naming or renaming of streets, and the spelling of geographical names.
- Monitors the implementation of the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 and the Greek to Roman alphabet transliteration system of the Greek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ELOT 743), which was accepted by the Fifth Conference of the United Nations, as a standard of the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ISO 843.3) and was adopted by the Council of Ministers.

The annual budget of CPCGN is covered by the Government, under the budget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 C. **Law N.71(I)/2013** – Amendment to law on the Procedure for standardizing the geographical names of the Republic of Cyprus. Enacted on 19.7.2013.

According to Law N.71(I)/2013, an amendment was added to law 66(I)/1998, by creating a new section, which criminalizes the alteration of geographical names and toponyms and the illegal issue, import, circulation, supply, distribution and trade of maps, books or other documents, in conventional or digital form, which contain geographical names and toponyms of the Republic, imprinted differently than those specified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laid down in the Law, or those contained in the official Toponymic Gazetteer. The term "Toponymic Gazetteer" means the comprehensive gazetteer of all geographical names and toponyms, in the Greek and Turkish Languages, which was submitted by the Republic of Cyprus to the 5th United Nations Conference for the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 which took place in Canada in 1987.

The law provides, in case of conviction, a prison sentence, which does not exceed three years, or a fine, which does not exceed 50000 Euro, or both sentences, and all documents/items of offence are subject to seizure and destruction.

- D. **Law 43(I)/2010** – Creation of Spatial Data Infrastructure (INSPIRE). Enacted on 14.5.2010.

According to this law, the Government of Cyprus is obliged to create a Spatial Data Infrastructure (SDI), along with a mechanism to search, view, download and direct access spatial data of government and semi-government organizations in Cyprus, in accordance to Directive 2007/2/EC (INSPIRE) of the European Union. A total of 34 spatial themes are included, and each data theme is sub-divided into several other sub-themes, including metadata, datasets and e-services. Geographical names constitute a significant part of the SDI and play a very important role.

Conclusion

Cyprus is privileged to have most of its geographical names bequeathed in ancient texts from Homer to Herodotus, the tragic poets and Strabon, up to ancient cartographers, like Claudius Ptolemaeus, and from medieval cartographers, like Abraham Ortelius, up to lord Horatio H. Kitchener, who mapped Cyprus in the 19th Century, at the beginning of the British rule of the island.



Figure 3: *Toponyms of Cyprus – Part of Map of Cyprus (Mercator Hondius), 1633*

The CPCSGN, realizing the benefits, strongly supports the efforts undertaken by the UN for the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 and aims to fully comply and implement the UN and UNGEKN Conferences resolutions for the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 as a part of its duties for safeguarding the cultural heritage.

Andreas Hadjiraftis

President of Permanent Committee for the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 of Cyprus
Ag. Chief Lands Officer, Cartography/Geodesy/Hydrography/
Photogrammetry, Department of Lands and Surveys, Ministry of
Interior, Lefkosia, Cyprus
E-mail: ahadjiraftis@dls.moi.gov.cy



Egypt's Legislation on geographical names

1. Legislation on geographical names in Egypt is governed by:

1-1 Law No. 43 of 1979 of Local management system states that

Article 1: local government units are the provinces, districts and cities, suburbs and villages. Each one has its legal personality. The Decision of establishment of the units and the determination of its scope and changing their names and cancellation are defined as follows:

- a. Provinces: Decision of the President of Egypt and may be maintained within a single city.
- b. Districts and cities and suburbs: Decision of the Prime Minister after the approval of the popular Council of the province.
- c. Villages: Decision of the Governor on the proposal of the Popular Council of the districts and approval from the Popular Council of the province.

1-2 Decree No.2915 of 1964: Which organizes the work of Central Agency For Public Mobilization and Statistics "CAPMAS" states that which organizes the work of Central Agency For Public Mobilization And Statistics "CAPMAS" and considers it as the official source for providing information to all the state bodies, organizations, universities, research centers, and in the development and evaluation processes relevant to the information that can help them make informed decisions.

Article 10: Any ministry, institute, organization, or individual or individuals in the government, public sector or the private sector shall not publish any publications, results, data or statistical information except through the statistics of CAPMAS. Unplanned statistics within CAPMAS programs may not be published without the approval of CAPMAS.

Article 11: Each ministry, governorate, public authority and public institution shall create a department adjunct to CAPMAS titled "Central Statistical Department "in the ministry, governorate, public authority or public institution.

2. Responsible bodies:

- President of Egypt (naming provinces)
- Prime Minister (naming districts, cities and suburbs)
- Governors (naming villages, streets, all governmental landmarks included in the province)
- Ministry of Interior (naming and identifying boundaries for sections, subsections)
- CAPMAS (gathering names and disseminating them)
- Housing Ministry (Naming new cities street names and districts)

3. Rules of naming streets:

Ex. Cairo Governorate Council Resolution No. 189 of 1966," Rules for the release and replacement of street names and the system of honoring deceased martyrs and distinguished people"

- a. The public streets whose names have never been assigned yet are named by historical names or in the name of the greatest archeological building in which it was erected or in the name of

its original place before making it street or in the name of the most historic event occurred in it or on the name of residence.

- b. The resolution indicates that names of the roads have to be considering commemorating prominent incidents and prominent persons in the history of Egypt from different ages, choose the names of accidents or persons from the pre-Islamic era, except roads located in areas that had connection with those ages
- c. In the newly emerging areas of the city, which had no direct works in the history of Egypt in its different ages or that were not exploited in the past, it is necessary to place a name for each region that helps to choose the names of the roads, based on the geographical situation or Historical or geological of these areas, or the population in which they were born, or by the use of numbering, the roads are not called names of living persons.
- d. No Street shall be called a non-Egyptian living person except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where the owner of the name has performed an excellent service or in the event of exchange of names, avoiding as far as possible the release of the names of cities and villages.
- e. According to the decision is avoided as far as possible the launch of a name on more than one street in the city of Cairo and its environs in order to prevent any confusion, And avoid the names of lengthy and complex and very complex in order to facilitate the circulation of street names on tongues and conservation and preferably the name is composed of one word or two words, The current names of the streets are kept to the extent possible, as the change causes the loss of the features contained in documents of ownership of real estate owners only in case of assignment of individuals, in which case the old name under the new name is placed on a smaller line plus the word "previously".
- f. The decision allows for the replacement of undesirable names with a desirable one if the largest numbers of property owners who have their properties on the road request that. The old name is placed on the board under the new name, plus the word "previously".
- g. After the approval of the selection of street names, a register is made to record the names chosen and the reasons for the selection. The names given to all streets are placed through an alphabetical index. The names are then added to the new roads or the old names are changed.
- h. As for the naming of streets in the names of deceased martyrs and distinguished people, the resolution states that who deserves to be honored the person who has done a preserved work that will benefit his country and his nation. It is also necessary to erect a memorial for the Unknown Soldier in a wide public square, worthy of honoring the martyrs of the country, the facilities, streets, schools, institutes which belong to the governorate of Cairo have to be called names of deceased martyrs and distinguished people, taking into account the rules approved by the Committee for the names.

Eman Oriby

Senior GIS Engineer

CAPMAS, Cairo, Egypt

E-mail: emanorieby@gmail.com



The work involved in bringing legislation on geographical names to Finland

Several different agencies in Finland are responsible for planning and dealing with geographical names. The legislation on decisions for geographical names is scattered about in different Acts and inherited place names, such as the names of natural features, are not mentioned in the law at all. In Finland there is no one national authority responsible for geographical names or any specific law that would determine who has the power to decide on different place names and their spelling, who registers the approved names and what place names the authorities have to use.

The absence of any clear legislation has led to a number of problems. For example, local authorities have tried to change the names of natural features for no good reason and without jurisdiction, merged municipalities have come up with unsuccessful naming solutions, and administrative regions have been given names that are unidentifiable in the national context. The problems not only take time and money to solve, but they also threaten the preservation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 inherited toponyms.

The most recent legislative proposal from 2011

Efforts have been made to bring legislation on geographical names to Finland for several decades now. In 1956 the Finnish Parliament made a wish for the Government for a legislation on geographical names in order to achieve the objective, which, following the report by the Parliament's Legal Affairs Committee, nevertheless remained no more than a recommendation. It proposes that authorities in need of geographical names (for example Railroad Administration when deciding on the names of railway stations) should request an opinion on their proposals for names from bodies of experts on the subject. Later, proposals for an Act were put forward in 1962, 1978 and 1997. There are good arguments for an Act from the perspectives of the proper functioning of society, language policy and the preservation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 most recent initiative dates back to 2011, when the Institute for the Languages of Finland together with the National Land Survey of Finland proposed the enactment of a law on place names and the

establishment of an official body responsible for geographical names to their respective ministries. Enactment of a law on place names was also proposed as a draft measure under the Action Plan for Clear Administrative Language (2014). The Action Plan was drawn up by a working group appoin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and consisting of experts from the administrative and educational sectors and specialists in the use of language.

Support from UNGEGN

There has been support for Finnish initiatives with respect to place names since 1967 from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 in the form of a resolution (I/4), which recommends setting up a national place name authority for each UN member country. Finland has been involved in the work of the United Nations Group of Experts on Geographical Names (UNEGGN), which organised the standardisation conferences, since it was established.

Finland would like to hear the experiences of other countries at UNGEGN sessions of national authorities and laws relating to place names. How can the need for an Act on geographical names and an authority to oversee the matter be justified? What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in preparations for the Act and in its content? How will the Act have affected practical standardisation work? Listening and giving consideration to the experiences of other countries will help national standardisation of geographical names and encourage the introduction of legislation that supports it in the best possible way in Finland.

Ulla Onkamo

Senior Specialist, Institute for the Languages of Finland
ulla.onkamo@kotus.fi

Legislation on geographical names in New Zealand

A milestone for geographical naming in New Zealand was reached when the [New Zealand Geographic Board \(Ngā Pou Taunaha o Aotearoa\) Act 2008](#) was passed on 22 May 2008, after more than five years of review. While the New Zealand Geographic Board Act 1946 was an enlightened piece of legislation for its time, an update was needed to improve jurisdictional, consultative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Legislative provisions for geographical naming in New Zealand were initially under the auspices of the Royal Geographic Society of London, until the Designations of Districts Act of 1894 gave the Governor-General of New Zealand authority to alter or assign geographical names in the colony.

One of the early reasons for an authority on geographical names was to avoid confusion in naming post offices and railway stations. In 1924 the Minister of Lands approved the formation of a board to settle questions and problems about naming places and features in NZ.

The first Board, known as the Honorary Geographic Board of New Zealand, lacked the necessary power to implement its decisions. Therefore, it acted in an advisory capacity until 1946 when the New Zealand Geographic Board was established under the New Zealand Geographic Board Act 1946.

In looking at the use of legislation for geographical naming,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what needs to be achieved by the legislation, and what government purposes it may serve. Legislation is the strongest form of governmental intervention, and should only be used where less directive tools are unlikely to achieve the government's desired outcomes.

The passage of the New Zealand Geographic Board Act 1946 indicated a view at that time that legislation was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to generally achieve its outcomes and objectives. It can be presumed that the government perceived that the effectiveness of the non-statutory Honorary Geographic Board of New Zealand was hampered

by
the
lack
of a



statutory mandate. The 1946 Act retrospectively provided this mandate by explicitly recognizing the decisions of the Honorary Board and required that the new statutory board gazette them and formally bring them under the new legislation.

The view that legislation is necessary for the efficient and effective achievement of government outcomes in geographical naming was confirmed by the complete review of the 1946 Act, which culminated in the New Zealand Geographic Board (Ngā Pou Taunaha o Aotearoa) Act 2008. The need for legislation was achieved despite modern policy practice where the role and need for government legislation is subject to greater scrutiny and policy assessment than was probably the case in 1946.

The main issues considered in the review of the New Zealand Geographic Board Act 1946 were to:

- clarify the jurisdiction of the Board for naming:
 - undersea features
 - in Antarctica
 - Crown protected (reserve) areas
 - suburbs and localities
- revise procedures for public participation in the geographical naming process
- consider the composition and membership of the Board
- ensure the provisions of the Act align more clearly with the Treaty of Waitangi

- modernise the Act's administrative and procedural provisions
- provide for a publicly available Gazetteer of official geographic names
- strengthen the compliance provisions and modernise the penalty provision
- strengthen the Board's roles, enabling it to create new names, change or discontinue current ones, and approve recorded names.

The review also took into account these 12 principles Woods (2004) identified for the development and formulation of national geographic naming legislation:

1. National legislation should respect and observe international law and conventions.
2. Legislation should adopt international best practice for geographic naming, while taking into account particular local conditions.
3. Legislation should aim to strengthen national identity, in particular the rights and interests of indigenous peoples. It should have regard for the important role of geographic naming in the preservation of historical and cultural heritage.
4. Legislation should provide for the establishment of a central, national geographical naming authority. This authority should be directly responsible for naming all geographic features within its jurisdiction.
5. Legislation might provide for the devolution of administrative geographical naming to territorial authorities or other appropriate administrative bodies.
6. Legislation should provide for the national authority to be independent of the government in its decision making.
7. Legislation should provide for geographic naming interests at national and local community level to be represented on the national authority.
8. Legislation should provide for individuals, communities and indigenous peoples to be involved in, and contribute to, the geographic naming process at national and at local levels. They should have adequate opportunities to submit, or object to, proposals for new, amended or restored geographic names.

REFERENCES

Paper - Grant & Shaw - FIG 2010 - Place Naming in New Zealand, http://www.fig.net/resources/proceedings/fig_proceedings/fig2010/papers/ts07i/ts07i_grant_shaw_4557.pdf

Woods, R (2004) Legislation for the Naming of Geographical Features and Places, *Presented at Toponymy Training Course, Bathurst, 12-14 October 2004*, <http://www.icsm.gov.au/icsm/membersonly/geonames/2004CGNAWeb/Legislation.pdf>

Wendy Shaw

Secretary for the New Zealand Geographic Board
Land Information New Zealand
E-mail: wshaw@linz.govt.nz

Legislation on geographical names in Norway

The Norwegian Place Name Act (NPA) of 1990, put into force in 1991, with regulations and guidelines states that the purpose of the Act is to safeguard names as cultural heritage and provide practical standardized name forms. NPA applies where the state or any county or municipal body shall determine geographical names and/or the spelling of geographical names, or use them in the performance of its duties. NPA includes regulations for bilingual/multilingual name use, for instance on road signs and places restrictions on the changing and renaming of traditional/inherited names. Guidelines prepared by the Norwegian Language Council and the Sámi Parliament of Norway regulates in detail the spelling of geographical names.

The Norwegian Mapping Authorities (*Kartverket*) is the national name authority and standardize the spelling of the vast majority of inherited geographical names. The municipalities (*kommunene*) standardize newer names, for instance names of road addresses. All names recognized under the Act must be reported to a central register administered by Kartverket. Before names are standardized, the name consultancy services (*stedsnavntjenestene*) are consulted and local hearings is required. The name consultancy service for Norwegian language names and Kven language names are administrated by the Norwegian Language Council (*Språkrådet*), and the consultancy service for Sámi language names is administrated by the Sámi Parliament of Norway (*Sametinget*). An appeal committee (*Klagenemnda for stedsnavnsaker*) is set up to handle complaints

about the standardized forms of geographical names. NPA is evaluated and revised by the Ministry of Cultural Affairs (*Kulturdepartementet*). This ministry also finances the name consultancy services.

NPA is subject for struggle and debate on a high political level. Amendments was put into force in 2006 and 2015, and a third amendment is expected next summer (2019). The aim for the ongoing revision is to find a way to "democratize" the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 within the concept of local self-government, a concept that to a larger extent expresses a judicial and political ambition to build a municipal defense against the state.

The full text of the act and its regulations are available at [LOVDATA](#) website. The proposal from the Ministry of Cultural Affairs regarding the revision is available at [Regjeringen](#) website. The guidelines regarding the spelling of Norwegian language names are available at [Sprakradet](#) website.

Ingvil Nordland

Chair of Norden Division

Senior Advisor for the Norwegian Language Council and

PhD student researching the scalar politics in geographical name standardization

E-mail: ingvil.nordland@nmbu.no

Legislación Sobre Los Nombres Geográficos En El Perú

Al nombre del Instituto Geográfico Nacional del Perú y del Departamento de Nombres Geográficos de la Dirección de Geografía, se les hace llegar saludos cordiales y felicitarlos por los 51 años de arduo labor en beneficio de la investigación de los nombres geográficos y su normalización a nivel mundial, regional y local.

A continuación se detallan las normas por el cual el Instituto Geográfico nacional a través del Departamento de Nombres Geográficos, se basan para realizar los estudios técnicos relacionados con los nombres geográficos.

Normativa de carácter nacional.

A. Ley N°27292 "Ley del Instituto Geográfico Nacional".

El Instituto Geográfico Nacional tiene por finalidad fundamental elaborar y actualizar la cartografía básica del Perú, proporcionado a las entidades públicas y privadas la cartografía que requieran para los fines del desarrollo y la defensa nacional.

De acuerdo a las funciones relacionadas con los nombres geográficos, tiene lo siguiente:

- Coordinar con las autoridades correspondientes los asuntos relacionados a los nombres geográficos o topónimos.

- Representar al país ante los organismos técnico-científicos nacionales e internacionales en eventos y reuniones relacionados con las ciencias geográficas- cartográficas y sus aplicaciones.
- Autorizar a las entidades públicas y privadas la publicación de mapas del Perú, que contengan como tema principal las linderaciones político-administrativas e informaciones toponímicas.

De acuerdo a esta Ley, en el capítulo VII-Art 16 "La Dirección de Geografía, está encargada de planear, organizar, dirigir, ejecutar y controlar las actividades geográficas – cartográficas de límites, demarcación territorial y nombres geográficos, así como de las acciones de investigación y desarrollo de las ciencias geográficas aplicados al campo de la cartografía. Asimismo de acuerdo al artículo 29 del reglamento de Ley N° 27292, aprobado por Decreto Supremo N° 005 DE/SG, dispone que la Dirección de Geografía del Instituto Geográfico Nacional, tiene entre sus funciones desarrollar la política institucional con relación a los nombres geográficos, para lo cual coordinará con las entidades nacionales e internacionales.

Actualmente a través del Departamento de Nombres Geográficos, se formulan informes técnicos relacionados con la verificación y actualización de los Nombres Geográficos a las entidades públicas, privadas y usuarios en general; entre otros.



b. Resolución Ministerial N° 1310-2007-DE/SG “Constituyen Comisión de Pre-Normalización de Nombres Geográficos”

Se constituyó la Comisión de Pre Normalización con el fin de realizar una labor concertada, uniformando un solo criterio para pre normalizar los nombres geográficos a nivel nacional con el objeto de facilitar el manejo mediático y digital de dichos nombres dentro del territorio nacional.

Están designados como miembros:

- Instituto Geográfico Nacional, cuyo jefe lo presidirá
- 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 e Informática
- Secretaría Nacional Técnica de Demarcación Territorial de la Presidencia de Consejo de Ministros
- Dirección Nacional de Soberanía y Límites del Ministerio de Relaciones Exteriores
- Dirección de Hidrografía y Navegación de la Marina de Guerra del Perú
- Sección Nacional del Instituto Panamericano de Geografía e Historia
- Colegio de Geógrafos del Perú
- Sociedad Geográfica de Lima
- Escuela de Geografía de la Universidad Nacional Mayor de San Marcos
- Facultad de Ingeniería Geográfica de la Universidad Nacional Federico Villarreal.

c. Ley N° 29735 “Ley que regula el uso, preservación, desarrollo, recuperación, fomento y difusión de las lenguas originarias del Perú”

De acuerdo a esta Ley, promulgado el 02 de julio del año 2011, se menciona lo siguiente:

- Capítulo I-Artículo 2 “Declaración de interés nacional”
- Declárase de interés nacional el uso, preservación, desarrollo, recuperación, fomento y difusión de las lenguas originarias del país.
- Capítulo IV-Artículo 19 “Toponimia”
- El Instituto Geográfico Nacional mantiene las denominaciones toponímicas en lenguas originarias en los mapas oficiales del Perú

Conclusiones

De acuerdo a la normativa legal ya descrita, este Instituto Geográfico Nacional realiza las investigaciones de las ciencias geográficas cartográficas relacionado con los nombres geográficos y de acuerdo a

sus funciones es representante a nivel nacional e internacional ante otros organismos e instituciones:

- A nivel internacional es representante ante el Grupo de Expertos en Nombres Geográficos de las Naciones Unidas (UNGE GN), el cual nos permite mantener un vínculo a través de la elaboración de artículos para que sean publicados en los boletines y otros documentos.
- A nivel nacional, a través del Departamento de Nombres Geográficos, ha sido participe en la elaboración de la Política Nacional de Lenguas Originarias, tradición Oral e Interculturalidad, a través del Decreto Supremo N° 005-2017-MC, con el cual se da cumplimiento al mandato establecido en los artículos 11 y 12 de la Ley N° 29735, “**Ley que regula el uso, preservación, desarrollo, recuperación, fomento y difusión de las lenguas originarias del Perú**”, del Ministerio de Cultura.

Este Instituto Geográfico Nacional, a través del Departamento de Nombres Geográficos, realiza las acciones necesarias que correspondan para mantener las denominaciones toponímicas en lenguas indígenas u originarias los cuales son registrados en la cartografía básica oficial y así como en la publicación de nomenclátors geográficos impresos y en digital lo cual permite realizar estudios de evolución toponímica, conociendo las fuentes de su origen histórico, cultural y lingüístico.

Actualmente el Departamento de Nombres Geográficos como representante oficial de los nombres geográficos en el Perú, continuamos trabajando en la verificación y recopilación de toponimia en el norte del Perú, comprendiendo los departamentos de Tumbes, Piura, Lambayeque y la Libertad, en este último departamento se recopiló un total de 8529 topónimos, con la finalidad de mantener actualizada la base de datos de la cartografía básica oficial escala 1:25 000, y posterior a la generalización de los topónimos que contendrán en la cartografía a escalas 1:50 000 y 1:100 000 para la actualización de las referidas series cartográficas.

Departamento De Nombres Geográficos Organización

Instituto Geográfico Nacional

E-mail: nombres_geograficos@ign.gob.pe



Rules and Regulations of the National Committee on Geographical Names in the Kingdom of Saudi Arabia (NCGN)

There is a growing interest in geographical names throughout the world in general and also in Saudi Arabia which is evidenced by the presence of multiple government agencies dealing with place names in the Kingdom. Some of these agencies are the General Commission for Survey, the Directorate-General for Military Survey in the Ministry of Defense, the Saudi Geological Survey, the Ministry of Municipal and Rural Affairs,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the King Abdulaziz Foundation for Research and Archives and the Saudi Geographical Society, as well as a number of researchers and interested individuals.

To address this issue a Royal Decree was issued on August 4, 2013 to synergize the efforts being made by these bodie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Committee on Geographical Names in the Kingdom of Saudi Arabia with its headquarters in King Abdulaziz Foundation for Research and Archives. Another decree by the Council of Ministers no. 318, dated March 6, 2018 which issued the rules that regulate the operation of the National Committee on Geographical Names in the Kingdom of Saudi Arabia. This decree begins with the following phrase: "It is incumbent upon the governmental bodies concerned with geographical names, when designating new place names or changing existing place names, to act in coordination with the NCGN – in its capacity as the official authority in this respect to solicit have its recommendations for such matters".

The NCGN has since its inception has been very active in publishing books, holding the Arabic Division of the UNGEGN in Riyadh in April 2017, and has been attending the UNGEGN meetings ever since. The NCGN has been effective in coordinating the work of more than 15 governmental authorities, and answering queries coming from these agencies and from local citizens.

Regulatory Rules for the Operation of NCGN:

The Objectives of NCGN:

The objectives of the NCGN are to unify efforts relevant to geographical names within the Kingdom of Saudi Arabia in terms of their writing, vowelization, spelling and all respective national criterion of them, and prepare data bases for such names.

Members of NCGN:

The NCGN shall have in its board the following governmental agencies:

1. The Secretary General of King Abdulaziz Foundation for Research and Archives (as the chairman);
2. A representative of the Saudi Historic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Center (as a member);
3. A representative of the Ministry of Interior (as a member);
4. Representative of the Ministry of Municipal and Rural Affairs (as a member);
5. A representative of Ministry of Energy, Industry and Mineral Resources (as a member);
6. A representative of Ministry of Transport (as a member);
7. A representative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as a member);
8. Two representatives of The Ministry of Culture (one) and Media (one);

9. A representative of the Saudi Geographical Society (as a member);
10. A representative of the General Commission for Survey (as a member);
11. A representative of Saudi Geological Survey (as a member);
12. A representative of the Saudi Commission for Tourism and National Heritage (as a member);
13. A representative of the General Authority for Statistics (as a member);
14. A representative of King Abdulaziz City for Science and Technology (as a member);
15. A representative of the National Center for Archives and Records (as a member);
16. A representative of the Saudi Post (as a member).

Jurisdiction of the Committee:

With due deference to the authorities and jurisdictions of the governmental bodies laid down or stipulated in statutes, organizations, regulations, resolutions, and instructions, the NCGN shall be an official reference for everything pertaining to the existing geographical names or new ones in the Kingdom of Saudi Arabia, and provide recommendations to deal with such matters. It has the right to seek assistance from whoever the NCGN sees suitable from both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in relation to geographical names.

Functions of the NCGN:

1. Collect and propagate geographical names in the Kingdom of Saudi Arabia, and exert operations pertaining to this function, and preparing a database for such names and an indexed gazetteer that includes those names written in Arabic and Latin words (Romanization) in coordination with relevant governmental bodies concerned with, or specialized in, geographical names, and be regarded as a compulsory reference for all governmental bodies; and to be updated whenever necessary to have later ratified by the Royal court.
2. Coordinate with other governmental bodies concerned with geographical names, and cooperate with such bodies in order to unify all efforts being exerted in this matter;
3. Represent the Kingdom of Saudi Arabia internally and externally in all matters concerning geographical names in the KSA, and also to cooperate and participate at the international level for the preparation of the International Indexed Gazetteer.

Headquarter of the NCGN and its Budget

The NCGN headquarters will reside in King Abdulaziz Foundation for Research and Archives which will supervise it administratively and financially, and provides it with everything it needs from financial support and supportive administrative services, and cater for it with researchers and specialists in order to accomplish its functions.

Abdullah N. Alwelaie

Vice-Chairman of NCGN,

King Abdulaziz Foundation for Research and Archives

E-mail: alwelaie@hotmail.com

Legislation on geographical names in Spain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how the influence of administrative and linguistic diversity of Spain on the normalization and legal regulation of geographical names.

The Spanish Constitution is the supreme Law in the Spanish legal system. Article 137 establishes that, “the State is organized in municipalities, provinces and Autonomous Communities. All these entities have the autonomy to manage their own interests”. Article 3 says that “1. Castilian is the Spanish official language of the State. 2. The rest of Spanish languages will be also official inside their own autonomous communities, according to their statutes. 3. The linguistic richness of Spain is a cultural heritage that must be respected and protected”.

Spain is divided into 17 Autonomous Communities, 2 Autonomous Cities (Ceuta and Melilla), 50 provinces and 8124 municipalities. Spanish is the official language in all of them. There are several co-official languages depending on the region: Catalan in Catalonia and the Balearic Islands, Basque in the Basque Autonomous Community and Navarre, Valencian in the Valencian Community, and *aranés* in the Aran Valley (Catalonia). There are also some dialects like *asturleonés* and *aragonés*, which are protected too.

At an international level, Spain belongs to the European Union and thus is under the rule of the European regulations and directives. The former are immediately implemented in the Spanish legal frame and the latter need to be transposed into a Spanish law. Moreover, there also exist recommendations or guidelines on toponymy such as that of the 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 or the United Nations, both organizations being competent authorities in geographical names.

Thus, there are three levels of competence corresponding to the State, the Autonomous Communities and the Local Administration (municipalities and others) (fig. 1). Every Administration has the right to create its own competent organizations in geographical names: At a State level we can consider several of them: the Local Entities



Figure 1: Levels of Territorial division in Spain

Register, the National Hydrographic Institute, the Directorate General of Roads, Hydrographic Confederations, National Parks Organization, Spanish Airports and Air Navigation Agency, State Ports Agency, Administrator of Railway Infrastructures, and the National Geographic Institute. Some Autonomous Communities and Autonomous Cities have created their own organisms responsible for normalization of geographical names. In the territories where a second official language exists, the competences for normalization belong to the official Academies of the co-official Language but if Spanish is the only official language, the task is usually assumed by the corresponding regional cartographic institute. Finally, municipalities are the authorities for establishing their own official name, those of their urban streets and other minor populations inside their territory. For competences to be assumed it is necessary for each Administration to create and publish their normative in the official bulletins, always in coordination with the rest of Administrations in order not to produce overlaps between them.

Due to the diversity of Spanish legal frame in geographical names, the Specialized Committee for Geographical Names (*Comisión Especializada de Nombres Geográficos*), a multidisciplinary committee that includes State and regional Administrations, plus other organizations with competence in geographical names, such as Universities and Academies of Language) has published a summary of the Spanish legal frame that can be consulted at [FOMENTO website](http://FOMENTO) (fig.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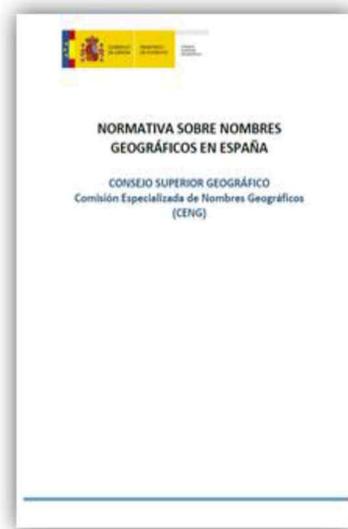


Figure 2: Summary of Spanish legal frame in geographical names

This document is maintained and updated frequently in order to help understanding the regulations that affect geographical names in Spain.

Angélica Castaño, Marcos Pavo, Marta Montilla, Rafael Téllez
Instituto Geográfico Nacional (IGN). España
National Geographical Institute. Spain
E-mail: toponimia.ign@fomento.es



Rules of consideration concerning good place-name practice – the Swedish example

Since July 2000, the Swedish *Historic Environment Act (Sw. Kulturmiljölagen)* contains rules of consideration concerning good place-name practice, primarily aimed for decision-makers in state and local authorities responsible for naming activities. The aim of this legislation is to preserve place-names as a part of the nation's cultural heritage and to prevent names from being distorted or arbitrarily changed.

Background

In the late 1970s, the issue was raised on how to preserve place-names from falling out of use or being altered or misrepresented. A Government report entitled "The value and care of place-names" was published in 1982, but no legislative proposal was prepared. Instead, Lantmäteriet (the Swedish Mapping, Cadastral and Land Registration Authority) was instructed to formulate general guidelines for handling place-name questions in connection with cadastral activities and real property registration.

Another important initiative was the establishment of the Place-Name Advisory Board of Sweden (Sw. *Ortnamnsrådet*) in 1985. The Board is appointed by Lantmäteriet and has an overall consultative responsibility. The board consists of members who represent authorities with a responsibility in naming activities.

In the following decade the debate continued in the Swedish parliament. Demands were made that place-names should be protected, if necessary through legislation. In 1994, the Government appointed a special enquiry to examine issues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cultural monuments and finds. In 1996, this committee delivered its report, proposing that place-names should be regarded as part of Sweden's intangible heritage and acquire legislative protection. In a bill a few years later, the Government proposed the inclusion of a special paragraph in the Historic Environment Act that would make it mandatory for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authorities to observe the code of good place-name practice. The legislation is compulsory but cannot be linked to sanctions.

Rules of consideration concerning good place-name practice

The rules of consideration concerning good place-name practice give priority to established names. Names approved for inclusion on public maps constitute the starting point for what is considered good practice in matters concerning place-names. These names must not be changed without strong reasons.

The provision also stresses the importance of respecting correct linguistic forms. New names should not be created before taking into account the effect this may have on the already established place-names.

The section in the Historic Environment Act also states that in multilingual areas, Sami, Meänkieli and Finnish names, must be used together with Swedish names on maps and on road signs. In 1999, the Swedish parliament approved the ratification of the Framework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National Minorities and the European Charter for Regional or Minority Languages. The recognition of the minority languages also acknowledges that these languages are part of Sweden'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Finally, the clause states that names that have been approved by Lantmäteriet, for example in the property register or on official maps are normative. This means that approved names must be used in their proper form also in other contexts.

Swedish national name standardization - in short

The supervision of the Act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Swedish National Heritage Board. However, the role as national place-names authority is performed by Lantmäteriet. The third main part involved in Swedish place-name standardization is the Institute for Language and Folklore. The Institute for Language and Folklore is a Swedish government agency, which conducts research and provide advice on dialects, language policy, names and folklore. For a long time, it has been standard practice in Sweden to submit place-names to the Institute for Language and Folklore for consultation. In this process, Lantmäteriet interacts with the Institute's department of Onomastics. When it comes to alteration of names in the property register, the consultation process also includes the Swedish National Heritage Board.

The Place-Name Advisory Board of Sweden, appointed by Lantmäteriet, has an overall consultative responsibility. The Board develops recommendations for a good national policy regarding place-names. As part of its mission, the Board recently released a revised edition of its guide to name standardization and good place-name practice. The booklet is primarily intended for local authorities in Sweden involved in official naming activities.

To sum up, the impact of this legislation is mainly reached through information efforts aimed at strengthening the understanding of good-place-name practice in society.

Ebba Berling Åselius

Senior Adviser

Lantmäteriet (the Swedish Mapping, Cadastral and Land Registration Authority)

E-mail: ebba.berling.aselius@lm.se

주 의 사 항

1. 본 보고서는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의 수탁을 받아 (사)동해연구회에서 수행한 연구보고서입니다
2. 본 내용을 대외적으로 게재,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의 사전 허락을 받기 바라며,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유엔지명전문가그룹 총회 대응전략 연구

발행일 · 2019년 12월 12일

발행처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92 (원천동)
TEL · 031-210-2700
FAX · 031-210-2644